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연구보고 06-R12-4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과정 연구

책임연구원 : 서병문(베를린 자유대학)

공동연구원 : 안드레아스 헤네커(베를린 자유대학)

제스퍼 코글린(베를린 자유대학)

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게이오대학교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아이오와 대학교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베를린 자유대학교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남스톡홀름 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개발원	김현철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은정 부연구위원	손승영 (동덕여대)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 박현주 (함부르크 대학)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홍승아 연구위원 김혜영 연구위원	정경자 (호주 사회정책연구원) 김보영 (영국 오크 사회정책학과)
협력 연구 기관	게이오 대학교	와타나베 히데키 교수	마즈다 시게키 (다이치세메 경제연구소) 무쿠오 아사코 (게이오 대학) 배지혜 (게이오 대학)
	아이오와 대학교	김재은 교수	김상학 (아이오와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교	서병문 교수	안드레아스 헤네커 (베를린 자유대학) 제스퍼 코글린 (베를린 자유대학)
	남스톡홀름 대학교	최연혁 교수	피터 스트랜브링크 (남스톡홀름 대학)

연구결과요약

-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뉨. 하나는 독일의 가족 및 가족 내 사회화 과정에 대한 기존의 조사결과 및 문헌을 정리한 부분과 베를린 지역 중등학교(짐나지움과 레알슐레) 학생을 대상(유효표본수 495명)으로 실시한 「가족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조사」의 결과표로 나뉨. 결과표는 조사개요와 함께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분석은 이 연구의 종합 보고서인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에 5개국 비교결과로서 제시되어 있음.
- 오늘날의 독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은 자아개발이나 비판력과 같은 가치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며, 친사회적인 가치들, 즉 타인에 대한 고려나 책임감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 다음으로 순행, 명예욕 그리고 안정지향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흥미롭게 이끌고 싶다는 쾌락주의적 가치가 뒤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가족구성, 학생신분, 실업, 이주경험 등이 특정한 가치지향을 결정짓는 요인들이며, 특히 타국에서 이주해 온 청소년들은 적응이나 안정성 지향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물질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독일 청소년들보다 쾌락주의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지역적 요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가치지향의 큰 요인으로 나타나 구동독에서는 특히 자아개발이나,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아주 선호되는 추세를 보임.
- 12-15세 사이의 독일 청소년들은 서독에선 75% , 동독에서는 59%가 연맹에 소속되어 있으며, 10%정도가 정치적 성향을 띤 모임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들의 활동 및 사회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10-15세 청소년의 경우 음악

을 듣거나 노래를 하는 등의 문화적 활동은 겨우 10-20% 이하의 학생들이 하는 반면에 50%가 넘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류층에 속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른 사회적 계층의 아이들보다 눈에 띄게 독서나 예술적·미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의 빈곤상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2003년 모든 연령층의 아이들이 평균이상의 높은 빈곤비율을 보임. 이러한 지표는 가족경제의 삶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런 지표를 나타내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편부모 가족인 경우가 반 이상이었고 양부모 가족인 경우는 1/3도 되지 않음. 편부모의 빈곤비율은 양부모인 경우 보다 높고, 경제활동도 부업이나 보조인 경우 전업인 경우보다 빈곤비율이 높게 나타남.
-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학업의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게 되는가는 그들 부모의 학력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민세대이거나 노동자계층인 경우 고학력으로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그 어려움이 다른 부류의 학생들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3년 PISA 분석에서도 잘 나타남. PISA의 결과는 독일 교육의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반일제 수업에서 전일제 수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의 청소년들의 실업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2년의 쉐 청소년 설문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테러리즘, 경제적 불황, 환경오염 그리고 유럽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나타냈으나, 2006년 청소년들은 오히려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셸 청소년 설문 조사(Shell Jugendstudie, 2006)에 따르면, 독일의 부모자녀 관계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끔씩 부모와의 의견충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사이가 좋다고 응답함. 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료적이고 좋은 부모자녀관계가 독일 청소년에게는 일반화 된 것으로 보임.

목 차

I. 청소년의 정의/개념화	
II. 청소년의 태도/행동양식의 특징	
1. 가치체계	7
2. 생활양식과 태도	9
1) 청소년의 생활양식	9
2) 여가시간	10
3) 매체	11
4) 기타 교육 장소	17
3. 일탈행위	23
III. 사회화과정의 사회적 배경	
1. 가족의 변화	29
1) 가족구조의 변화	29
2) 현대 가족의 분해	30
3) 사회계층과 가족문제	31
4) 성불평등관	35
2. 계급, 학교, 복지체계와 관련이슈들	36
1) 양극화 현상	36
2) 학교와 청소년복지의 협동	41
3) 교육과 청소년노동	42
3)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사회노동	42
4) 학교에서의 기회균등	44
5) 사교육의 증가	45
6) 전일제 학교	47
3. 청소년인구: 성, 인종 그리고 결혼	49
1) 동거와 결혼에 대한 의식	49
2) 비기독교적인 출신성분과 사회적 참여기회	50

4. 청소년의 노동 및 직업체험	52
1) 청소년의 노동	52
2) 직업체험	55
IV. 사회화 과정의 장으로서의 가족	
1. 가족의 역사	59
1) 가족의 위기로서의 사회변동과정	59
2) 출산율의 감소	59
3) 동독과 서독의 가족유형	62
2. 가족구조의 변화	66
1) 가족유형의 변화	66
2) 부모로부터의 독립	68
3) 가족과 노동문제	69
3. 성역할	77
4. 부모자녀관계	80
5. 양육방식	82
6. 도시 속의 청소년의 생활환경	85
7. 가족의 일상과 사회화 과정	86
8. 가족과 청소년 정책	87
1) 전일제 학교의 목표	87
2) 가족정책적 판단을 위한 지표	89
V. 사회화 과정에 대한 제안점	
1. 지속적인 가족정책	93
1) 지속적인 가족정책의 목적	93
2. 교육체계와 친구관계	95
1) 연결된 교육복지시설	95
2) 가족에 대한 보완과 공공의 후원을 위한 지침서	96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105
2. 결론	107

※ 참고문헌	109
--------------	-----

부록

1. 조사개요	113
2. 단순집계표	114
3. 질문지	132

표 목차

<표 III-1> 자녀의 연령에 따른 가족의 수입(2003)	32
<표 III-2> 무자녀 고학력 여성 비율(40~44세)	35
<표 III-3> 7세 이하 아동의 사회복지 수혜 현황(2002).	38
<표 III-4> 독일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졸업 비율(2002-2003) ..	51
<표 IV-1> 유럽국가의 전체 출산율(1960-2002)	60
<표 IV-2> EU 국가 여성의 출신가족별 자녀수(1935-1960) ..	61
<표 IV-3> 각 유럽국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비율(25-49세) ..	70
<표 IV-4> 경제활동 기혼여성 비율(15-64세, 2003)	75

그림 목차

[그림 II-1]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가치선호도	8
[그림 II-2]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쾌락주의 가치 선호도	8
[그림 II-3] 청소년의 가치변화(1992-2003년)	9
[그림 II-4] 청소년이 경험한 폭력의 종류(12-25세)	16
[그림 II-5] 평일 여가활동 내용(12-25세)	18
[그림 II-6] 청년 연맹 활동 참여도	19
[그림 II-7] 지난 1년 동안 싸운 경험(12-25세)	24
[그림 III-3] 편부모와 양친부모의 빈곤률(2003)	33
[그림 III-4] 20세 이하 빈곤률 추이 (1984-2003)	33
[그림 III-5] 지역별 복지혜택 수혜 아동의 비율	37
[그림 III-6] 독일 아동의 복지 비율(2003)	39
[그림 III-7] 저소득층 아동의 비율(2003)	40
[그림 III-8]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12-25세)	49
[그림 III-9] 학교의 형태별 외국인 학생 수 (1992-2002) ..	50
[그림 III-10] 청소년의 희망취업 확신 정도(12-25세)	53
[그림 III-11] 청소년의 걱정거리(12-25세)	54
[그림 IV-4] 가족 내 자녀 수* 변화 추이	62
[그림 IV-5] 자녀수에 따른 가족의 변화(동독:1972~2002년, 서독 1991~2002년)	65
[그림 IV-6] 가족유형에 따른 18세 이하의 아동 비율 동서독비교(1961-2003)	66
[그림 IV-7] 전일제 직업에 대한 희망비율	71
[그림 IV-8] 6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부의 육아/가사/직업활동 시간	72
[그림 IV-9] 연령별 출산율(1970-2001)	73
[그림 IV-10] 기혼여성의 삶의 시기 변화	74
[그림 IV-11]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경제활동시간	76

[그림 IV-12]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에 대한 연령별 의식	78
[그림 IV-13]	성별 가사노동 시간 비교	79
[그림 IV-14]	부모와의 관계 (12~25세 청소년)	81
[그림 IV-15]	사회적 계층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12-15세)	82
[그림 IV-16]	부모의 양식 방식에 대한 청소년의 호감도*(12-15세)	83
[그림 IV-17]	부모와 갈등해결 방법(12-25세)*	84

I. 청소년의 정의/개념화

I. 청소년의 정의/개념화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호와 양육의 성장과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동기는 16, 17세기에, 청소년기는 18세기에 독립적인 인생시기로서 “발견” 되었으며,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개념적 형성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19세기 초에는 주체적 삶의 형성과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대외적인 관심이 높아졌다(Honig 2002: 311; Dudek 2002: 336). 그 이후 20세기에 들어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비중 있는 후원과 진흥이 보편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Tenorth 1988).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아동상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전에는 아동이 교육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수동적 주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인식된 것에 비하여 오늘날은 자신의 발달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스스로 권리를 가지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가족화」와 「학교화」로 특징지어졌으나, 사회체계의 계속된 분화와 함께 가족의 보호와 양육체계를 필요로 하는 독자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BFSFJ, 2005a: 56).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연령에 따라 중반, 후반(6-12세)의 아동기와 청소년(12-16세)시기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그 연령층에 해당되는 특별한 발달과제를 완수해야만 한다. 이렇게 연령별 주어진 발달 과제의 완수는 그에 해당되는 능력의 성취를 반드시 전제하여야 한다(Fend 2001; Dreher/Dreher 1985)(BFSFJ, 2005a: 190).

청소년 시기(12-16세)의 발달과제는 내적 요인(생물학적 육체적 변화)과 문화-물질적 요인(문화적 욕구에 관한 모든 것)과 같은 외적 요인(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관계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발달 과제가 청소년에게 주어진다(Fend 2001: 211).

- 생물학적 발달에 대한 과제(육체적 의식, 성)

-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발달과 자기자신 및 타인에 대한 관계형성을 위한 발달
- 부모, 동년배와 연인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재조직(새로운 관계형성에 대한 재건과 구성)
- 직업 교육 등 학교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성과준비도에 대한 재건과 구성)
- 문화적 방향성에 대한 구상과 세계에 대한 비판성

이러한 발달 과제의 성취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성으로 드러난다. 위의 과정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은 주체적 세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신체는 물론 문화적, 물질적, 사회적 세상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획득한다. 이러한 발달에 대한 교육의 보편적 과제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식화되고 각각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BFSFJ, 2005a).

II. 청소년의 태도/행동양식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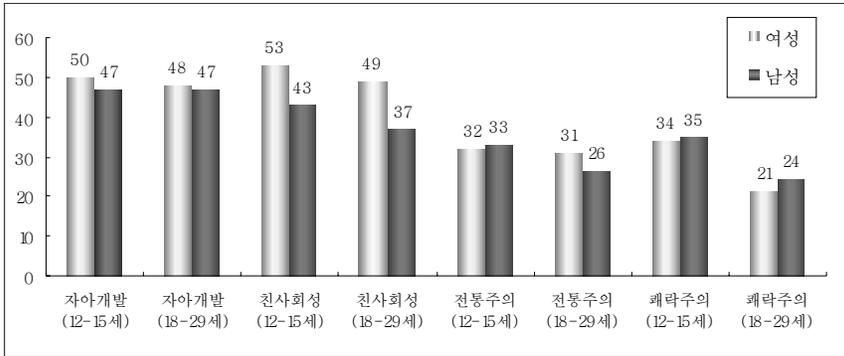
1. 가치체계
2. 생활양식과 태도
3. 일탈행위

II. 청소년의 태도/행동양식의 특징

1. 가치체계

독일 연방 정부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BMFSFJ)의 의뢰로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가 2003년 8월에서 2004년 1월 사이에 12세에서 29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설문지 조사는, 독일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Gille, Sardei-Biermann, Gaiser, & de Rijke, 2006). 이 조사는 12세에서 15세까지의 2,000명의 청소년과 16세에서 29세의 7,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현재 독일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아개발이나 비판력과 같은 가치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친사회적인 가치들, 즉 타인에 대한 배려나 책임감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순행, 명예욕 그리고 안정지향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흥미롭게 보내고 싶다는 쾌락주의적 가치가 뒤따랐다. 이러한 가치지향 성향은성별, 나이 그리고 교육수준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가치성향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점은 [그림 II-1]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소녀와 젊은 여성은 소년과 젊은 남성에 비해 친사회적 가치 지향 경향을 더 많이 보였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전형적인 남녀 역할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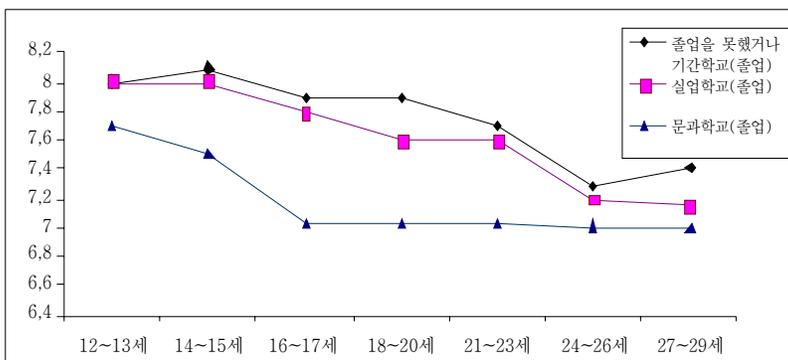
출처: Gille, Sardei-Biermann, Gaiser, & de Rijke (2006)

[그림 II-1]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가치선호도

소녀와 젊은 여성은 소년과 젊은 남성보다 책임감과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높은 수입에 대해서는 소년과 젊은 남성에 비해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그림 II-1] 참조).

또한 연령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의견과 행동 등이 나이가 어린 집단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를 더 해가는 반면, 쾌락주의적 가치는 그 반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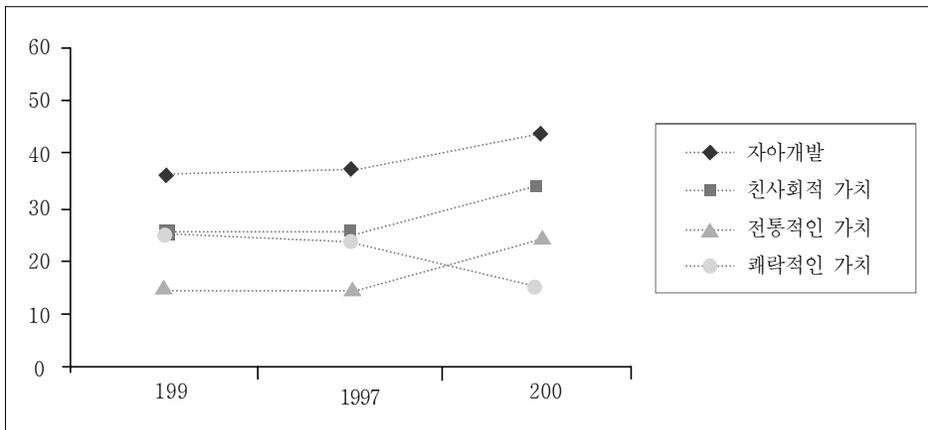
교육수준도 가치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실현과 비판력은 교육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그 의미가 강해지는 반면, 전통주의와 쾌락주의는 그 의미를 잃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쾌락주의 가치 선호도

이 이외에도 가족구성, 학생신분, 실업, 이주경험 등이 특정한 가치지향을 결정짓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타국에서 이주해 온 청소년들은 적응이나 안정성 지향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물질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16세에서 20세의 이주민 청소년들은 독일 자국민 청소년들보다 쾌락주의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였다. 지역적 요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동독에서는 특히 자아개발이나,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아주 선호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일정한 가치지향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친사회적 가치가 젊은 사람들에게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며, 자아개발과 전통적인 가치체계가 점점 선호되는 반면, 쾌락주의적인 가치는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3] 청소년의 가치변화(1992-2003년)

2. 생활양식과 태도

1) 청소년의 생활양식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장세대가 사회와 학습 장소에 깊이 관련되지만 이 시기에는 가족이 기본적 학습의 장이 된다. 즉 가족안에서 문

화적, 물질적 그리고 사회적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형성된다. 가족은 성장세대에게 그 가족과의 적응과정과 함께 가족상호교환에 따른 관계형성을 통해 사회경험의 세계를 여는 「게이트키퍼(문지기)」가 된다. 가족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교육의 근원으로서 아동이 학교에서 갖는 교육기회와 학교 외 교육에 대한 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BFSFJ, 2005a: 29). 독일에서는 가족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 학교교육의 경우를 보자, 대부분의 성장세대가 초등학교나 그와 비슷한 형태의 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동안에 1/5에서 1/2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외에서 학습을 받는다. 학교 외 학습장소를 유형별로 보면 학교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외 학습(공부방, 어학학원 등)의 장과 청소년연맹과 같은 것들이다(BFSFJ, 2005a: 30).

또 다른 학교 외 학습장소로는 경제성과 책임성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아르바이트를 들 수 있다(BFSFJ, 2005a: 30).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도 성장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장소는 바로 또래집단과 미디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는 그 영향력 안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가져 올 수 있는데, 대표적 예로 학교 음성 서클이나 폭력 서클 또는 인터넷 중독 등을 들 수 있다(BFSFJ, 2005a: 30).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교 안이나 학교외 학습 장소에 대한 영향력이 결정되어진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가족의 경제지표가 사회적 경제 지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또는 이주민가족인 경우 자녀들의 학교 내 학습기회 뿐만 아니라 학교외 학습 기회가 현격히 떨어진다(BFSFJ, 2005a: 30).

다방면의 과외 학습이나 활동은 학교외의 경험과 발달의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런 활동에 계층간 격차가 발생한다(BFSFJ, 2005a: 66-67).

2) 여가시간

10-14세의 청소년들은 주말에 약 6시간 정도, 15-19세의 청소년들은 주말에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이런 여가시간을 자기계발과 발달

에 쓰지 않으면 여가시간이 오히려 성장시간을 빼앗게 되는데 이러한 삶의 형태를 「아동기의 침식」 또는 「청소년기의 비표준화」라고 한다(Mierendorff/Olk 2002).

또한 기관에 의존하게 되면 아동의 「여가세계」는 가족의 삶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분리되어 교육기관에 의해 아동과 청소년기의 일상이 오히려 고립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BFSFJ, 2005a: 67-68). 최근 독일에서는 청소년의 여가시간과 가족간의 긴장관계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학교외의 교육활동은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 빈곤층이나 교육의 아웃사이더가 그러한 후원에 의한 기회를 갖지 못할 때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념에 어긋나게 된다(BFSFJ, 2005a).

3) 매체

상호작용하는 학교의 학습 자료로서 또는 여가활동으로서 매체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매체는 라디오, CD나 TV 또는 비디오, 핸드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은 기하급수적인 이용도를 보이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다양한 이용가능성은 보급을 가속화하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임이나 또는 혼자서도 동시 다발적이거나 또는 시간차를 둔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현실이 허구적인 매체 세계 안에 갇혀 그것들로부터의 학습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령별, 성별, 교육별 그리고 계층별로 유형화된 보완과 중재가 필요하다(Theunert/Eggert 2003; Otto u.a. 2003).

독일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가족의 일상 속에서 유아시기서부터 매체는 취학 전 아동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여가 시간의 1/4에 해당하는

하루평균 약 116분 정도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시청에 시간을 소비한다. 컴퓨터 게임은 약 36분, 독서를 위해서는 24분 정도, CD나 카세트테이프를 제외한 라디오를 위해서는 약 12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Cornelißen/ Blanke 2004b).

또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중 1/5은 종합 잡지나 연예 잡지 또는 무크지 등을 자신의 정보원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부모보다는 이러한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갈등문제를 접하고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Hajok, 2004).

삶과 발달 그리고 매체의 주제 사이에서 청소년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 게임이다. 예를 들면 소녀들과 여성적인 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십스」 라는 게임은 이 게임에선 일상의 생활 속에 가족과 배우자에 관한 상황과 형성이 테마인데(Schmidt, 2004; Wiemken, 2004; Fritz/Fehr 2003, 1997), 이런 컴퓨터 게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가족의 현실이 게임상의 허상으로 경험된다. 또한 남자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은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남성세계나 전략적 사고 시뮬레이션 또는 폭력적인 의협심을 발휘하거나 이와 비슷한 유형의 폭력을 즐길 수 있는 유형을 선호한다. (Ströter-Bender 1999). 소년들은 「아버지의 부재」에 대신하여 게임 안에서 아버지나 남성상을 찾기도 한다(Barthelmes/Sander 2001).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들의 공간적 사회적 환경 안에서 「탈가족 -모임」을 형성하여 집단의 행동이나 목적을 추구한다(극장, 디스코, 콘서트, 음반가게, 서점, 컴퓨터분야, 인터넷-카페 등 출입경험). 이러한 장소는 하교길이나 또는 방학에 주로 이용하는데 매체를 경험하거나 이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Barthelmes/Sander 2001, 1997; Valtin/Fatke 1997; Rinker/Schwarz ,1996).

정규적으로 참여하거나 서로 게임이나 채팅 또는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형식의 인터넷 대화와 게임을 랜패티스(local area network parties)라 한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팀 플레이나 파트너십 또는 자신의 고유 능력을 향상 시키거나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정신 등을 체험하기도 한다(Kraam , 2004: 16; Kraam, 2003).(BFSFJ, 2005a: 237).

또래집단의 형성은 이미 아동기에 시작된다.

6~10세 의 초등학교 아동인 경우, 두 가지 유형의 또래 집단이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쌍으로 엮어지는 또래집단으로 소년들의 1/3, 소녀들의 1/2이 이러한 유형의 또래집단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아동들은 이들 친구를 “최고의 친구”라 부른다. 그 외 소년의 1/4과 소녀의 1/5은 여러 명의 친구로 형성된 또래집단을 형성한다(Fölling-Albers/Hopf, 1995).

8~9세의 대부분의 아동들은 6명 정도의 동년배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그 중 4명 정도가 또래집단을 통해서 서로 좋은 우정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1/10의 아동들은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특히 빈곤층 소녀들은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데 1/4의 소녀들이 친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lt, 2005). 또한 10~13세 사이의 대부분(90%)은 동성의 “최고의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innecker/Silbereisen, 1996).

12~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서클활동에 참가하는데 이때는 친한 친구를 만드는 일은 드물지만, 동년배 소녀들이 16세까지의 소년들보다는 많으며, 소녀들은 전반적으로 무리가 큰 형태의 친구관계를 형성한다. 12~13세 소녀들의 경우 1/5이 드물게 친한 친구로 갖지만 12~13세의 90%의 소녀들이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DJI-Jugendsurvey, 2003).

청소년의 약 10%정도가 외톨이가 되며, 12~20세 사이의 청소년의 약 70%는 다양한 또래집단과 서클을 가지고 있다. 또래집단의 형성에 있어서 소녀들이 소년들에 비해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JI-Jugendsurvey, 2003; Gaiser u.a., 2005).

모임과 서클의 참가 유형은 청소년의 이민 배경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몇몇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inders 2004).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친구나 서클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서클참여는 이미 초등학교서부터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Krappmann/Oswald 1999; Rubin u.a. 1998; Hallinan 1980).

- 학교외 서클 활동에서도 사회적 배경과 친구의 선택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화적인 여가 활동을 하는 서클인 경우 중산층의 청소년이 다수인 것에 비해 폭력 음성 서클인 경우 하부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뛰어넘어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Schümer u.a., 2001; Eckert u.a., 2000; Bietau, 1989; Helsper, 1989).

상위 교육계층의 청소년들이 컴퓨터나 스노우보드같은 것들을 선호하는 반면에 사회적 하부 교육계층의 청소년들은 “출발” 테크노같은 것들을 선호한다. 각각의 청소년 문화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음악이나 스포츠, 매체 또는 사회갈등이나 정치적 갈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다(예를 들면 선택적인 현장과 같이 청소년 주체문화, 스킨헤드, 펑크 등) (Großegger/Heinzlmaier, 2002; Barthelmes, 1999a; SPoKK, 1997).

전통적인 이웃 간의 친구관계는 학교나 유치원 같은 학습의 장이나 방과 후 서클이나 학원 등에 밀려서 소원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서의 친구관계 역시 학교나 유치원, 학급의 중요성이 약해지면서 역시 소원해 지고 있다.

또래 집단에서 중요한 장소는 방과 후나 학교 외 서클이나 학원 등의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만남은 성장세대에게 폭 넓은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학습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auschenbach u.a., 2004: 217).

또래 집단 안에서의 우정관계는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거나 서로를 후원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형성한다(Reinders 2004; Krüger/Pfaff 2004; Fend 2001; Schröder 1995). 이러한 우정관계는 사회적 문화적 방향성과 그의 잠재성과 성별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화, 그리고 여가활용과 독립성과 정체성 교육 등의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임이나 서클 활동에서의 청소년들의 동기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데, 소녀들의 경우 소년들에 비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또래 집단을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녀들의 주요 관심사는 패션, 학습문제, 관계 문제, 또는 친구와의 갈등 등이고, 소녀들의 경우 부모나 가족보다 친구를 상담대상으로 하는 경향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BFSFJ, 2005a: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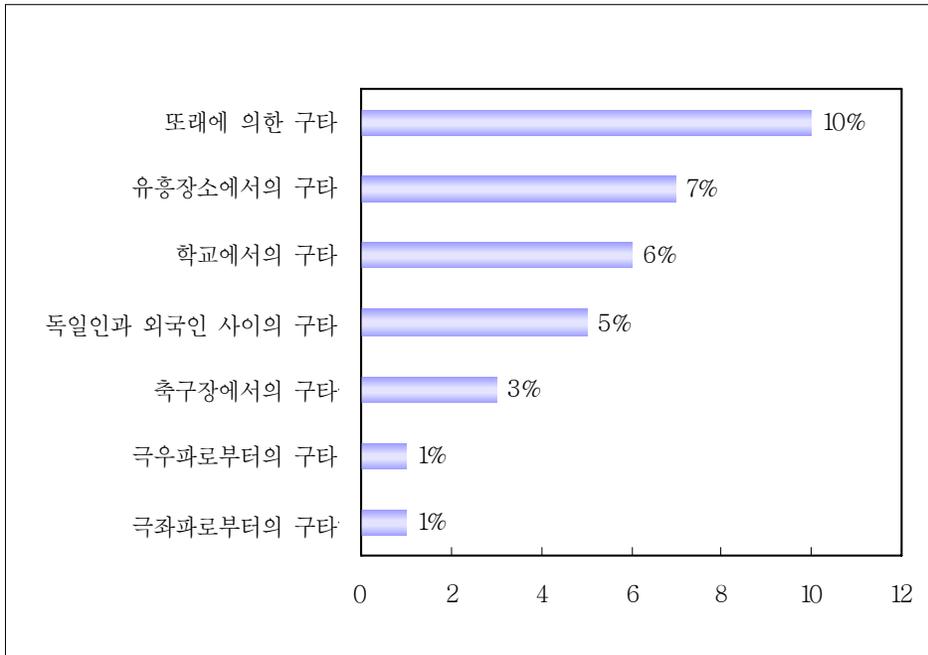
청소년의 걱정이나 불안은 서클이나 또래 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심화되어 나타나는데, 이 경우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자기능력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므로 제대로 된 자기실현을 구현하기 어렵다(Roppelt, 2003; Stecher, 2001; Valtin/Fatke, 1997; Rinker/Schwarz, 1996; Zinnecker/Silbereisen, 1996).

이러한 현상은 이민 청소년인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언어소통의 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자신이 속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12~15세 사이의 청소년의 경우 약 80~90%가 또래집단이나 친구사이에서 독일어를 주로 쓰는데, 이민 청소년인 경우에 독일어를 능동적으로 쓰는 청소년들은 심리적 문제가 적고 자국어에 고집하며, 독일어를 수동적으로 접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진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문화의 언어를 능동적으로 배우고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국민과의 교류에 활발히 참여 하는 것은 이민 청소년들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Roppelt 2003).

12~15세 청소년의 14%만이 외국어를 할 줄 모르며,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외국어 능력이 보편적으로 더 뛰어나다. 또한 이민 청소년과 어울리는 각 나라의 청소년인 경우 국내 청소년과의 접촉만 하는 청소년인 경우보다 외국어와 문화에 대한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또한 세계관에 대해서도 보다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JI-Jugendsurvey, 2003). 또한 이민 청소년과 접촉하거나 사귀고 있는 청소년은 독선적이지 않고 모임이나 서클 안에서도 구성원간의 이해나 융화 등에 있어서도 다른 청소년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Dannenbeck u.a. 1999).

지금까지 또래집단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살펴보았지만 모임이나 서클 등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력을 가져 올 수도 있다. 또래집단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8~10세 아이들 중 1/5은 오히려 이러한 또래 집단 안에서

외로움과 사교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oppelt, 2003: 411). 1/10의 청소년들이 집단으로부터의 공격이나 폭력의 희생이 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림 II-4]는 폭력경험을 한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출처 : 쉐 청소년연구 2006-TNS 복지연구 사회연구

[그림 II-4] 청소년이 경험한 폭력의 종류(12-25세)

또래집단 안에서의 거부는 사회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학습과 그와 연관된(사회적, 언어-문화적 또한 개인적) 잠재적 학습을 방해한다. 특히 빈곤층이거나 망명자 가족의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만남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기 힘든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또래와의 만남이 결핍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파산한 집안의 청소년들의 경우이다(Chassé u.a. 2003; Holzapfel 1999; Büchner 1998; Klocke 1996).

4) 기타 교육 장소

수면, 신체관리, 식사시간과 숙제나 학교 교육시간을 제외하고 14~18세의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6시간 30분 정도의 자유시간이 있다. 주말에는 이러한 여가시간이 남자청소년은 약 9시간, 여자청소년은 약 8시간으로 늘어나 자율적으로 학습할 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Cornelißen/Blanke 2004a: 2).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방과후 또는 학교외 시간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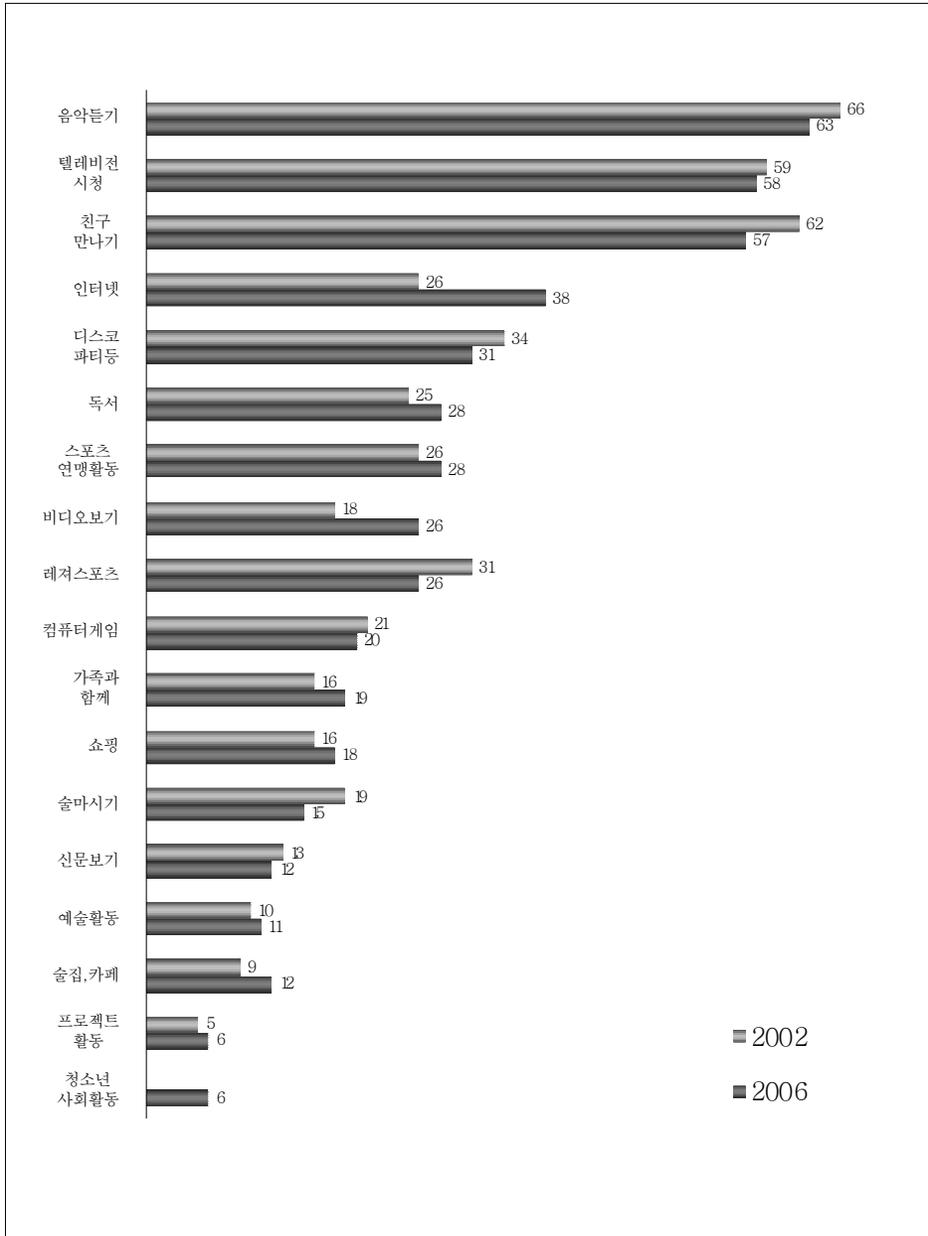
- 연맹과 조직 안에서의 활동(예를 들면, 청소년아르바이트)
- 상업적인 학원 등에서의 활동(예: 과외, 음악학원, 언어학원 등)
- 문화적 성격을 강하게 띤 교육과 경험 장소에서의 활동(예: 도서관, 어린이극장, 박물관, 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등)

이러한 활동의 공통점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선호도나 흥미와는 별개로 조직된 활동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방과후 교육 활동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다(Fend u.a. 2004).

(1) 연맹이나 조직 안에서의 교육과정

독일의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두 가지 유형의 활동성이 이루어진다. 하나는 스스로 조직한 활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연맹이 교육적으로 조직한 활동이다(예를 들면, 스포츠연맹, 정치적인 청소년연맹, 교회 청소년연맹 등). 서독에서는 아동들이 연맹이나 기관에 의존하는 현상이 오래되었다(Fuhs, 1996; Zeiher/Zeiher,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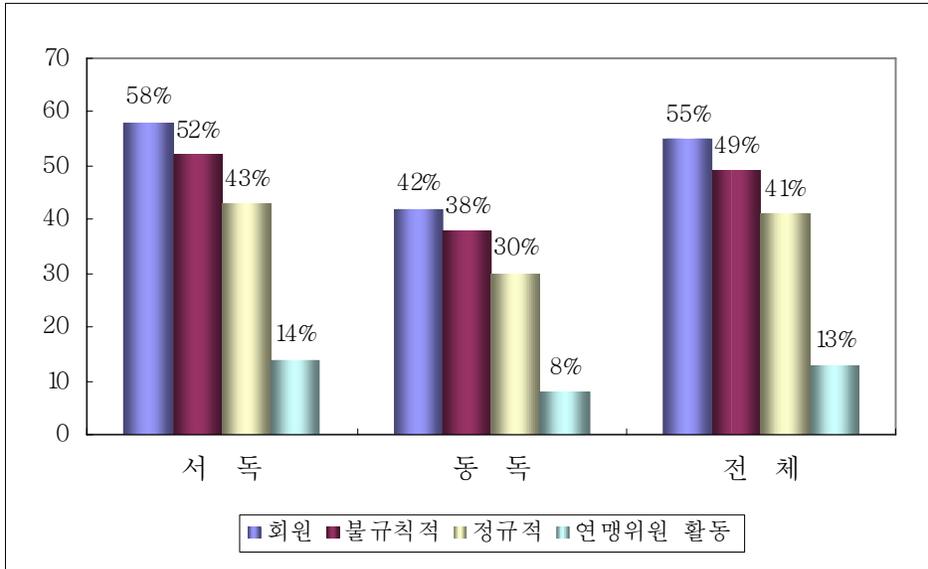
[그림 II-5]는 청소년들의 연맹 활동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주 : 5가지 중복선택(%)

출처 : 쉐일 청소년연구 2006-TNS 복지테스트 사회연구

[그림 II-5] 평일 여가활동 내용(12-25세)



출처: 독일의 청소년과 젊은 세대(Martina gille/ sabine S-B/wolfgang G.: 231)

[그림 II-6] 청년 연맹 활동 참여도

DJI-jugendsurvey에 의하면 12~15세사이의 청소년들은 서독에선 75% , 동독에서는 59%가 연맹에 소속되어 있다. 소년들은 주로 스포츠연맹, 소녀들은 교회연맹이 그 주류를 이룬다. 스포츠연맹은 가장 성공한 아동과 청소년 조직이다(Rittner 2004).

여러 사회계층의 청소년들이 스포츠 연맹 안에서 그들의 문화를 만든다. 이는 스포츠라는 개념이 “다양한 육체적 활동을 주제로 하며 육체적 활동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선호되는 것이다(Rittner, 2004:559; ferner: Schmidt u.a., 2003; Büchner/Fuhs, 1998).

12~15세 청소년 중 10%정도가 정치적 성향을 띤 모임에 참여하는데, 예를 들면 환경보호단체, 평화단체, 3세계모임, 인권권리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치적 모임을 주관하는 청소년(12~15세)들의 활동상황을 보면, 기부 45%, 서명운동 44%, 시위 19%, 학교 동참위원회 결성 17%, 편지호소문 7%, 정치가에게 편지쓰기 4%, 정당의 청소년 조직참여 2% 등이

다(DJI-Jugendsurvey).

종교활동 참여도 청소년들의 주된 활동 중의 하나이다. 종교 활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스포츠 관련활동이 소년들 종교적인 활동은 주로 소녀들의 몫이다(Fischer 2000; Strozda/Zinnecker 1996).

사회계층에 따라 연맹이나 사회활동참여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층의 청소년들 중 50%이상이 이런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상층 가족의 청소년들 중 약 22%가 연맹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5% 이상의 중상층 가족의 청소년들은 3~4개 이상의 연맹이나 사회활동연맹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uhs, 1996).

이러한 사회활동이나 연맹에 참여하는 동기로는 「사회적 참여와 수용에 대한 추구」(Bruner/Dannenbeck, 2002; Reichwein/Freund, 1992), 「연맹이나 사회활동을 통한 미래 직업적 캐리어에 대한 준비와 그것의 긍정적 영향의 증대」(Schulze-Krüdener, 1999; Reichwein/Freund, 1992), 「또래 집단에서의 공동작업에 대한 욕구」(Schulze-Krüdener 1999)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회활동이나 연맹 활동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만, 반면에 그와 같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중에는 취업이나 사회활동을 할 때 그 경력과 경험을 이용할 수 있다(Picot 2001). 이와 같은 활동은 사회적 책임의식, 자율성, 독립성을 갖게 하고 성취도를 높여준다(Bruner/Dannenbeck, 2002). 예를 들어, 동독 지역에서의 환경 보전을 위한 청소년 활동을 들 수 있는데 동독의 청소년 환경 보전 활동은 동독 청소년들에게 자발적 사회참여(Fischer, 2001)라는 민주주의적 의식을 고양시켰으며 그동안 사회주의 안에서 등한시 되어왔던 자발성을 유발시켜 청소년 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경험적으로 14~21세 사이의 38%가 자발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30%가 주당 6시간 정도를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37%가 주당 약 3~5시간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FSFJ, 2005a: 220-2).

한편 독일에서는 다른 종류의 상업적인 학습과 경험의 장이 활성화되었

다. 새로운 교육적 사고와 가능성을 여가활동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놀이 동산이나 야외학습장이 그것인데 기존의 학습시설은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Lüders u.a., 2004; Grunert/Krüger, 2004).

독일에만 연간 십만명 이상의 입장객이 쇠도하는 약 220개의 놀이 동산과 야외학습장이 있다. 한 공원은 1999년에 약 224십만의 가족이 방문했다(Nahrstedt u.a., 2002; Opaschowski, 2000).

정보화 교육의 장소로는 야외학습장을 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과 과학 그리고 기술, 또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체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나 기구가 얼마나 성장세대에게 장점이 있는지는 아직 그 대답하기에 이르다(BFSFJ, 2005a: 226-7).

독일에서도 음악이나 미술에 관련되는 교과목은 학생들로부터 등한시되는 과목이다. ‘음악, 미술, 문학, 시, 연극’ 이런 과목들은 중요하게 생각도 않는 과목들이다(Edelstein 2004: 30). 학교에 등한시되므로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과목에 해당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며 교육 또한 편협하게 이루어지게 된다(Singer, 2003, 2004).

청소년들이 한 두 번은 문화예술에 관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문화 행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한 관심 속에서 85%이상의 청소년들이 최소한 연극이나 극장, 또는 음악회나 콘서트 등을 가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연구센터, 2004a).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1위가 여러 나라의 고유한 민족문화라 하였고(37%), 2위로 연극(32%) 3위가 음악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 본인들이 지극히 좋아하는 영화는 소수만이 문화라고 답했고, 문학 또한 문화라고 하는 청소년은 그 수가 아주 소수였다. 그 반면 청소년들이 강한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예술전람회나 디자인 같은 것이었다(문화연구센터 2004a; 독일 연방 교육연구처[BMBF] 2004b).

이러한 문화에 대한 성향이나 흥미는 가족 안에서 시작한다. 부모가 문화예술에 대한 진입로가 된다. 즉 부모가 문화예술적인 소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부모를 둔 청소년들은 학교시절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문화적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문화적 관심이 전혀 없는 부모를 둔 청소년인 경우 예술에 대한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화예술에 관한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은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문화예술에 관한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직업학교에 많고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많은 것이 현실이다(문화연구센터, 2004a, 2004b).

독일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문화활동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학원이나 연맹 등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방과후나 학교외의 시간에 집이나 집에서 가까운 놀이터나 공공시설 또는 차가 다니는 위험한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의 약 1/3이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지낸다. 주거 환경이 작거나 시설이 좋지 않은 경우에 아이들은 집에 있기 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집 주변에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찾거나 그런 장소조차 없는 경우 차량통행이 많은 길거리에서 놀이 장소를 찾는다. 나머지 1/3은 위의 아이들과는 반대로 아주 좋은 주거환경에서 사는데 시간은 주로 집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낸다. 집에서는 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또는 혼자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 중 반이 넘게 음악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녀들의 경우 화장을 하거나 옷을 고르는 등의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소년들에 비해서 자유시간이 상대적으로 약 30분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ornelißen/Blanke, 2004b; Preiß, 2004; Fuhs1996; Zinnecker/Silbereisen, 1999).

10~12세의 아이들은 집 밖에서 놀기를 좋아한다. 집 밖에서의 놀이로 스포츠를 하거나 들에서 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또는 동네를 돌아다닌다. 소년들이 소녀들에 비해서 실외 놀이를 더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Expertise Grunert; Fuhs, 2002; Wilk/Bacher, 1995; Fölling-Albers, 1995; Fuhs, 1996; Deutsches Jugendinstitut, 1992).

10~15세의 청소년은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하는 등의 문화적 활동은 겨우 10-20% 이하의 학생들이 하는 반면에 50%가 넘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스

포즈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다른 사회계층 아이들보다 눈에 띄게 독서나 예술적·미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rozda/Zinnecker, 1996; Büchner 1996; Bonfadelli, 1996).

이는 독일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다른 종류의 학교, 예를 들면 직업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방과후나 학교외의 시간에 미적·문화적 활동을 하거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에 관한 활동도 활발하며, 많은 중산층이상의 부모들이 유아때부터 음악학습을 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Preiß, 2004; Müller, 1990).

소년과 소녀를 비교하여 볼 때 소년들은 기술이나 스포츠에 강한 선호도를 보이는 반면, 소녀들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이나 대화, 친구방문, 전화대화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nelißen/Blanke 2004b; Krüger/Kötters 1998; Fuhs 1996; Strozda/Zinnecker 1996).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은 아이들이 자유나 여가시간에 경험이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풍요롭게 이용하는 제약을 느끼게 된다. 여행이나 소풍 또는 자전거 여행 등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의 비율을 보면, 경제적인 부유층 아이들은 8명 중 1명인 빈곤층 아이들은 4명 중 1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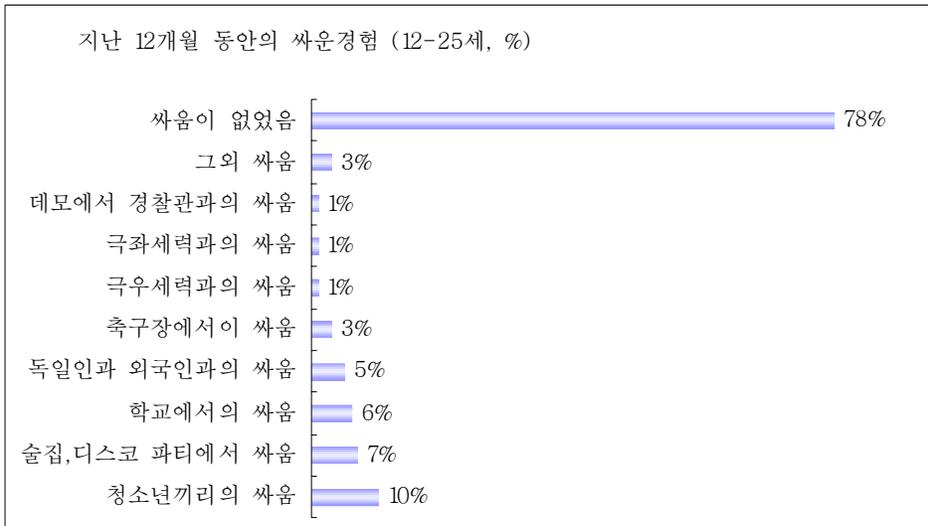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계층에 따라 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일탈행위

90년대 이후 독일의 범죄 혐의자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젊은 성년의 수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한 해 동안 14~21세의 청소년이 범죄 혐의를 받는 비율은 같은 나이의 전체 청소년수에 비해 상승하고 있다. 신체상

해 의혹의 경우, 1990년 0.6%이던 것이 2004년에는 1.7%까지 상승하였다 (Bundeskriminalamt [독일 연방 범죄 수사국], 2005).

2006년 쉘 청소년 설문 조사(Shell Jugendstudie, 2006)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나 폭력을 경험했는지 조사했다. 전체 청소년의 22%가 지난 동안 싸움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그림 II-7).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싸움은 청소년들 사이의 싸움이었는데, 이는 전체 대답의 10%를 차지하였고, 술집이나 디스코 파티 등에서 있었던 싸움은 7% 등이었다.



출처: Gille, Sardei-Biermann, Gaiser, & de Rijke (2006)

[그림 II-7] 지난 1년 동안 싸운 경험(12-25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은 29%로 여자 청소년들의 14% 비해 현저하게 많이 싸움을 했다. 지역적인 차이를 보면 흥미롭게도 구동독에서 16%로 구서독의 23%에 비해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학교유형이나 또는 사회 신분에 따라서도 싸움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기간학교 청소년들이 가장 빈번히 싸움을 경험했고, 학교를 중퇴하거나 하는 불충분한 교육으로 인해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청소년

년들에게서도 싸움이 잦은 경향을 보였다.

잦은 싸움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났는데, 자신의 국적이나 나이 때문에 종종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끼는 청소년들, 물질적인 기본가치지향성을 가진 청소년들, 주당 알콜 섭취량이 많은 청소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싸움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싸움의 관계이다. 싸움을 많이 하는 청소년의 부모는 권위적인 양육방식으로 그들의 자녀를 대하고 있었고, 싸움을 많이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공동적인 양육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모임이나 서클의 활동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으며 심지어 위험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8~10세 사이의 25%의 아이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사회적 접촉에 문제를 느끼고 있다(Roppelt, 2003: 411). 다른 이로부터의 거부가 인간관계 안에서 실망감을 줄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전체 청소년의 20%가 그들이 속한 모임 안에서 공격성과 낙인찍히는(왕따 당하는)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oppelt 2003BFSFJ, 2005a: 303)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폭력서클이나 음성서클의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문화적인 성향을 가진 건전서클의 구성원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BFSFJ, 2005a: 218).

Ⅲ. 사회화과정의 사회적 배경

1. 가족의 변화
2. 계급, 학교, 복지체계와 관련이슈들
3. 청소년 인구 : 성, 인종 그리고 결혼

Ⅲ. 사회화과정의 사회적 배경

1. 가족의 변화

1)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의 변화는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겪고 있는 주요한 사회변화 중의 하나이다. 수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삶의 스타일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황변화에 대처할 전략이 필요해졌다(BFSFJ, 2005b: 3-4).

70년대까지는 기존의 가족 구조가 지배적이었다. 즉, 부양자, 양육자로서 직장생활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와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는 엄마, 그리고 정규 학교에 다니는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가족내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이 명확히 구분되었고 사회구조적으로 이러한 역할분담의 벽을 넘어서는 경우 관습과 통념에 따라 제재가 가해졌다. 그러나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여성의 고학력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의 모습은 시작하였다.

이른바 ‘양육자모델’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가족의 모습과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 형태가 지난 이 십년 동안 크게 변질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고학력 여성들의 직업세계 진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수 십년간 급증한 이혼률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기존의 가족의 모습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길 수 없게 되었다(BFSFJ, 2005a: 45).

독일사회는 오랜 동안 가족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 가족의 모습은 크게 변화였고, 이러한 변화는 통독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증거가 있다. 1970년 이후 최소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수가 약 1/3이 줄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성인인 10%이상 증가하였다. 핵가족화에 따라 1세대 1가구가 40%에서 90%로 증가했다. 핵가족화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지난 10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였다(BFSFJ, 2005a: 21).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과 양육자 모습의 의미상실을 가져왔다. 1970년도에 편모나 편부의 수가 서독 전체 부모 중 9%이하였으나, 통독 후 2004년도에는 독일 전체 부모 중 20%를 차지하였다. 성장세대에게 가족의 의미는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역할 분담을 가족의 모습은 더 이상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BFSFJ, 2005a: 46).

가족의 변화와 긴장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개별적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간의 부조화는 배우자에 대한 관점과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한 가족을 이루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의 부조화는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수명의 연장도 중요한 변화다. 그만큼 각각의 인생의 시기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도,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하는 시기도, 퇴직한 이후의 시간도 끊어졌다.

교육받는 시기가 늘어난 반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시간은 반대로 줄어들었다. 퇴직자 또는 연금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황혼기도 놀라울 만큼 늘어났다(BFSFJ, 2005b: 116-117).

2) 현대 가족의 분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가족사회학자 레네 쾨니히(1974a)는 현대 가족의 분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20~30년대에 레네 쾨니히는 다른 가족사회학 연구자들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에 관해 연구하였다. 당시에 가족은 현대사회의 가족관계로 변화 중이었다. 부모들이 자녀보육에 관심을 쏟으면서 이웃이나 친척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현대가족의 분해라고 표현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건설업이 흥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도심 속의 경제활동과 위성도시에서의 삶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뉴욕의 레밋타운이나 베를린의 마르찬 같은 곳이 나타났다. 쾨니히는 이러한 가족의 분해를 문제로 지적했다. 가족 관계가 탈조직화되고 이와 함께 가족의 붕괴가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가족이 말뿐인 가족으로서 가족 안에서의 관계 가족구성원들의 관계형성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60년대 후반의 가족의 삶에 대해 연구한 쿨레만(1986)은 이러한 상황을 후기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의 문제로 보았다. 쿨레만은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이웃과의 접촉 없이 가족 안에서의 규칙만으로사는 가족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탈조직화의 문제는 가족구성원이 사회구조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성향, 사랑 그리고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켜 안정적이고 만족할 만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자녀양육, 노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세대 간의 이해 도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후기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형식의 삶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했다. 확실하고 고정된 주변과의 연계성이나 소속성 없이 사는 ‘이동하는 싱글’(Münch 1993; Sennett 1996)이 생겨났다. 오히려 누군가가 주변과 확실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경우, 구식으로 취급되거나 후기산업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했다(BFSFJ, 2005b: 16-17).

3) 사회계층과 가족문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부모의 수입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수준도 달라진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와 편모나 편부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며 또한 자녀의 수나 아니라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동일 수입 안에서 경제지표는 나쁘게 나타난다(Grabka/Krause, 2005: 4).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양부모 가족보다 편모나 편부가족의 수입상황이 더 불안정하게 나타난다. 편모나 편부가족의 평균수입은 양부모가족의 7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Grabka/Krause, 2005: 3).

어린 자녀를 둔 경우도 편부나 편모인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편모

나 편부가 어린자녀를 둔 경우 가장 안 좋은 수입상황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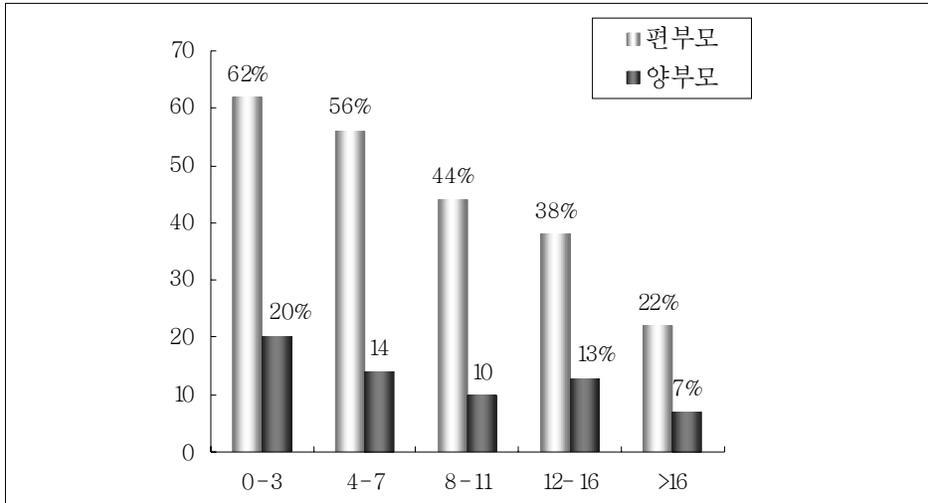
<표 III-1> 자녀의 연령에 따른 가족의 수입(2003)

가족유형	수입에 따른 상대적인 계층위치(%)
양부모 가족	
자녀의 연령	
0-3세	84
4-7세	100
8-11세	102
12-16세	94
16세 이상	114
편부모 가족	
자녀의 연령	
0-3세	50
4-7세	54
8-11세	69
12-16세	67
16세 이상	58
독일의 1인당 수입 평균에 의존하여 작성	

출처: Grabka/Krause(2005); SOEP(2000)

이와 같은 통계는 편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빈곤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3년 빈곤률 조사에 따르면 전체 빈곤률은 약 16%였고, 그중 양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인 반면 편부모 가족은 약 40%에 달했다(Grabka/Kraus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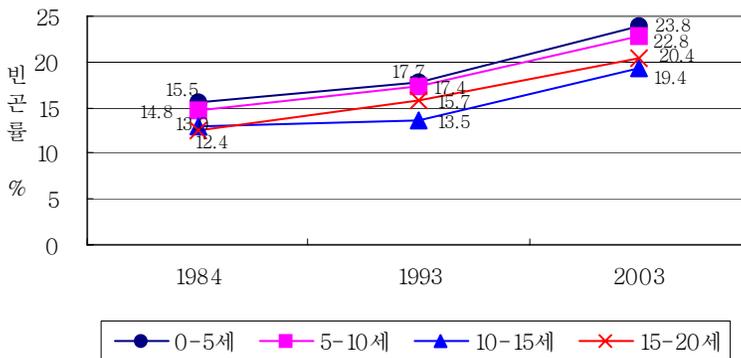
편모가 4살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빈곤률은 62%에 달했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비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16세까지는 평균 빈곤비율을 훨씬 넘어섰다. 또한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자녀가 적거나 없는 경우보다 빈곤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Corak u.a., 2005: 9).



출처: Grabka/Krause (2005), Datenbasis: SOEP 2003

[그림 III-3] 편부모와 양친부모의 빈곤률(2003)

아동과 청소년의 빈곤상황은 1990년부터 줄곧 상승해 왔다(Corak u.a., 2005). 특별히 5세 이하인 경우 심각하게 나타났다(비교: 그림 III-3). 이러한 지표를 나타내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편부모 가족인 경우가 반 이상이었고 양부모 가족인 경우는 1/3도 되지 않았다(건강과 사회복지장관부 [BMGS], 2005: 76-7).



출처: Grabka/Krause 2005, Datenbasis: SOEP 2003

[그림 III-4] 20세 이하 빈곤률 추이 (1984-2003)

통독이후 빈곤률은 통독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rak u.a., 2005; Noll/Weick, 2005: 4; Engstler/Menning, 2003: 154-5).

2002년 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3이상인 경우, 독일전체 평균이 29%인 것에 비해 40%나 되었고, 편부모슬하의 2자녀인 경우 독일전체 평균이 59%에 비해 64%로 높은 빈곤률을 보였다. 10세 이하인 경우 독일 전체평균에 비해 8% 높은 빈곤률을 보였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4a: 632-3).

대부분 거의 모든 ‘빈곤의 시기’는 3년 정도이다. 1998-2003년의 SOEP 자료 분석에 따르면 상대적인 수입의 빈곤은 3년 안에 극복되는데 평균 빈곤률에 해당되는 가족의 반 이상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Biewen, 2003: 7).

그러나 빈곤을 극복한 가정 중 반 이상이 4년 안에 다시 빈곤층이 된다. 동독 지역에서의 이런 위험성은 서독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 전체 가족 중 58%가 3년 후에 83%가 5년 안에 다시 빈곤층이 된다(Corak u.a., 2005: 16-18) 빈곤의 위험에 놓인 성인은 교육수준이 낮고 자녀도 셋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특징은 별거, 이혼, 실업, 무직 등이다(독일연방 사회보장장과 보건복지부[BMGS], 2005: 25).

가족의 경제적인 직위는 부모의 경제활동 능력에 달려 있다. 가족의 빈곤률은 평균적으로 약 80%인데 그중 자녀가 8세 이하이고 부모가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는 95%를 넘었다(Grabka/Krause 2005, Tab. 2).

자녀교육의 위험성이 증대되자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주로 도시에서 일어난다. 도시에서의 삶의 형태가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한편, 출산에 대해서는 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에서의 삶보다는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높은 질의 교육의 기회를 꿈꾸며 도시로 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고학력의 여성들이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사이의 불평등 문제가 불임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BFSFJ, 2005b: 308-310).

4) 성불평등관

고학력 여성의 일과 가사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BFSFJ, 20056: 21-2).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불임률을 비교해 보면, 40~44세의 대졸자의 불임률이 주에서는 27%이고 동독의 경우 13%에 불과했지만, 대도시인 함부르크의 경우는 43%에 달했다.

<표 III-2> 무자녀 고학력 여성 비율(40~44세)

	독일	서독 지역	동독 지역	함부르크 베를린		노드라인 베스트 팔렌주	바덴-뷔템 부르크
직업학교졸	24%	24%	27%	31%	33%	27%	18%
중등수준	22%	24%	18%	35%	31%	24%	19%
대졸수준	28%	30%	13%	42%	36%	31%	28%
전물졸	29%	33%	135	43%	36%	35%	29%

출처 : 독일 통계청(2003).

이러한 낮은 경제지표와 낮은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복사에 대한 두려움은 도시로 향하게 하고, 이러한 ‘도시화’ 노동인력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불임률이 계속 높아진다면 향후 30년 안에 노동인력은 반 이상으로 줄며, 반 이상의 독일인이 자녀 없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층복사와 높은 불임율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도시에서의 가족중심적인 집이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주는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을 위한 재교육 시설, 저소득층의 자녀를 위한 무료 또는 저가이면서 높은 수준의 문화교육과 학습시설 확충의 노력이 필요하다(BFSFJ, 2005b).

또한 교통량이 많은 도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도시의 삶은 또 다른 위험요소를 내포한다. 도시에서의 높은 범죄율과 익명성 등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해 시와 시민사이의 자율적 단체가 위험도를 줄여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주거단지

내의 주민들의 자율적 방법이나 또는 교통통제, 시가 시행하는 학교와 주거 단지 내에서의 교통량 통제와 특별 순찰 등이 있다(BFSFJ, 2005a: 86/88).

2. 계급, 학교, 복지체계와 관련이슈들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에서의 유연성과 유동성이 증가하고, 부모 모두가 직업을 갖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그런 시간들을 계획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가족이외의 나이에 맞는 교육기관이나 청소년 일상생활에서의 교육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나이에 걸맞은 적응과 학습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하게 한다. 학교 교육과 관련된 12세에서 25세사이의 청소년의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을 가능한 한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다. 직업교육이나 대학교 졸업 후 관심은 혹 청소년 자신이 받은 교육에 적합한 직업을 찾게 되느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과학교를 가게 되느냐, 직업학교를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진로와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학업의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게 되는가는 부모의 학력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Shell Jugendstudie, 2006).

1) 양극화 현상

독일의 사회 복지체계는 양극화현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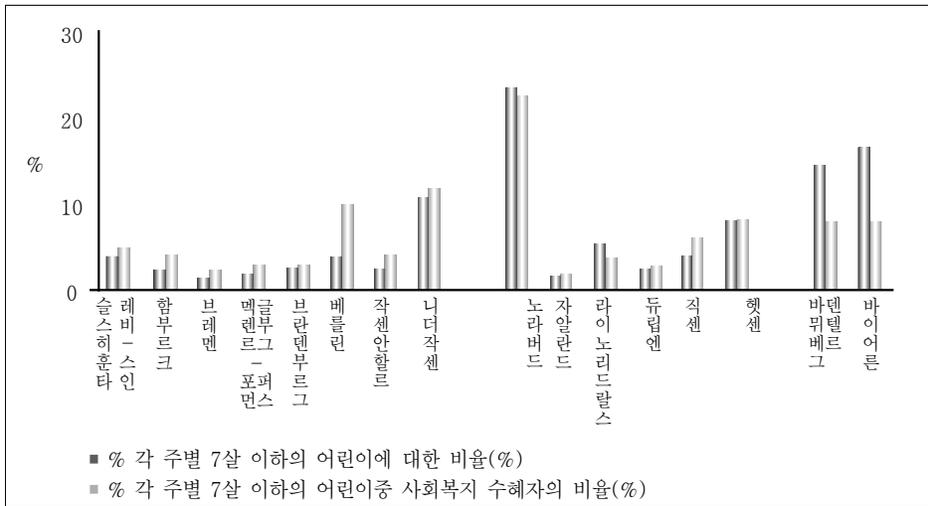
첫 번째 도시의 인구밀집도가 높은 전통적인 모습의(외국인이 다수) 가족이 있다면, 반대로 도시인근의 가족친화적인 환경에서 가족이 있다.

두 번째는 도시 내의 양극화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 다른 삶을 사는 가족의 형태가 있다.

편부모 가족은 도시에서 사는 비중이 높는데 편부모의 아이들은 사회복지

의 수혜자인 경우가 많다. 동독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양부모의 수입원으로 부터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삶의 형태와 경제적인 조건이 더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의 표를 보면 독일에서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어린이가 지난 7년 동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DJI-지역자료은행, 사회복지통계자료.

[그림 III-5] 지역별 복지혜택 수혜 아동의 비율

대도시 밀집지역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편모인 경우, 국가의 양육 보조비에 양육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가정 등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가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Leibfried u.a., 1995; Rainwater/Smeeding, 2003; Corak/Fertig/ Tamm, 2005).

반면 바이에른 같이 부유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2003년 조사에 의하면 세 살 이하의 아동 중 독일 전체 사회복지 수혜자가 7%인 반면, 바이에른 주는 4%에 불과했다. 대도시인 뉴른 베르그의 경우 바이에른 주의 7살 이하의 전체 아동 중에서 6%만 살고 있지만, 7살 이하의 사회복지혜택의 수혜자는 14%나 된다. 뉴른 베르그에는 편부모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대도시

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표 III-3> 7세 이하 아동의 사회복지 수혜 현황(2002).

도시/지역 (크라이스)	사회복지 수혜를 받는 7세이하의 어린리 비율	도시/지역 (크라이스)	사회복지 수혜를 받는 7세이하의 어린리 비율
함부르그	2.6	프랑크푸르트	2.2
브레멘	3.6		
베를린	3.9	크라이스 폴다	0.8
		크라이스 라이스펠트- 로템베르그	1.1
에센	3.0	슈벨름-에버-크라이 스	1.3
뒤스부르그	2.0	베르나-마이센너- 크라이스	1.4
퀵른	1.9		
		뉘른 베르그	2.4
레버쿠젠	0.7		
오버베르기체 크라이스	0.7	크라이스 알라쉬-프리드베리	0.2
라인니체 베르기체 크라이스	0.5	크라이스 아우스부르그	0.3
		크라이스 딜리겐도나우	0.5
크라이스 호호사우어란트	0.6	크라이스 도나우-블레스	0.3
크라이스 쏘엣트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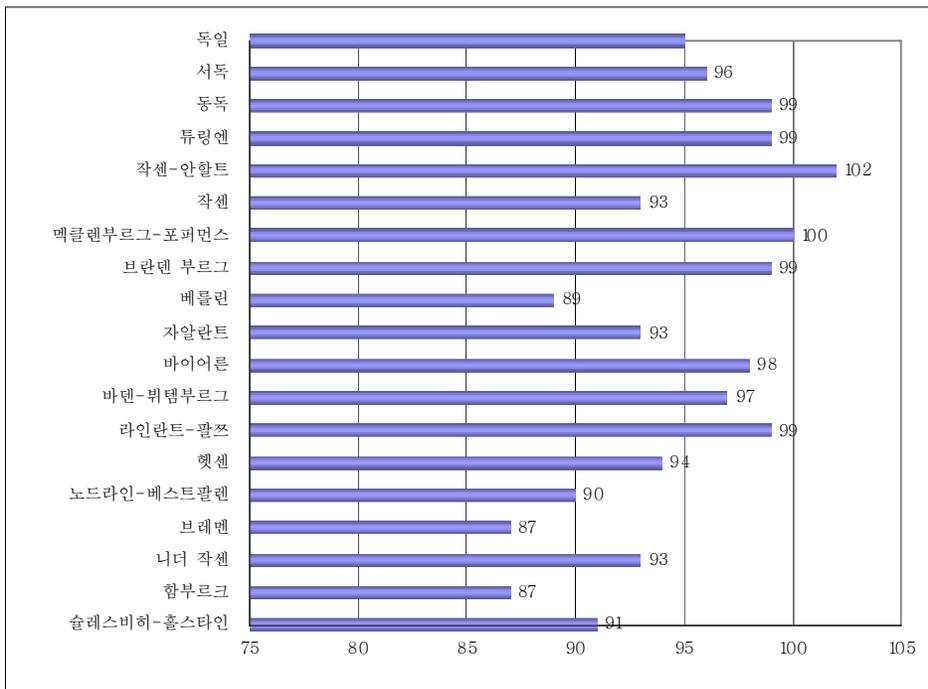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자료에 근거한 DJI 지역자료은행

7세 이하 아동 사회복지 수혜가 높은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와 삶의 형태나 가족의 형태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베를린 같은 대도시에서의 편부모의 수는 독일의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많다.

사회복지 의존도는 베를린이 29%에 비해 뒤스부르크는 13%에 불과 했다. 브레멘 등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브레멘의 경우 7세까지의 사회복지의존도

가 뒤스부르크보다 10%나 더 높게 나타났다. 그 것은 뒤스부르크보다 브레멘에 편부모의 수가 두 배가 더 높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배우자가 양육자를 보조하며 후원하는 즉, 아버지(어머니)가 고정된 직장을 가지고 어머니(아버지)가 이를 보조하는 형식의 가족의 모습을 지닌 지역에서는 사회복지혜택의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반대로 양육자가 실업이거나 양육자가 한사람인 경우, 즉 아버지나 어머니가 실업이거나, 편부모인 경우 사회복지혜택의 의존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주로 외국인 가정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외국인인 경우 좋은 조건의 직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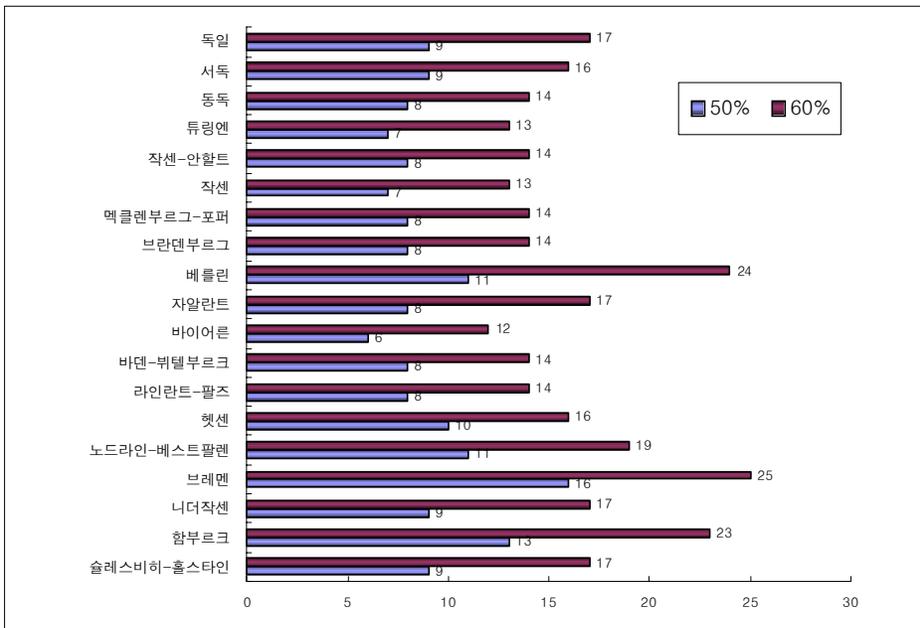
출처 : 베르트-에겐(2003, 독일과 각 주별의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 슈트트 가르트 독일연방정부의 가족보고서(%))

[그림 III-6] 독일 아동의 복지 비율(2003)

동독의 아동들을 위한 경제적인 상황은 쉘레스비히-홀스타인, 니더작센, 헤센 그리고 자알란트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좋았다. 동독지역의 가족의 수입수준은 독일 평균에 해당되며, 남부 독일의 라인란드-팔츠, 바덴-뷔어템부르크와 바이어른도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하나는 경제적인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주에 따라 다수의 삶의 형태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동독지역에서의 가족의 수입은 다른 주에 비해 평균 수준이지만 아이들의 복지정도는 가장 높다. 가족의 형태가 맞벌이 형태로서 자녀에게 있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산업사회의 가족의 형태가 한 사람의 수입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출처 : 베르트 에겐(2003), 독일과 각주별 가족의 경제상황; 슈트트가르트 독일 연방정부 가족보고서

[그림 III-7] 저소득층 아동의 비율(2003)

2) 학교와 청소년복지의 협동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을 성공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복지와 학교는 근본적으로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 이 두 기관사이의 협동은 중일반 학교와 다양한 학습과정을 제공하며 방과 후까지도 운영되는 학교의 개선과 건립은 교육정치적인 범례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 같은 협동작업을 ‘전일반 학교 계획’이라고 한다. 질적인 수준의 발달을 위한 양적 개선은 학교와 아동과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일치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다(BFSFJ, 2005a).

(2) 협동의 어려움

학교와 청소년복지는 서로 제공하는 교육이 다르고 교육운영의 형태도 다르다. 청소년복지 안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호르트와 학교연관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밖에 다양한 공공의 교육이 제공되지만, 협동조직에 대한 요구도 많다.

아동과 청소년아르바이트에서 ‘교육’은 언제나 인격형성교육과 ‘적응’이라는 개념을 중요시 한다(BFSFJ, 2005b: 122-3).

특별히 청소년 문화 활동과 정치적인 청소년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실행되는데 그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교육을 위한 가정교육: 계층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학습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가정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과 보호와 학습과정에 대한 대안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청소년사회노동: 교육적 의미를 갖는 청소년사회노동은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진흥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활동과제는 개별적 상담이나 모임활동 또는 학습장애아를 위한 코스의 형태 또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의 통해서 학교와 학습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보조적인 목표로 한다.

3) 교육과 청소년노동

청소년노동에 대해서 두 가지 완전히 상이한 조직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형태로서 명예활동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연맹 안에서의 청소년노동이 있고, 다른 하나는 1970년대 이후에 강하게 성장해 온 직업적으로 조직화된 청소년노동으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공개적인 청소년노동」이 있다. 직업적으로 조직화된 청소년 노동은 전문분야의 기업체와 청소년노동을 주체하는 기관이 제공한다(BFSFJ, 2005a).

아동과 청소년 복지법에 의하면 청소년노동은 명백한 위탁교육이다. 청소년노동은 성장세대의 교육적 발달을 진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노동은 성장하는 세대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교육의 국가적 진흥책 중의 하나이다’(Münder u.a., 1998: 163).

청소년노동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사회의 동반책임성과 사회적 봉사활동을 위한 자기결정 능력을 고양해야만 한다(11 Abs. 1 SGB VIII). 이밖에도 긍정적인 삶의 조건 형성과 지적인 능력의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Rückbezug auf § 1 Abs. 3 Nr. 3 und 4 und § 9 Abs. 3 SGB VIII).

법률적인 위탁은 성장세대에게 일상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삶의 세계를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목적과 교육과제는 교육적 청소년노동의 특징이다(Sturzenhecker, 2004).

3)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사회노동

청소년사회노동은 학교와 직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기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학교사회노동’, ‘학교-사회적인-노동’(Schilling 2004: 115-117), ‘학교 청소년노동’(작센 주의 주정부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사회활동’,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사회노동’,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복지’(Prüß 2004: 110-112)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 중에서 ‘학교사회노동’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여기는 학교와 청소년복지의 협동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사회노동’이라고 하겠다. 교육의 전제조건과 요구가 복잡해짐

에 따라 가족과 학교에서의 교육과 학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회노동의 기능이 더욱 강조된다. 교육과 사회적 이해를 위한 청소년사회노동 안에서 아동과 청소년복지는 고유의 사회화기능을 갖는다. 즉 청소년 사회노동을 통해서 ‘기회 균등성’과 ‘성공적인 사회의 구성원’의 목표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의 기능적 문제점과 학교에서의 결핍에 대해서 학교에 관련된 청소년사회노동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또한 어떠한 실행과 도움을 통해서 성장세대에게 성공적인 용화를 인도할 수 있는가?(BFSFJ, 2005a).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사회노동의 교육적요구와 위탁을 살펴보면, 청소년 사회노동은 사회계층이나 국적과 성별에 상관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때 청소년들이 그들의 잠재성을 육성하고 관계형성에 있어서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노동은 직업과 학교간의, 사회와 개인 간의 의사소통 잠재력의 진흥을 직접적으로 추구한다(vgl. Kapitel 2). 즉, 청소년사회노동은 성공적인 학업의 수행을 보조하고 또한 직업교육과 직업으로의 준비를 위해 사회화과정을 돕는다. 이때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계층은 소외 계층 청소년이나, 학교교육을 중도에 포기했거나 또는 학교와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청소년이다.

학교교육의 완수와 직업교육의 이수를 통해 사회 안에서 개인으로서 기능하고 살아가는 기본을 형성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생활이 원만하다 하더라도 학습 성과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사회적약자 계층에 속해 있는 경우 아동과 청소년복지에서의 청소년사회노동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관계형성 능력을 진흥시킬 수 있다.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등교거부이다. 클라우스-유르겐 틸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까지의 전체 학생 중 40%이상이 최소한 한 번 이상 등교를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Tillmann, 2004: 39). 또한 등교를 한다고 해도 단순히 출석의 의미만 있고 실질적인 학업수행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고 있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에 비해 직업학교(하우프트 슐레)에서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제도화된 학교의 결핍기능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사회노동의 역할이다. 즉,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사회노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며 미래지향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와 학교와 직업이라는 세 영역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한다(BFSFJ, 2005a).

4) 학교에서의 기회균등

보편적인 의미로의 학교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교육체제 안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라 다른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하부계층안의 소년들에게 불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진다(BFSFJ, 2005a).

PISA의 결과를 보면 ‘위험그룹’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부진한 학업성취도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계층갈등은 독일의 교육체제 안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BFSFJ, 2005a).

2000년과 2003년 PISA연구의 결과를 보면, 하부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능력이 눈에 띄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Prenzel u.a., 2004a; Baumert/Schümer, 2001, 2002). 비록 지난 10년 동안 하부계층의 청소년들이 직업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대학졸업이나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 진학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의 학생들의 출신을 조사해 보면, 고학력 부모의 자녀가 50%를 넘는 반면에 전체 인문계 고등학생 중 일용직 노무자의 자녀가 15%,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의 자녀가 10%정도에 불과했다(Baumert/Schümer, 2001: 355). 또한 해외이주민의 자녀인 경우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한 명만이 외국인인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을 진학하는 비율은 28%인 반면에, 양부모가 다 이주민인 경우 자녀들의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 진학율은 12%에서 16%정도에 그쳤다.

또한 직업학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만이 외국인인 경우, 직업학교 진학률이 22%인 반면, 이민 2세대인 경우 44%였고 이민 1세대인 경우는 33%에 달했다. 독일 청소년인 경우는 33%가 인문계에 진학하는 반면에 19%만이 직업학교에 진학을 했다(Prenzel u.a., 2004a). 독일 학교체제 안에서 다양한 학교 이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동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 PISA-연구에 의하면, 모든 15세의 학생들 중 최소한 한번이상 학년을 재입학한 경우가 25%나 되었다(Krohne u.a., 2004). 이렇게 재입학을 한 학생 중에 5%정도가 5일 이상을 결석을 한 경험이 있었고(Schreiber-Kittl/Schröpfer 2002: 31), 아예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도 9%에 달하였다.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이민세대가 18%, 독일인인 경우가 9%였다. 주별로 보면 직업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율이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가 7%였고, 작센-안할트는 15%에 이르렀다(Avenarius u.a., 2003).

결국 이민세대이거나 노동자계층인 경우 고학력으로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겪는 어려움이 다른 부류의 학생들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BFSFJ, 2005a).

5) 사교육의 증가

독일에서는 최근 상업적 과외기관이나 개인 과외 등이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폭 넓게 늘어났다(vgl. Abschnitt, 6.3). 이렇게 늘어난 과외에 대한 수요는 학교에서 늘어난 지식의 양과 관련이 있다. 1994년 노드라인-베스트팔렌의 11~17세 사이의 학생들의 20%가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rrelmann/Klocke, 1995). 몇 년 후에 이 수치는 30%로 증가를 했다(Kramer/Werner, 1998). 독일 전체에서 중학교 3학년(9학년) 모든 학생의 개인과외, 보충학습, 과외학원 등을 찾는 비율은 33%였다(Baumert u.a., 2001). 과외나 보충수업, 과외학원 등을 찾는 학생은 13%이고, 개인과외나 개별적 보충수업 등을 찾는 학생들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auschenbach u.a., 2004).

학교별과 학년별로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인 경우 25%정도가 계속

적으로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neider, 2004). 이와는 반대로 직업학교(하우프트 슐레)나 전문학교(레알슐레)인 경우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는 과도기과정에서 과외를 하는 비율이 특히 높다(Rudolph, 2002; Kramer/Werner, 1998; Hurrelmann/Klocke, 1995).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과정에서 약 5-10%정도가 과외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agstedt, 1998). 수업 외 보충수업에 대한 강한 수요는 부모의 강한 교육 참여현상에 기인한다. 이러한 교육기회 역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Expertise Grunert; Fölling-Albers, 2000).

사교육기관은 단지 학교에서의 수업자료에만 국한 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더 나은 학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조성격의 학습을 제공한다.

독일에는 약 1,000개의 음악학교가 있고 이와 더불어 외국어 학원이라든지 컴퓨터학원들이 산재해 있는데 주로 지역사회나 개인 또는 전문적인 교육기업이 운영한다. 여학생이 이러한 교육기관을 찾는 비율은 남학생에 비해서 두 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FSFJ, 2005a: 225-6).

아동과 청소년복지에서 취학연령에서 14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외 교육장소를 ‘호르트’라 한다. 호르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어린이 호르트’, ‘학교안의 호르트’, ‘방과후 어린이집’, ‘호르트그룹’ 등이 있다. 대체로 학교를 보충하는 성격을 가진 정규적인 기관이다. 최근 새롭게 생기는 형태의 호르트는 ‘점심탁자’라든가 또는 ‘숙제도우미’와 같이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학습상의 결핍과 보호의 기능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Pelzer, 1999).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기관들은 부모가 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어린이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호르트 역시 이러한 기능이 강조되었는데 특별히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둔 경우의 자녀에 중점을 두어 건립되었다(Jordan/Sengling, 1992: 137; Deutscher Verein 2002: 473-4). 독일에서 첫 번째 어린이 호르트는 1872년에 건립되었고, 취학연령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Sozialpädagogisches Institut Nordrhein-Westfalen [SPI NRW], 1989: 7). 동독지역에서는 약 10세까지의 모든 어린이가 호르트에 의무적으로 소속되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

었다.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호르트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다(Münder u.a., 1998: 100). 그러나 서독에서는 호르트의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가족과의 유대관계나 연령에 따른 잠재력 진흥에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행으로 1980년대 서독에서도 호르트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공식적인 교육위탁기관으로 건립되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호르트는 동등한 의미의 교육위탁기관으로 학교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가정에서의 결핍을 보충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호르트는 청소년장관과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리의 위탁 기능을 갖는다. 호르트는 어린이 각각의 삶의 배경에 따라 상응되는 인격과 인성형성을 도모하며 이를 위한 교육적 제공을 한다(Konferenz der Jugendminister 1987: 1-2). 1990년대에 들어서 호르트는 가족을 보충하는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교육과 관리와 보호의 교육적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Bundesminister für Frauen und Jugend 1991: 19-51). 2005년 1월 01일을 기점으로 독일 교육법 안에서 호르트라라는 말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 대신 호르트의 각 기능별로 나뉜 여러 명칭이 사용되게 되었다. 취학연령의 아동을 위한 기관으로 공식명칭이 바뀌게 되었는데, ‘어린이집’, ‘어린이탁아소’, ‘유치원’, ‘어린이크리페’ 각 기능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불리게 되었다(BFSFJ, 2005a: 391-2).

6) 전일제 학교

독일에서 전일반 학교의 건립은 교육정치상의 개혁프로그램이다. ‘미래와 교육 그리고 보호’라는 개혁프로그램으로서 각 주마다 전일반 학교가 건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PISA-연구 결과에 대한 교육정치상 대답이었다. 즉 전일반은 국제 학생 능력 비교 결과로 독일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낮게 나온 것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 ① 독일에서의 전일반 학교의 건립은 단지 성장세대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측면만이 아니라 결핍된 보호기능도 강조한다. 90년대 초 여러 주에서 반일제 학교의 문제와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 ② 학교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을 담고 있다. 독일에서 학교는 가족이 전제되는 교육기관이다. 학교는 가족이 성장세대가 취학을 하고 취학후 수업에 참가하며 이에 대해 학습능력과 보호관리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종일반 학교 계획’은 이러한 가족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목표로 건립된 것이다.
- ③ 매일의 학교수업시간의 연장과 팽창을 통해서 세대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여가시간이 변화하고 그들의 생활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가족의 모습이 변화하면서 세대 간의 관계도 변하고, 국가나 주정부는 학생들의 생활을 위한 더 많은 의무가 생겨났다. 전일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교육의 가능성과 여가시간 설정과 여가활동, 또한 자유공간의 형성 등이 과제로 주어졌다.
- ④ 전체 교육체계의 변화가 있다. 전일체제의 교육과정은 기존의 반일체제의 교육체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교육체계의 변화가 뒤따랐다. 전일제 학교의 건립은 기본적으로 학교와 학교외 활동, 청소년복지가 서로 연관되는 기관이기때문에 이 세 기관사이의 협동이 필수 사항이다. 또한 학생들의 하루 일과가 바뀌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 ⑤ 국제적인 토론의 결과와 다른 유럽국가들의 교육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보면 독일에서의 전일제학교는 다른 유럽국가의 교육체계와 수준에 교육체계를 접근시키는 것이다(Coelen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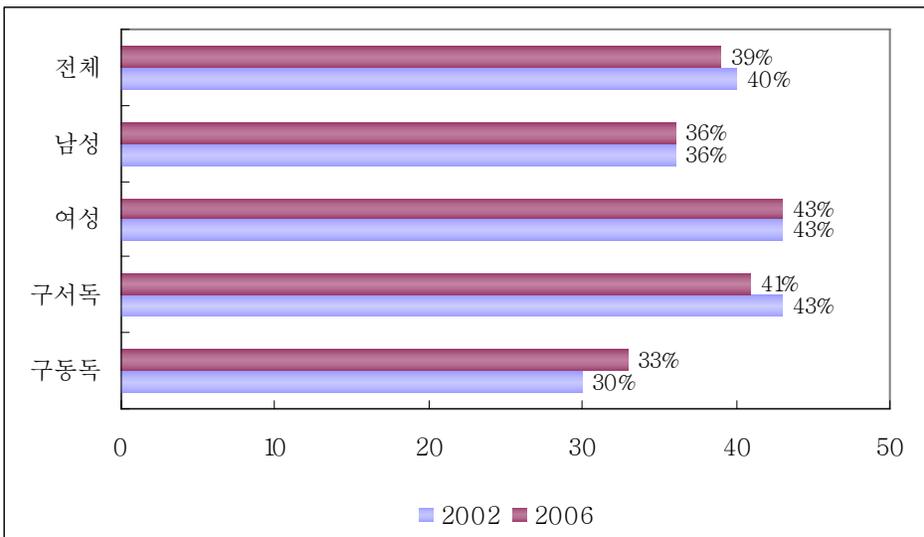
전일제 학교는 학교의 개혁, 그 이상의 작업이다. 전일제 학교를 통해서 전일동안 계속되는 교육과 보호와 학습의 제공이 있어야만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하루를 관리하고 계획해야 한다. 이것은 가족과 학교 그리고 학생사이의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 간의 관계까지도 바꾸는 사회개혁 차원의 일이다. 그 만큼 국가나 주정부가 고려해야 할 영역이 늘어난 셈이다(BFSFJ, 2005a: 489-90).

3. 청소년인구: 성, 인종 그리고 결혼

1) 동거와 결혼에 대한 인식

2006년 쉘 청소년 설문 조사(Shell Jugendstudie, 2006)에서 현재 함께 사는 파트너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12~14세 청소년의 7%, 15~17세 청소년의 22%, 18~21세 청소년의 45%, 그리고 22~25세 청소년의 61%가 파트너가 있다고 답하였다. 소녀와 젊은 여성(43%)은 소년과 젊은 남성(31%)에 비해 더 많은 이가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고, 구 동독의 소년과 젊은 남성(42%)은 구 서독의 소년과 젊은 남성(36%)보다 더 많은 이가 파트너와 함께 생활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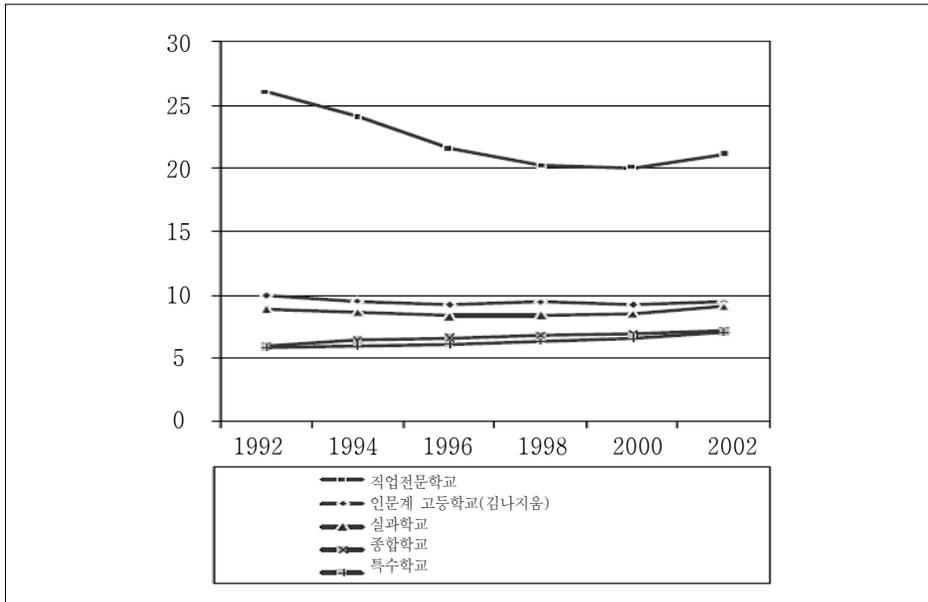
결혼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청소년 응답자의 81%가 결혼의 의미를 높이 평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9%의 청소년만이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해서는 여성 청소년(43%)이 남성 청소년(36%)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 서독의 청소년이 구 동독의 청소년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8]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12-25세)

2) 비기독교적인 출신성분과 사회적 참여기회

비기독교 출신 학교 졸업에서 삶의 가치관과 사회참여도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자국의 독일 아동과 청소년이 갖는 기본적 성향과 다르다. 즉 부모가 비기독교국가에서 독일로 이주 온 경우,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독일과는 전혀 다른 문화로부터 이주하여 독일 내에서 독일 아동·청소년의 학교 내에서 경합할 경우 기회가 적게 주어진다. 외국 학생들의 취학과 학교 졸업은 지난 10년동안 증가하지 않았다. 취업의 기회 또한 줄어들었다. 이주민인 경우,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 비기독교문화의 출신인 경우, 그 학교에서의 성과도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FSFJ, 2005a: 80-2).



출처: 독일통계청(교육연구 장관부)[BMBF], 2004a: 68(단위 : %)

[그림 III-9] 학교의 형태별 외국인 학생 수 (1992-2002)

독일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비기독교 이민자들은 터키출신인

다. 터키로부터 이주해 온 가족의 자녀인 경우—특별히 낮은 교육성취도를 나타낸다(Gogolin u.a., 2003: 5; Herwartz-Emden, 2003: 688-90.). 외국인 출신의 소녀들인 경우 외국인 출신의 소년들에 비해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낸다(Heß-Meining, 2004; Herwartz-Emden, 2003: 701-2.; Solga, 2003: 721, 724).

이외에 전체 외국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보면, 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그들 대부분이 전문학교(레알 슐레)나 전문대학 졸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독일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졸업 비율(2002-2003)

졸업종류	전체	독일인	외국인
직업학교 미졸업	8.9	7.9	19.2
직업학교 졸업	26.0	24.5	41.6
실과학교 졸업	40.5	41.6	29.1
전문대 졸업	1.2	1.2	1.3
대학교 졸업	23.5	24.8	8.9
전체	100%	100%	100%

출처: 독일통계청(2004).

2003년 PISA-연구결과를 통해 이주민 가족의 15세 학생의 취학 학교유형을 보면, 직업학교가 많고 인문계 고등학교(감나지움)는 경우는 적게 나타났다. (vgl. Tab. A-1.2 im Anhang). 또한 이주민 가족의 청소년인 경우 독해능력과수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사회경제적인 수입원이 적은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Ramm u.a., 2004; Baumert/Schümer 2001).

이주 청소년 중 터키출신이 학업능력과 언어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이태리로부터 이주해 온 청소년들이다. 이태리 학생들의 경우 터키 학생들보다 대학진학율도 학업성취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능력이 터키학생들보다 뛰어나 독일 사회로의 융화가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치르는 대학입학 자격 시험 아비투어의 합격율을 보면, 부모출신의 배경이 학생들에게 직접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외국인 부모인 경우 자녀의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 진학율이 아주 적었고 또한 아버지를 뛰어 합격율도 매우 낮았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터키 출신인 학생의 사회 융화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언어발달과 문화습득의 측면에서 고립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태리출신 학생인 경우는 그 보다는 상황이 좋다. 이민 세대가 오래 됐으면 될수록 즉 이민 1세가 아니라 2세나 3세인 경우 사회적 융화와 언어적 측면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BFSFJ, 2005a: 8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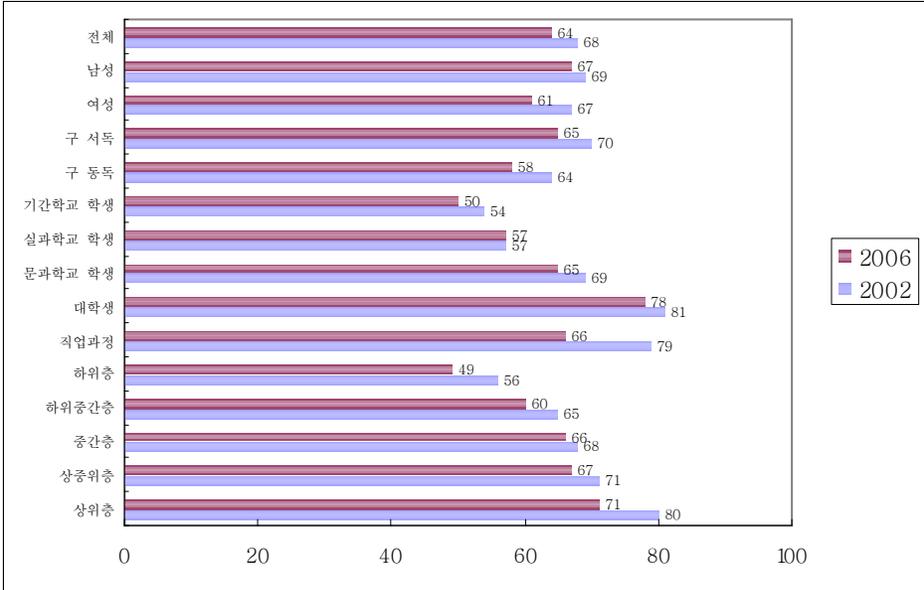
4. 청소년의 노동 및 직업체험

1) 청소년의 노동

2006년 셸 청소년 설문 조사 (Shell Jugendstudie, 2006)는 지금의 독일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직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상태는 일반적으로 교육정도나 부모의 직업 또는 가족형태, 또는 자녀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당면한 중요한 질문은 학교를 마친 뒤에 자신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독일에서 청소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갖는 것에 대한 믿음이 차츰 떨어지고 있다. 거의 과 반수가 넘는 기간학교의 청소년들은 특히 미래의 직업에 대해 무척 회의적이다.

미래에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은 젊은 여성에 있어서 (젊은 남성에 비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하위계층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더 회의적이었는데, 상위층 청소년의 1/4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응답한 반면, 하위계층 청소년의 거의 반정도가 불확실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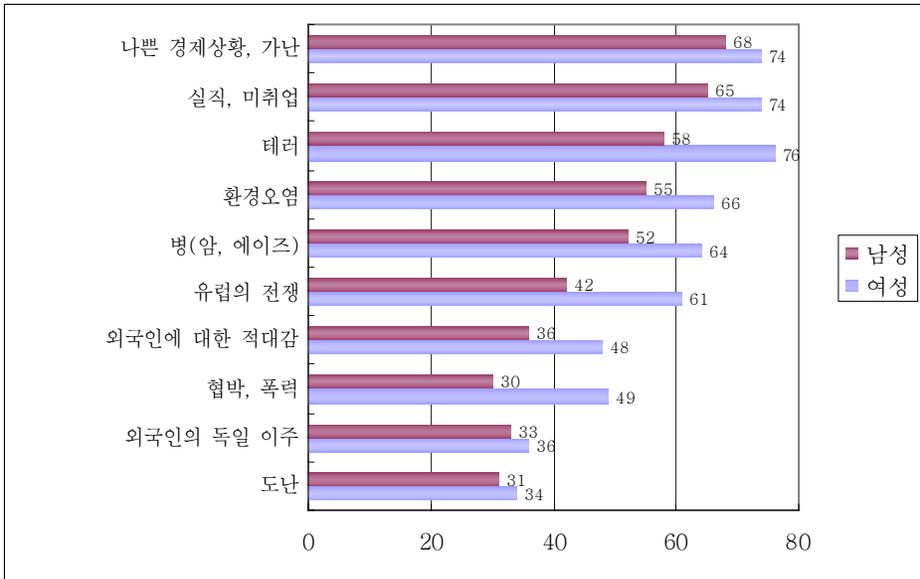
출처: Shell Jugendstudie [셸 청소년 설문조사] (2006), %

[그림 III-10] 청소년의 희망취업 확신 정도(12-25세)

늘어나는 실업률에 대한 독일 청소년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2002년의 셸 청소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청소년들은 특히 테러리즘, 경제적 불황, 환경오염 그리고 유럽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청소년들은 오히려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Shell Jugendstudie, 2006). 실직 또는 미취업에 대한 걱정은 지난 4년 동안에 55%에서 69%로 상승하였다. 또한 경제적 불황과 그리고 늘어나는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독일 이주에 대한 두려움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모든 두려움들은 경제적인 생계보장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생계보장과 관계없는 다른 걱정들, 예를 들어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유럽의 전쟁 또는 도난 등에 대한 걱정은 2002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청소년 실업률은 2004년 독일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으며, 아직까지도

구 동독과 구 서독이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년 20세 이하 실업률은 구 동독에서 6.9%로, 이는 구 서독의 3.5%에 비해 거의 배가 높은 수치이다. 2006년 20~25세의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구동독에서 21%, 구서독에서 10.7%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업에 대한 두려움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도표 7).



출처: Shell Jugendstudie [셸 청소년 설문조사] (2006)

[그림 III-11] 청소년의 걱정거리(12-25세)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와 관련된 걱정은 하위계층 청소년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계층의 청소년들은 외국인의 독일로의 이주에 대한 걱정이 (23%) 하위계층의 청소년들보다 (46%) 훨씬 적었다. 이 같은 경향은 하위계층 청소년들이 외국인의 독일 이주가 자신이 직업을 찾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즉 외국인들을 직업을 찾는데 있어서의 경쟁 상대자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의 상을 보였는데, 즉 하위계층의 청소년들은 환경오염에 관한 걱정(48%)이 상위계층의 청소년

들보다 (67%) 훨씬 적었다.

2) 직업체험

독일의 15세 청소년의 1/3이상이 학생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경제관념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실용적이며 기술적이고 의사소통과 개인적인 잠재력을 폭 넓게 진흥시키는 역할을 한다(BFSFJ, 2005a: 30).

학생직장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학습기회를 열어주었다. 학생직장은 노동시장으로의 안목을 열어주고,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에서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한다. 또한 직업세계 안에서의 책임성, 전문지식의 필요성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직장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깨닫고 체험 할 수 있다(BFSFJ, 2005a).

과거에는 15~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다수가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오늘날에는 직업세계로의 사회화과정이 훨씬 늦게 시작하는 것이 추세이다. 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자부심’, ‘후일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배운다’, 또는 ‘중요한 일을 하는 느낌’, ‘미래를 준비한다’, ‘내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킨다’ 등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학생의 직업활동 참여는 사회에 대한 참여이다(Tully, 2004c). 학생직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이미 10~13세 사이의 6%가 주당 5시간 정도의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Zinnecker/Silbereisen, 1996), 17세 청소년인 경우 12%가 이 경우에 해당되었다(Schneider/Wagner, 2003). 노드라인-베스트팔렌과 헷센 청소년 14~16세사이의 학생들의 반이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 적이 있으며, 그들중 80%이상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ngenhorst 2000). 약 15~18세 사이의 학생들 중 1/3이 정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들 10명 중 한명 꼴로 주당 15시간에서 그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utsche Shell 2002). 45,000명의 학생들이 현재 소매상에서 일하고 있다(Bibouch/Held 2002). 정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평균적으로 주당 8시간정도를 일하고, 소년들이 소녀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이 나이 어린 청소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은 방학 중에 평균적으로 2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ully, 2004a). PISA-통계에 의하면 15세 학생들의 37%가 일을 하거나 주당 5시간 이상 과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auschenbach, 2003: 57).

일을 하는 분야는 예를 들면, 킥서비스나 택배, 소매상에서의 점원, 부모님의 상점에서의 계산인원, 자동차 세차, 카페나 레스토랑 서비스, 정원이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애완견 돌보기, 과외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활동은 정규적인 직업으로 또는 방학동안의 일용직으로 이루어진다(Tully, 2004a, 2004b; Ingenhorst, 2000).

일의 선호도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있는데, 소년들은 주로 집안 밖의 도우미나 정원사, 신문 배달원 등으로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는 반면에 소녀들의 경우에는 베이비시터나 서비스요원 등의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 소녀들의 경우에는 연령이 올라가면 환자나 노인 또는 장애인 돌보는 보조간병인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BFSFJ, 2005a: 233-5).

IV. 사회화 과정의 장으로서의 가족

1. 가족의 역사
2. 가족구조의 변화
3. 성역할
4. 부모자녀관계
5. 양육방식
6. 도시 속의 청소년의 생활환경
7. 가족의 일상과 사회화 과정
8. 가족과 청소년 정책

IV. 사회화 과정의 장으로서의 가족

1. 가족의 역사

1) 가족의 위기로서의 사회변동과정

18, 19세기의 기존의 가족관계는 프랑스 혁명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 이혼율은 급증하였고 미혼의 젊은이들도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20세기 초의 이혼율과 미혼 청년들의 수는 오늘날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가파른 사회변동은 기존의 가족체계를 위협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도 가족의 다양한 기능과 체계의 존재성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성장세대의 사회화, 재충전, 재생산으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심각히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BFSFJ, 2005b).

2) 출산율의 감소

20세기의 초 서유럽에서 남자의 결혼적령기는 28, 9세였고 여성의 경우는 25, 6세였다. 이는 동유럽에 비교해 보면 약 3년 정도가 늦은 나이였다(Tomka, 2001). 또한 평생미혼인 경우도 12~14%였다. 이와 함께 1900~1920년 사이의 출산율도 스웨덴, 네델란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프랑스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좀 더 일찍 그리고 더 빨리 일어났다. 프랑스에서 1910년도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3.3명이었고, 독일은 2.6명 그리고 영국은 2.4명으로 감소되었다(BFSFJ, 2005b: 26).

반데카(1987)는 19세기말에 시작하여 20세기의 60년대까지 이어진 이러한 변화를 ‘첫번째 사회통계학적 과도기’라 명했다. 이러한 과도기 안에서 결혼은 증가하였고, 결혼연령은 낮아졌으며, 이혼율은 극히 적어졌고, 동시에 재혼율 또한 증가하였다.

출산율이 증가하고 결혼한 부부의 불임율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욕구가 증가하였다. 수입의 증가나 노동조건, 건강과 사회적인 안정성과 독립성, 사회적 응집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등이 중요시 되었다. 당시에 국가와 교회로부터 부부와 가족의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있었다. 국가와 교회는 이러한 규제의 일원으로 성별역할 분담의 분명한 경계와 부양자로서의 아빠와 육아전담의 엄마를 가족의 모델로 하는 제도로서의 가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BFSFJ, 2005b: 31).

2차 세계대전이후 출산율은 다시 감소하였다가 1946년에서부터 1970년 사이에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런 인구증가였다(BFSFJ, 2005b: 32).

<표 IV-1> 유럽국가의 전체 출산율(1960-2002)

나라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스웨덴	2.20	2.42	1.92	1.77	1.68	1.74	2.13	1.73	1.54	1.65
덴마크	2.57	2.61	1.95	1.92	1.55	1.45	1.67	1.80	1.77	1.72
네델란드	3.12	3.04	2.57	1.66	1.60	1.51	1.62	1.53	1.72	1.73
영국	2.72	2.89	2.43	1.81	1.90	1.79	1.83	1.71	1.64	1.64
프랑스	2.73	2.84	2.47	1.93	1.95	1.81	1.78	1.70	1.88	1.89
독일	2.37	2.50	2.03	1.48	1.56	1.37	1.45	1.25	1.38	1.34

출처 : 유럽통계청(2004)

1970년 이후 유럽전역에 걸쳐 출생률은 완전해진 피임약이나 기구로 인해 (Castles 2004) 급격히 감소하였다.(Fagnani 2002).

독일에서 불임율의 증가로(Rürup/Gruescu, 2003) 아이들의 수가 줄어든 것에 비해 미국(2003b)에서는 그와 비슷한 현상으로 3~4자녀의 가정의 수가 줄어들었다. 불임율의 증가는 20세기 초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그 비율이 20%이상에 이른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덴마크 그리고 네델란드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4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수도 함께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미래의 가족의 형태와 기능은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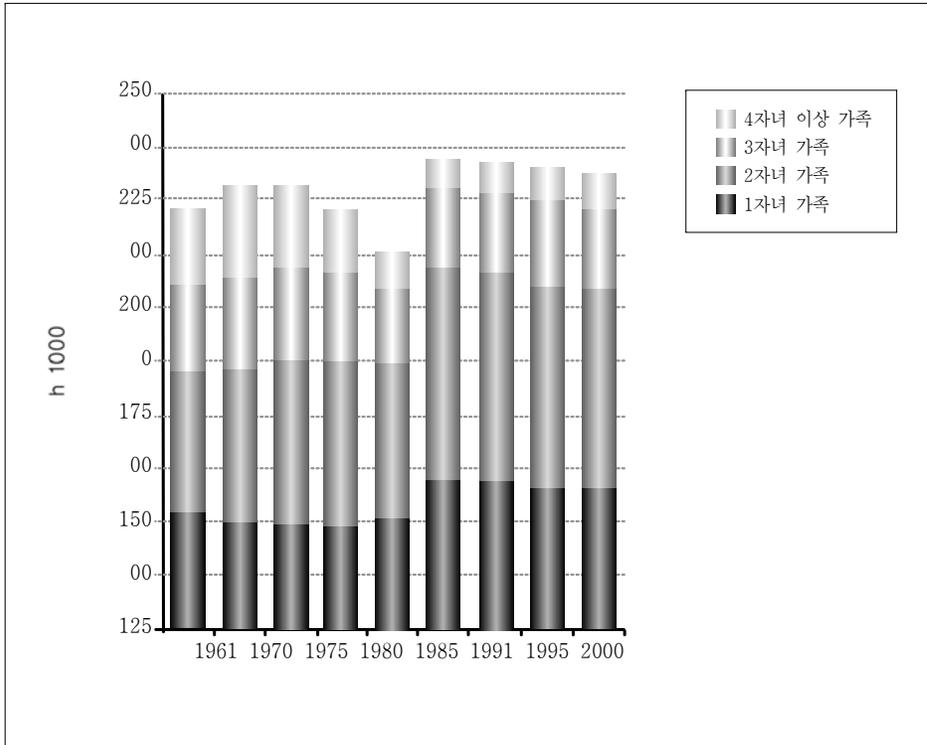
년도에 출생한 어머니인 경우 3~4자녀 가정 출신이 130인 것에 비해 1960년에 출생한 어머니인 경우 78로 그 수가 반으로 줄었다. 다음의 표에서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1935년 출생인 어머니의 3~4자녀가정 출신이 121인 것에 비해 1960년 출생인 어머니는 3~4자녀가정 출신이 46으로 반이상이 줄었다. 영국의 경우는 97에서 46으로, 네델란드는 107에서 36으로 독일이상으로 수치가 50%를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스웨덴에서만 아이의 수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IV-2> EU 국가 여성의 출신가족별 자녀수(1935-1960)

	년도	1자녀	2자녀	3자녀	4이상 자녀	총 계
프랑스	1935	16	58	63	121	258
	1960	18	80	66	46	210
영국	1935	15	66	63	97	241
	1960	12	78	60	46	196
독일	1935	26	60	60	70	216
	1960	22	65	37	41	165
네델란드	1935	10	64	69	107	250
	1960	16	82	51	36	185
덴마크	1940	17	80	69	58	224
	1960	20	86	54	29	189
스웨덴	1940	16	84	66	39	205
	1960	15	80	63	46	204

출처 : 유럽통계청(2001)

1960~1990년 독일의 자녀 수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 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000만 중 1961년도에는 1,900만명의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1990년도에는 단지 1,700만명의 아이들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만명의 감소는 결국 3~4자녀가족의 감소에 기인된 것이다(BFSFJ, 2005b: 35-37).



출처 : 독일 통계청(1991~1970)

주 : 1961-1990 : 동독 전 서독만 유효

[그림 IV-4] 가족 내 자녀 수* 변화 추이

3) 동독과 서독의 가족유형

동독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외 기관이 가족의 역할을 전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일제 탁아소나 전일제 학교, 영업이 연장된 가게, 상업적인 여가활동 조직단체 등이 그것이다. 동독에는 여성의 일자리보장과 함께 가족을 위한 기관이 국가로부터 건립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독과는 다른 독자적인 길이었다.

서독의 경우, 남자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이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동독에 비해 상당히 적었고 오히려 가족 내의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Bertram, 1997). 동독과 서독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가족상을 가져 만 들어냈다(BFSFJ, 2005b: 118-119).

통독 전이나 통독 후에 독일의 출산율은 변동이 별로 없었지만 문제는 통독 후 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서독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생겨났다. 지역적 출산율과 주민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 나은 교육의 기회와 직업 기회를 갖기 위해 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서독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동독의 젊은이들이 서독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동독의 붕괴로 1989년 평균출산율은 1인 여성 당 1.5~1.6자녀에서 1자녀로 급감하였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급감은 25세 이하의 동독의 젊은 여성들이 동독지역으로 직업과 교육을 위해 이동하면서 이와 동시에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른 것에 원인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 안에서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25~39세 사이의 여성들이 사회 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때문에 결혼과 아이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5세 이하의 젊은 여성인 경우 통독 전 동독에서는 일찍 결혼을 하여 아이를 일찍 낳는 경향이었으나, 오늘날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직업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함에 따라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 양상을 띠고 있다. 55~59세 사이의 여성 중 14%가 대졸자인 반면에, 오늘날은 25세 이하의 여성 중 40%가 대졸자이다. 30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1996년부터(통계청 백켄부르크-포어폼머스, 2002)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감소되었다. 서독지역에서는 출산율이 20%증가한 것에 비해 동독지역은 5%의 출산율 감소를 보였다. 오늘날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동독 지역(엘히스펠트, 규터스로우, 아우-슈바르첸베르그와 잘쯔베텔 등)은 출산율이 크게 감소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와 비슷한 출산율을 보이는 서독지역의 도시는 트리어, 뷰쯔부르크, 뮌스터 또는 하이델베르그가 있는데 이런 서독도시(Expertise Bucher, 2004)와 동독지역간의 출산율 감소의 차이는 거의 비슷해졌다. 따라서 이제는 동독과 서독간의 동등한 출산율 감소는 공동의 이유에 연유한다. 10~15년간의 지속적인 통독의 출산율 감소는 가족의 생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또한 특별히 동독지역에서 건립된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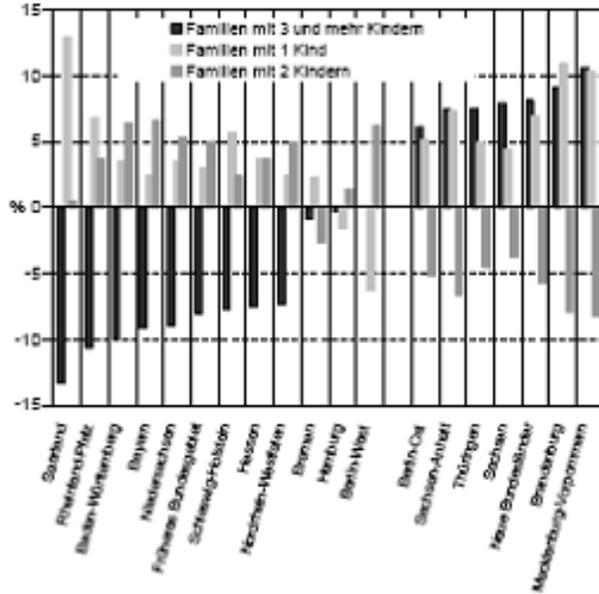
아 보호시설 등의 복지시설이 폐관되어지는 사태까지 낳았다.

통독 후 가장 대표적인 이상 현상은 독일전반에 걸친 이동현상이 통독 전의 독일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고학력이거나 좋은 전문 인력의 서독으로의 이동은 독일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왔다. 동독지역은 이전까지 지역적으로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고급인력을 서독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서독의 생활환경이 동독보다 문화와 복지의 측면에서 더 낮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더 많은 수입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초 작센-안할트는 1991년서부터 18~24세사이의 젊은 여성들이 30%의 감소를 가져왔고, 25~29세 사이의 여성은 20%의 감소가 있었다. 이러한 이동으로 인한 감소는 자연적으로 지역적 출산율의 감소를 가져왔다.

지역적 출산율의 감소로 지역복지체계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후원이 불가능해졌다. 동독에서 서독지역으로의 이동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서독지역에서도 동독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자알란트나 슬레스비히-홀스타인과 같은 농어촌 지역은 지역경제가 취약해지고 경제활동의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젊은이들이 서독지역의 일부로 몰렸다. 이와는 반대로 노드라인-베스트팔렌 같은 대도시가 몰려 있거나 또는 산업도시가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구의 유입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독일 전반의 인구분포도와 경제 활성화도가 이전의 평등과 균등의 상황에서 대도시화 또는 산업도시화되는 사회현상이 빚어졌다. 도시화 현상에 따라 현재 독일 인구의 90%가 대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UNO의 조사에 의하면 대도시와 그 주변의 위성도시의 출산율과 거주민수가 농어촌지역의 출산율과 거주민 수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에 실행된 인구조사에 의하면(Bertram/Bayer/Bauereiss, 1993), 도시안의 어린이수는 오히려 농어촌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도시보다는 위성도시주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 Reihe 3 „Haushalte und Familien“, verschiedene Jahrgänge (Ergebnisse des Mikrozensus)

참고: (가로열(왼쪽부터):자알란트/라인란트-팔츠/바덴-뷔템부르크/바이에른/니더-작센/동독지역/슐레스비히-홀스타인/헷센/노드라인-베스트팔렌/브레멘/함부르크/서베를린/동베를린/작센-안할트/튀링엔/작센/통독후 독일/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퍼머스)

(세로열: %) 색구분(위에서부터): 3자녀이상 가족, 1자녀 가족, 2자녀 가족

[그림 IV-5] 자녀수에 따른 가족의 변화(동독:1972~2002년, 서독 1991~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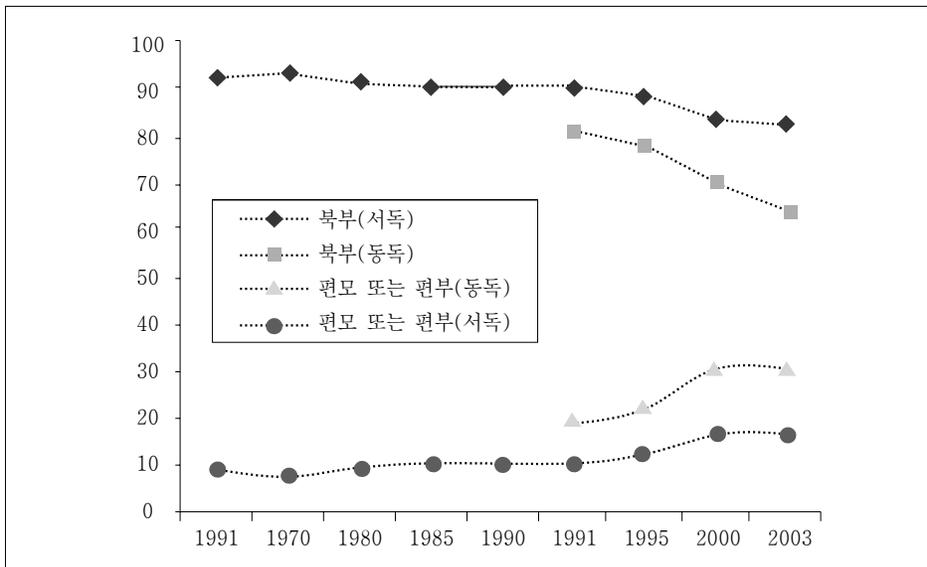
1972년 이후에 농어촌지역에서의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감소는 대도시에 대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대도시 구성원의 대부분이 유입인구라는 새로운 현상을 보였다. 유입인구로 날로 커지는 대도시는 노동인구의 증가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지만, 지속적인 유입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농어촌의 출산율 감소가 대도시에 비해 더 급격히 줄어들어 따라 대도시로 향하는 젊은이의 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BFSFJ, 2005b: 304-306).

2. 가족구조의 변화

1) 가족유형의 변화

가족은 공공기관이나 국가 양육기관 혹은 학교 생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는 일차적인 생활의 무대이며 성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럼으로 가족 구조와 가족 관계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찰과 분석은 청소년의 발달과 교육 과정의 미래 지향적 구상의 기본적 출발점이다.

오늘날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족상태의 불연속성(단절)을 이전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많은 아이들은 독자로서 자라거나 아니면 단 한명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고, 편모나 편부를 가진 아동들과, 양모나 양부를 가진 아동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족형태는 구 동독과 구 서독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 동독에서는 한 가구당 18세 이하의 청소년수가 줄어들고 있고, 동시에 구 서독에 비해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편모 또는 편부들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독일 연방 통계청] (2004b)

[그림 IV-6] 가족유형에 따른 18세 이하의 아동 비율 동서독비교(1961-2003)

독일 청소년 연구소 (DJI)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구 서독은 물론이고 구 동독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나, 계모 계부, 그리고 미혼모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며, 정식 결혼을 한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비율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Gille et al., 2006). 더욱이 아동과 청소년은 요즘들어 더 빈번하게 부모의 결별이나 이혼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혼율은 1990년 2에서 2003년에는 2.67까지 (1,000 가구당) 증가하였고, 구 동독에서는 통독이후 급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지금은 약 2.2정도에 머물고 있다.

구동독과 구서독의 아동과 청소년의 가족에 관련된 생활 환경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구 동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비교적 적은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형제자매를 가진 아동은 구동독에서 비교적 드문 편이며(15%), 특히 41%의 아동이 독자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서독에서의 두 명이나 혹은 그 이상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37%, 독자의 경우는 29%에 이르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독일 연방 통계청], 2004b).

독일에서 사는 아이를 가진 외국인 가족은 아이를 가진 독일인 가족에 비해 더 많은 이들이 결혼 한 상태에 있다(2000년, 독일인 78%에 비해 외국인 86%). 반면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독일인 15%에 비해 외국인 12%)와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독일인 6%에 비해 외국인 2%)의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외국인 가족도 차츰 독일가족의 유형에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의 형제자매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ngstler & Menning, 2003).

외국인 가족유형은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다. 3/4을 넘는 많은 터키인들이 결혼한 상태이고, 7% 만이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상태에 있으나, 다른 출신은 2/3가 안되는 이가 결혼상태에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18% 내지 14%로 나타나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독일 연방 통계청], 2004a).

요약해 보자면, 독일의 아동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에서 자라고 있지만, 점점 다양한 유형의 가족안에서(예를 들어, 양부모)자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새로운 관계에 대한 처세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발달과 학습과정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 사회적인 압박과 더 나아가 발달과 학습의 지체를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2) 부모로부터의 독립

젊은 세대가 직업을 위한 교육과 경력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면서 결혼과 아이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안의 이성애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 사이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필요 없는 늘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 간의 동거에 대한 의식과 선호도는 가족의 유형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북유럽과 프랑스, 독일 등의 중부유럽에서 이와 같은 생활양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생활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동거를 통해 생기는 출산이 2001년 프랑스에서 전체 출산율의 44%를 차지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55%, 노르웨이는 50%, 덴마크는 45%, 핀란드는 40%에 달했다. 독일의 경우는 이보다 적어서 동독지역에서 25%정도인데, 이는 독일의 가족에 대한 보수적 성향과 지역의 응집력에 기인한다. 독일에는 생활의 자유분방함을 경외시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이다(BFSFJ, 2005b: 41).

젊은 세대가 동거를 하게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이다. 일정 연령이 되면, 대학진학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가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혼자 사는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인 이유로 마음이 통하는 이성간의 동거가 성행하게 됐다. 분가를 하는 연령은 덴마크나 핀란드의 경우 여성은 20세 전후이고, 남성은 22세를 전후한다. 독일의 경우는 여성은 21.5세이고 남성은 25세를 전후로 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BFSFJ, 2005b: 41-42).

부모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은 자신의 가정을 이루거나 독립하는 데 방해

가 된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독립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분가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의미한다. 역부족인 젊은이들이 택하는 방법은 부분적인 독립이다. 친구들과끼리 모여 살거나 또는 주거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자 방을 하나씩 갖고 나머지 부분은 공유한다. 부분적으로 부모로부터 보조받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또는 노동을 통해서 보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주거형식을 통해서 독립으로의 출발을 시작하게 된다(BFSFJ, 2005b: 45/46-47).

젊은 세대들의 동거와 분가를 통한 부분 독립은 또 다른 여파를 가져왔다. 결혼을 해도 자신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자유를 위해 아이 없이 사는 소위 ‘여피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여피족의 수입이 전통적인 아이를 둔 가족보다 많아지고 있다. 아이가 없으므로 지출이 줄어들어 잉여가 많아지는 것이지만, 절대적인 수입도 더 늘어난다. 아이가 없는 부부인 경우, 대부분 두 명의 부양자가 있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정의 경우 한 명의 부양자 수입에 의존하여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데, 보통 아이가 성장할 때는 지출이 늘어나게 되지만, 직업을 갖게 되면 부모에게 또 다른 수입원이 생긴다. 두 번째 아이나 세 번째 아이 역시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들이 자립할 시기가 되어 완전히 독립하면 부모의 수입에도 잉여가 발생한다. 이렇게 부모의 양육으로 인해 수입의 잉여가 상대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일생과 관련한 수입의 곡선을 ‘악터반-효과’라 한다(BFSFJ, 2005b: 47).

3) 가족과 노동문제

유럽국가 내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다음표와 같다. 북유럽 여성의 경제참여도가 55세 이상의 여성의 경제활동은 독일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BFSFJ, 2005b: 50).

<표 IV-3> 각 유럽국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비율(25-4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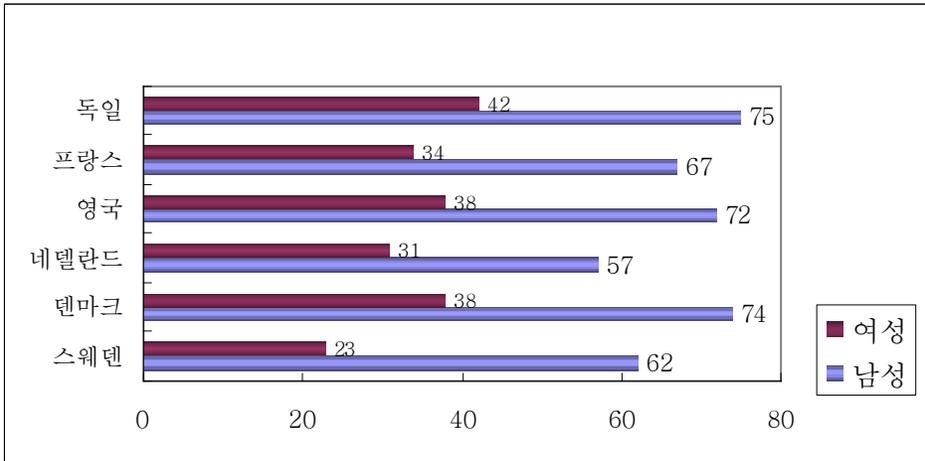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델란드	핀란드	영국
자녀가 없는 여성	79	74	78	59	82	81	84
0-14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제활동 비율							
1자녀	78	76	75	54	73	74	72
2자녀	78	64	67	47	69	71	68
3 이상 자녀	72	46	41	34	59	60	48
0-14세의 자녀중 제일 어린 자녀가 2세 이하인 어머니의 경제 활동비율							
1자녀	73	68	73	58	79	56	69
2자녀	73	54	52	47	68	39	59
3 이상 자녀	69	38	29	34	49	49	36
0-14세의 자녀중 제일 어린 자녀가 3-5세 사이인 어머니의 경제활동 비율							
1자녀	77	73	75	55	70	84	69
2자녀	77	63	71	46	67	81	66
3 이상 자녀	71	43	46	31	56	63	46
0-14의 자녀중 제일 어린 자녀가 5살 이상인 어머니의 경제활동비율							
1자녀	81	79	75	52	71	80	74
2자녀	82	71	75	48	71	86	75
3 이상 자녀	(80)	63	54	38	72	79	62

출처 : BFSFJ(2005b).

1인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인 경우 유럽전역에서 대부분이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자녀인 경우에는 다양한 인생설계와 계획을 통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경우에도 육아로 인해 고정적인 직업활동은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아이가 일정 연령 이상 성장한 경우에만 육아와 부분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FSFJ, 2005b: 52).

하킴(2000, 2001,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유럽의 많은 여성들이 상황과 인생의 시기에 따라 육아 또는 가사일과 직업선택 사이에서 순응적인 선택의 경향을 보인다. 그녀에 의하면 이러한 여성들이 60~70%가 된다고 한다.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육아를 맡을 수 없으며, 육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직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훨씬 상황에 대해 순응적인 것이라고 하킴은 주장한다. 하킴의 이러한 연구는 남녀의 노동시간비교를 통하여 잘 나타난

다(Fagan 2003). 유럽전역에서 남자들의 다수가 전일제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극히 소수만이 전일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과 남성 중 전일제 경제활동을 원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전일제 경제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FSFJ, 2005b: 5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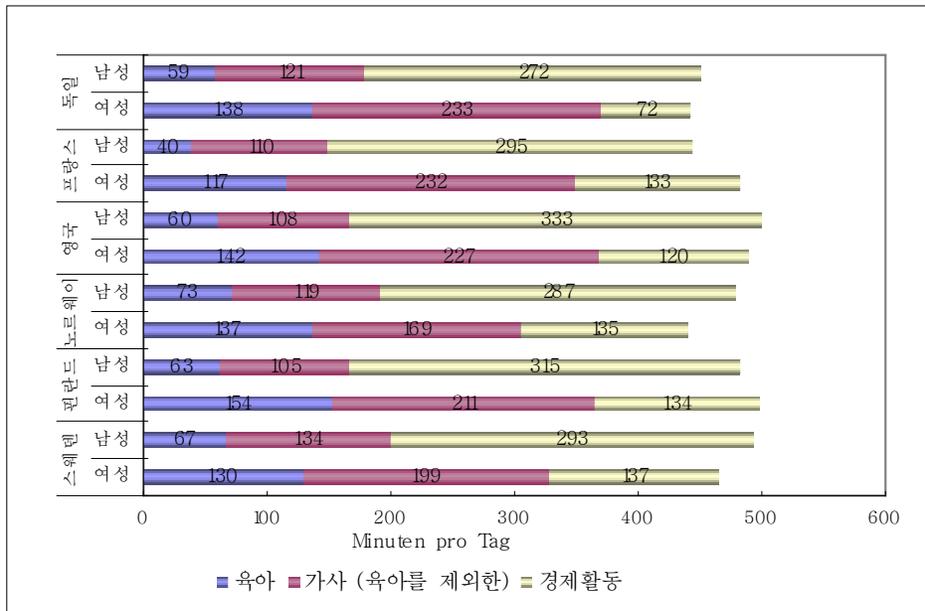
출처 : Colette Fagan, Working-time preferences and work-life balance in the EU : some policy leration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European 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3), p. 42

[그림 IV-7] 전일제 직업에 대한 희망비율

호퍼트/산드베르그(1998)-산드베르그/호퍼트(2001)과 비안치(2000)의 시간 계획조사에서는 직업생활을 하면서 육아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두는가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60년대서부터 자녀의 사회화를 위한 시간은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그것은 출생을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즉, 자녀를 위한 시간은 놀랍게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왔다. 핀란드와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그리고 프랑스에서 엄마가 육아를 위한 시간은 6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평균 1일당 2~2.5시간이었다. 독일의 엄마들인 경우 2.18시

간이었다. 여자와 남자 사이의 비율을 보면 70:30이었고 프랑스의 경우 75:25였다. 스웨덴의 경우 66:34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면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성별역할분담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였으며, 스웨덴인 경우 남성과 여성의 성별역할분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남녀가 전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독일에서는 여자가 30분 정도 줄어들었고 남자는 똑 같았다. 프랑스도 독일과 비슷했는데, 스웨덴은 경제활동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똑 같았다. 핀란드의 경우는 독일의 경제활동을 하는 엄마보다 20분 더 많은 시간을 육아를 위해 소비했다(BFSFJ, 2005b: 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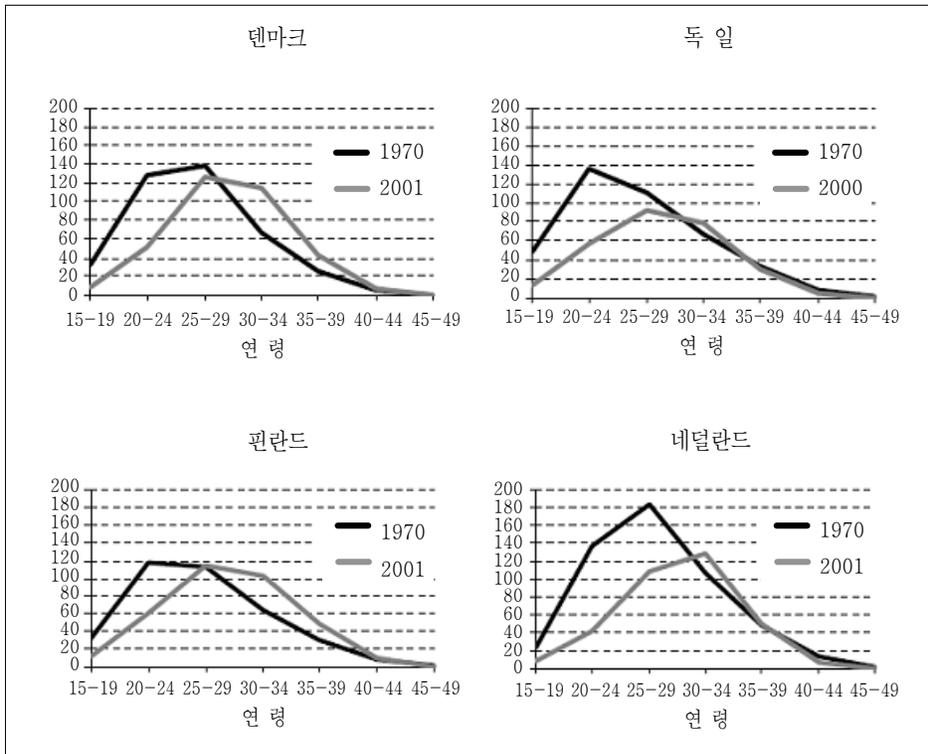


출처 : Eurostat, How Europeans spend their time. Everyday life of women and men. Luxemburg(2004)

[그림 IV-8] 6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부의 육아/가사/직업활동 시간

연장된 학습시간, 늦어지는 직장 생활, 젊은 세대의 다양한 생활양식, 늦어지는 결혼 등은 전형적인 유럽의 모습이긴 하지만, 각각의 유럽 국가를 비교해 보면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Lesthaeghe, 2000). 초산연령조사를 통해

서 초산연령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인생에서 아이를 갖겠다고 결정하는 시기도 분석할 수 있다. 30~34세와 35~39세를 조사(유엔조사 2000)해 보면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1970년과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는 이 두 연령층에서 자녀를 두는 수는 거의 두 배로 늘었고, 프랑스와 네델란드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약간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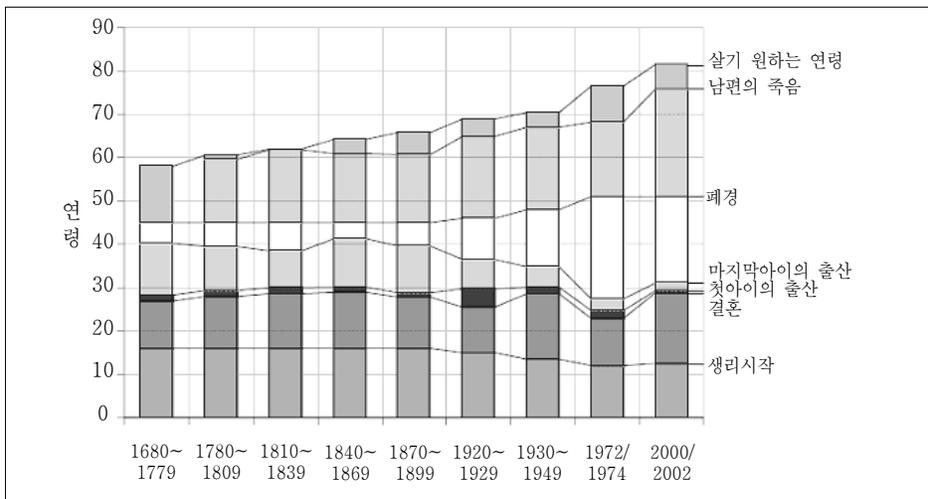
출처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Fertility Report 2003, S. 100, 136, 122, 240

[그림 IV-9] 연령별 출산율(1970-2001)

위 표를 통해서 독일의 30~40세 여성들의 삶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초산이 늦어지기는 하지만 출산을 아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러 명의 자녀를 두는 것 또한 포기하는 것이 아닌 단지 자녀의 출산

간격을 길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가 시간이 길어지고 청년들의 생활양식이 다양해져서 나머지 인생에 대한 계획도 늘어진 것이라 유추된다.

또한 독일의 27~34/35사이의 젊은 세대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시간 압박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직업교육이나 대학을 마치고 직업세계로 들어가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런 시간압박이 적다. 독일만의 독특한 교육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계열이나 북유럽의 경우 여러 가지의 교육체계를 통해서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와 그 기간을 조절 할 수 있는데 비해 독일의 교육체계는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간압박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압박을 ‘인생의 러쉬-아워’라 한다(BFSFJ, 2005b: 58-61).



출처 : Arthru E. Imhot, Die gewonnenen jahre, München 1981, S. 164 ff
 Jahre 2000/2002 eigene Berechnungen nach Daten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그림 IV-10] 기혼여성의 삶의 시기 변화

전체적으로 독일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였다.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까지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유럽국가를 비교해 보면 독일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은 상대적으로 적다. 독일 어머니의 경제활동의 증가는 파트타임활동에 기인한 것이다.

어머니의 경제활동시간에 대해서 보면, 경제활동이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독일 어머니의 경제활동정도는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 볼때, 특히 북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다. 다음의 표에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비율이 높은 것만이 아니라 55세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있다. 상대적으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인 경우는 동독과 서독이 크게 다르다.

<표 IV-4> 경제활동 기혼여성 비율(15~64세, 2003)

	동독		서독	
	자녀를 둔 여성	1996년 이후의 변화(%)	자녀를 둔 여성	1996년 이후의 변화(%)
전체	69.4%	-0.3	59.4	+8.4
자녀의 연령				
< 3세	43.4	+9.9	29.7	+4.1
3~5세	66	+0.6	55.2	+8.4
6~14세	73.5	-1.4	68.6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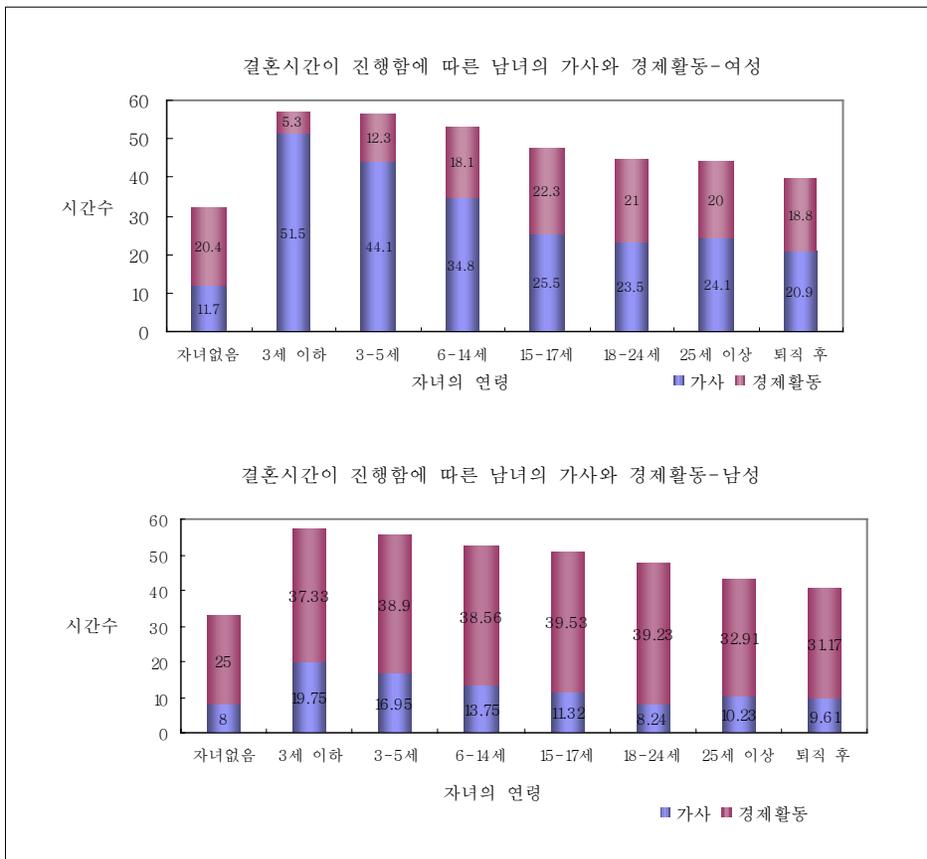
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 Die Familie im Spiegel der amtlichen Statistik, Aktualisierte Daten (BMFSFJ, 2003)

이 때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인 경우는 양육휴가를 낸 어머니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동독과 서독에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했으며, 서독에서는 유치원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제활동 비율도 계속적으로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1996년에서 2004년까지 어머니들의 경제활동비율은 6%상승했다. 서독의 경우는 7%에서 8%로 상승했으며, 동독의 경우는 6%에서 7%로 상승했다(통계청, 2005: 34~6). 동독의 경우에는 다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에도 전업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보호기관이 있어 내적으로나 외적

으로 갈등없이 전업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Szymenderski, 2004).

서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애 대한 요구는 적게 상승했다. 동독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경제활동 비율뿐만 아니라 전업노동까지도 감소했다(BFSFJ, 2005b: 390-1).

남자들의 경우는 전업경제활동으로서 지속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여자들의 경우 그들의 직업활동을 자주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인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 ‘반일직장’ 또는 ‘오전근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출처 : Hans Bertram, auf der Basis von Dten des DJI Familiensurvey(2000)

[그림 IV-11]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경제활동시간

분명히 경제활동과 가족을 위한 전체 노동시간 중에 가장 시간적으로 부족한 때는 삶의 중간 10년 동안이다. 전반적으로 자녀가 3~5세에서 자녀 14세가 될 때까지 천천히 감소한다. 부모는 이 시간동안은 각 부모 당 주 50시간이상을 가사 또는 육아와 직업 활동을 위해 노동한다(BFSFJ, 2005b: 422-4).

3. 성역할

독일 소녀와 젊은 여성은 소년과 젊은 남성에게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에 대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 청소년 연구소의 설문 조사(Gille et al., 2006)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기대에 대한 질문(예를 들어, 일상 생활에서의 가정에 관한 일, 즉 가사일 아기 돌보기 생업 그리고 정치에 관한 것 등). 질문 중 혹 남녀가 동등하게 일을 분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분담이 있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상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고, 나이집단에 따라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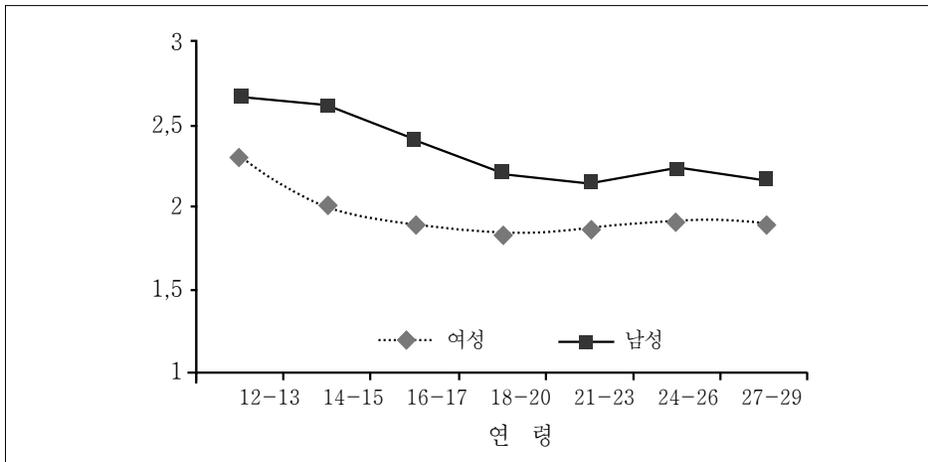
소녀와 젊은 여성들은 소년과 젊은 남성에게 비하여 더 가족지향적이고(여성 76% 남성69%), 아이를 갖기를 더 원하며(여성 69%, 남성57%), 부모와의 사이도 더 좋으며(여성 41%, 남성35%) 그리고 더 일찍 파트너를 갖는다. 그리고 소녀들은 소년에 비해 비교적 일찍 자립을 하여 부모의 집에서 분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여성33%, 남성24%).

성특유의 생활방식을 살펴보자면, 지금까지 젊은 남성들은 전반적으로 경쟁지향적이고 강한관철욕을 보여주었지만, 젊은 여성들도 유사하게 학교에서나 직업에서의功名심(야심)을 보였고, 직업전선의 늘어나는 요구에 높은 의지로 대응하고 있었다(Gille et al., 2006).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정 주부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친구와 파트너를 가지며, 교양있고 흥미로운 직업을 가지며,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며, 자녀를 원한다. 거의 모든 젊은 여성들은 가족과 직

업을 화합하는 데 관심이 많았고, 젊은 남성들을 그에 반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특히 자녀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여성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분담 의식을 가지고 있다.

부모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의 변화는 자녀의 사회화 공간으로서의 가족의 형성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것은 성정체성의 발달기회를 주며, 성별에 따라 주어지는 관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명령체제의 가족구조로부터 변화하여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의 유형을 벗어났다. 2005년 DJI (독일 청소년 연구소)의 청소년통계를 보면, 16~29세 여성인 경우 부양자로서의 남자의 기능에 대해 크게 거부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와는 반대로 남자나 소년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12~13세 사이의 소년들은 거의 노인과 비슷한 보수적인 의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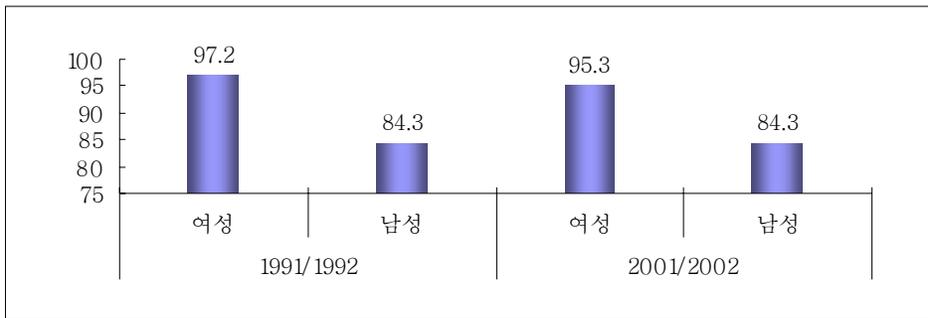
출처 : DJI-Jugendsurvey 2003, 3. Welle. eigene Berechnungen

[그림 IV-12]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에 대한 연령별 의식

가사노동은 성별역할분담에 따라 이루어진다. 80년대 말 이미 울리히 벡은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가사에 대한 남성들의 기피현상이라고 한 바 있다. 1991/92년의 조사에 따르면, 가사 중에서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취사는 여성들

의 전담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가사노동 협조시간이 1일 0.24시간인 것에 비해 여성들의 1일 취사 시간은 1.25시간으로 나타났다.

1991/92과 2001/02년도를 비교해 보면,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다. 여성들이 10년 전보다 가사노동을 위해서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었다(s. Abb. VI 3). 그 이유로는 독일 사회에서 결혼율의 감소와 1인 가정이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출처 : Uta Meier-Gräwe, Scientific Use Zeitbudgeterhebung 1991/1992 und 2001/2002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eigene Berechnungen

[그림 IV-13] 성별 가사노동 시간 비교

위 표를 통해서 보면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가 확연히 들어난다. 그와는 반대로 여성들의 가사 노동시간은 2001/02의 조사에 따르면 0.21시간이 줄었고 남성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일 2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했는데 여기에 0.14시간이 늘었다. 육아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양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성에게 더욱 더 의존적이 되었는데 1990년대 초 보다도 배우자의 보조가 더 줄었다. 남성들의 평균적인 취사노동 동참시간은 1일당 23분(1991/92)으로 식사시간에 숟가락을 놓거나 식탁을 치우거나 하는 정도였다(BFSFJ, 2005b: 374-6).

4. 부모자녀관계

부모와 함께사는 나이 12~15세 청소년의 70%가 그리고 16~29세 청소년의 1/3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아주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Gille et al., 2006). 어머니와 아주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청소년은 매우 적었다. 여기에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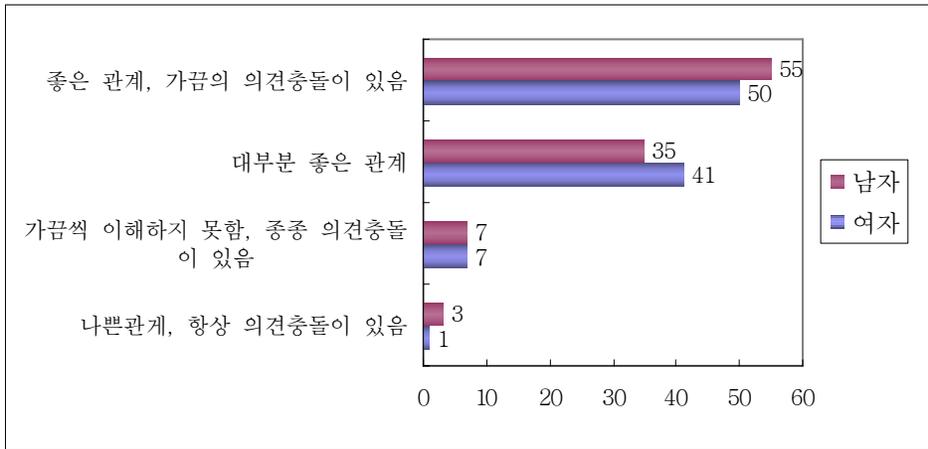
또한 14~18세 여성 청소년들은 그들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응답이 적었다. 이 같은 소녀와 젊은 여성에 있어서의 나이의 효과는 집에서 분가를 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2~13세 소녀들은 나이가 많은 여성에 비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소년과 젊은 남성에게 있어서는 이와 다른 상을 보여주고 있다. 12~20세까지 긍정적인 엄마와의 관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2~15세까지의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별 차이가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아버지에 대한 관계는 청소년에게서 어머니와의 관계보다는 더 드물게 아주 좋거나 신뢰적인 관계라고 한 응답이 적었다. 이같은 경향은 거의 모든 나이집단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일을 맡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청소년을 돌보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Gille et al., 2006).

부모와의 관계는 2006년 쉘 청소년 설문 조사(Shell Jugendstudie, 2006)에서도 연구되었는데, 청소년이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끔씩의 의견충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사이가 좋다고 답하였다. 더욱이 38%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하였고, 7%의 청소년들이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종종 부모와 의견충돌이 있다고 답하였다. 부모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항상 일정한 의견충돌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쉘 청소년 설문 조사(Shell Jugendstudie, 2006)에서 보여주듯이 동료적이고 좋은 부모자녀관계가 독일 청소년에게는 일반화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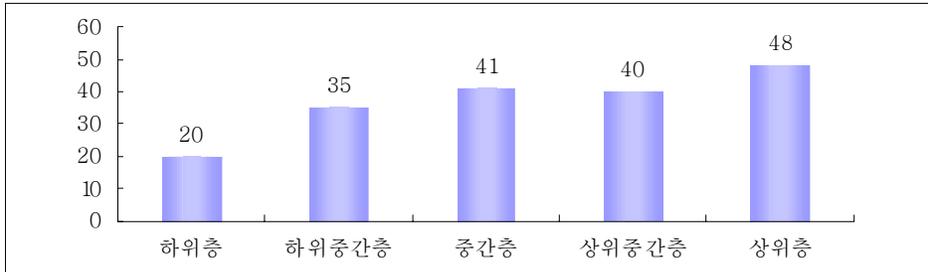
여성 청소년들은 남성 청소년들에 비해 비교적 부모와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녀들은 부모로부터 일상생활에서 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칭찬과 위로를 받는데 반해, 소년들은 더 많이 처벌 받거나 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Raithel, 2005).



출처: Shell Jugendstudie [셸 청소년 설문조사] (2006)

[그림 IV-14] 부모와의 관계 (12~25세 청소년)

또한 사회적 계층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속한 사회적 계층이 높을 수록, 그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더 좋다고 답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하위층의 청소년들과 하위중간층의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는 것인데, 상위층이 하위층의 20%만이 40%인데 비해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분가한 청소년은 분가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의견충돌이 적다고 답하였다.



출처: Shell Jugendstudie [셸 청소년 설문조사] (2006), %

[그림 IV-15] 사회적 계층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12-15세)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족형태에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분가하지 않은 청소년에게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부부가 함께 사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은, 이혼이나 부모가 헤어진 이유로 한 쪽 부모와 사는 청소년보다 부모자식관계가 좋았다. 이혼이나 부모가 헤어지는 등 가족형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부모나 자녀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럼으로서 종종 부모자식관계에 변화를 주게 된다. 이는 부모자식관계에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항상 의견충돌이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결별가족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대개 가끔 의견충돌이 있는 좋은 관계라고 답하였다.

오늘날 독일에서의 청소년들은 가족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비교적 오랫동안 부모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셸 청소년 연구 2006 (Shell Jugendstudie, 2006)이 보고했다. 18~21세 청소년 중 73%가 부모집에 머물고 있고, 22~25세까지 청소년은 34%가 부모와 살고 있다. 이러한 독일 청소년의 비교적 늦은 분가는, 부모에 대한 종속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족구성을 지체하거나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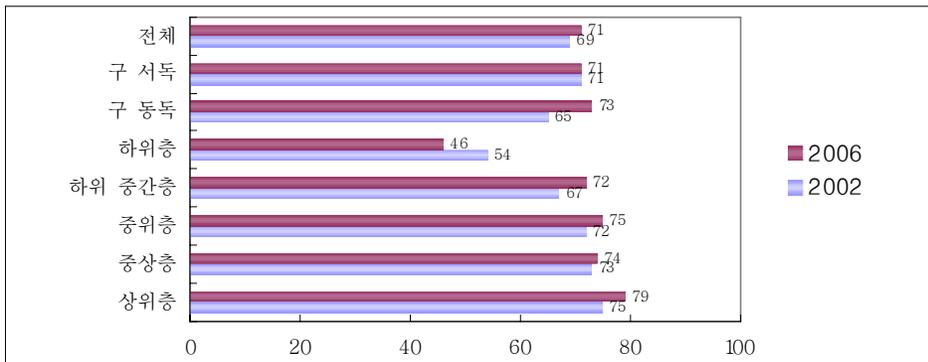
5. 양육방식

90년대 이후 셸 청소년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이 부모와 좋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와 아이와의 갈등으로 인한 세대간의 의견

충돌을 동료와같은 관계를 가지고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모와의 갈등때문이 아니라 부모와의 의논하에 분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60년대 이후 부모들은 그들에게의 순응과 복종에 대해 더 이상 높은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 보다는 타인에 대한 고려나 자녀들의 결정력의 강화 등을 양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Hurrelmann, 2005).

진보적인 양육방법은 또한 청소년의 인지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쉘 청소년 설문 조사(Shell Jugendstudie, 2006)는 많은 청소년들의 부모의 양육방법이 그리 엄격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보다 많은 이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양육된 방식대로, 그들의 아이를 기르겠다고 답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그들 부모의 양육방식에 만족하고 있으며, 56%는 자기 아이를 자기 부모의 양육방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키우겠다고 답하고 있으며, 15%는 자기 부모의 양육방식과 꼭 같이 자기 아이를 키우겠다고 답하였다. 그에 반해 20%의 청소년들은 자기 아이는 자기 부모의 양육방식과 다르게 키우겠다고 했고, 7%는 아주 다르게 키우겠다고 했다. 이 같은 경향은 구 동독과 구 서독 그리고 여러 사회계층에 따라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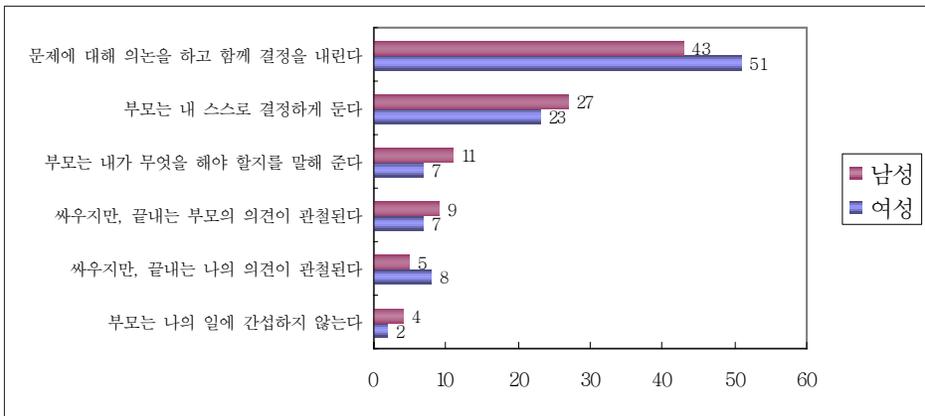


출처: Shell Jugendstudie [셸 청소년 설문조사] (2006)

* ‘미래 부모가 되었을 때 당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방식대로 당신의 자녀를 키우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그림 IV-16] 부모의 양식 방식에 대한 청소년의 호감도*(12-15세)

부모가 긴장과 의견대립 갈등의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의 청소년들은 문제가 있을 경우 부모와 함께 의논하고 같이 결정을 내린다고 답하였다. 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행동할 지를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성 청소년에 있어서 남성 청소년보다는 더 빈번하게 부모와 의논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지 적은 수의 청소년이 권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자세로 부모가 자기를 대한다고 보도했다.



출처: Shell Jugendstudie [셸 청소년 설문조사] (2006)

[그림 IV-17] 부모와 갈등해결 방법(12-25세)*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들이 결정하는데 간섭을 덜 하였다. 22~25세 청소년의 42%가, 그리고 12~14세 청소년의 8%가 혼자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어린 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구동독의 청소년들은 자기 부모의 양육방식을 구 서독의 청소년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더 자주 부모와 의논

을 하며 같이 해결책을 간구한다고 응답했으며, 가족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더 적다라고 답했다.

6. 도시 속의 청소년의 생활환경

50년대 시작된 ‘폐가과정’(집이 황폐해지는 과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위험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70년대의 출산율 감소로까지 이어졌는데, 형제나 남매 또는 자매의 수가 줄어들어 따라 아이들이 동년과의 접촉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조직화된 일종의 놀이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방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놀이방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린이인 경우 집밖에서 노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이른바 ‘이동하는 아동기’(Zeiger 1983)는 인구밀집지역 안에서 아이들의 활동에 적당한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아이들이 집으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는 대문 앞으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엔 도로로까지 놀이공간이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자의적인 이동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내몰린 형상이다. 아이들은 놀아야만 한다. 그것이 그들의 삶 안에서 잠재력과 연령에 맞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본능적으로 놀 수 공간을 찾는 아이들의 이러한 이동을 ‘이동하는 아동기’라 표현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이 발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사회화 공간은 60년대의 주택건설로 인해 그 자리를 전부 빼앗기게 되었다. 또한 위성도시의 건설로 다수의 수입원이 적은 가족들이 위성도시로 이동을 하였는데, 이렇게 세워진 위성도시들 역시 아이들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다. 단색의 집들과 똑같은 대문으로 자신의 집을 찾기 위해서는 50개가 넘는 초인종을 눌러야 되거나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버튼이 있다든지, 또는 집밖 대문 앞이나 차가 통행하는 도로에서 놀아야만 되는 일이 벌어졌다.

1981년 서독에서는 15세 이하의 아이들 중 약 65%가 대도시의 5층 이상 되는 다가구 집에서 살았다(Rolf/Zimmermann, 1985: 58). 문트(1980)에 의하면

‘...고층의 집에서 살수록 아이들이 집에서만 놀았고, 집에 있는 복도에서조차도 놀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층 빌딩에서 사는 아이들일수록 다른 동년의 아이들과의 접촉에 대해 손해를 본다’(P. 59). 80년대와 90년대에 대두된 아이들의 텔레비전시청 급증이나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등의 아이들의 매체 과다이용은 집밖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것에 원인이 있다(BFSFJ, 2005b: 162-163).

7. 가족의 일상과 사회화 과정

사회화과정은 가족 안에서 연령별 과제의 분배와 정리와 규칙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의 생활가운데 일상적인 조직의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연령별로 맞게 부여된 집안일의 수행과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사회화 과정 중에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책임감에 대해서 배우고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존재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또한 집안에서 어른들이 행하는 행동들은 아이들에게 학습의 장이 되어 사회화과정 안에서 선행적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초기 아동기의 육체적이고 인성적인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이의 지적능력과 학습능력의 잠재성을 발달시킨다(BFSFJ, 2005b: 221-2).

이런 발달은 가족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면과 가족의 일상에 의존적이다. PISA의 논쟁에 의하면 개인적인 내적 공간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설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아이들에게 가치형성과 잠재력 향상의 측면에서 갈등요소를 주고 있다고 지적되었다(Rabe-Kleberg, 2003). 이런 지적은 아이의 성장 후 사회활동의 시기의 사회와 개인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개별적인 능력의 표현과 교육과정에서의 적응력에 중요한 영향력을 준다. 따라서 가족과 복지시설 등의 기관에 의한 어린이 보호와 관리, 육성기관과의 사이의 균형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성인에게 있어서도 가족과 사회 간의 관계 형성이 가족에서 재교육될 수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경

제활동을 하는 직업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아이와 성인 둘 다를 위하여 가족과 그와 연관된 사회기관과의 관계는 중요하다(BFSFJ, 2005b: 222).

8. 가족과 청소년 정책

1) 전일제 학교의 목표

교육과 보호라는 측면 안에서 전일제학교는 한편으로는 3세 이하의 보호와 관리,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뒤따르는 영향력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 두 가지는 교육, 보호와 학습의 협동을 통해 해결되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해결안으로 전일제 학교가 제시되었다. 전일제 학교의 건립에 경제적인 면에서 국가의 예산과 장소와 프로그램 선정 등의 과제가 놓여져 있다(BFSFJ, 2005:19-20).

(1)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

교육상담과 학부모잡지를 위해서 연간 4천억 유로가 지출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한 상담을 더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주로 고학력 부모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개별적 교육에 대한 ‘교육잠재성의 증가’라는 모토 아래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BFSFJ, 2005b: 48).

(2) 독일에서의 교육, 보호와 학습에 관한 문제

독일은 교육, 보호와 학습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현실 속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가족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30년 전이나 50년 전, 100년 전과 똑같이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정치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가족과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교육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BFSFJ, 2005a: 49).

(3) 14세까지의 공공교육, 보호와 양육/육성 제공의 증가

2002년부터 독일전역에 걸친 교육에 관한 제공은 날로 늘어났다. 3~6세 사이를 위한 유치원을 보충하기 위한 제공은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공공교육의 제공은 가족과 공공교육의 학교와 학교 외 지역사회 단체의 협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때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2003년 5월 12일 독일 국회에서의 인준을 거친 후 각 주의 동의를 얻어 ‘미래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투자설계-IZBB’을 위한 기구가 설치됐다. 이 기구는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탁아, 유아관리를 목적하는 기관의 질적이고 양적인 개선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과 보호의 제공을 주관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는 1992년 말 독일 국회에서 설립된 임산부를 위한 법률에 이어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탁아관리소나 어린이집 등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족후원의 일환으로 실행될 것이다.

기구의 주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족이 현대적인 삶의 변화된 조건 안에서 구조적인 손해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 한다.
- ② 가사와 육아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배우자 간에 역할 분담이 새롭게 설정되도록 성별 정책을 선도한다.
- ③ 특히 젊은 여성이 노동시장 안으로 대거 유입되는 상황에서 가족과 직업의 균형, 즉 출산과 직업 간의 조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노동시장 정책을 실행한다.
- ④ 아동의 사회계층간의 차별을 줄이고 교육과 질적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며 경제적 빈곤, 어린이빈곤, 교육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조력한다.
- ⑤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았던 기존의 반일제 학교의 학습과 교육의 잠재성을 교육정책적으로 일깨우고 최대한 활용한다.
- ⑥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육성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력한다(BFSFJ, 2005a: 50-51).

(4) 국가와 사회 과제로서의 성장세대에 대한 포괄적인 진흥

교육과 보호, 그리고 학습은 성장세대의 재생산과 지속적인 발달을 통해 ‘사회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는 ‘성장세대에 대해 공적인 책임’을 진다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02b).

2) 가족정책적 판단을 위한 지표

가족과 관련된 표준은 각 주의 가족정책상의 특수성과 독일사회의 관심사 등 다방면의 관점에서 제시된다. 이러한 표준은 유아를 포함한 가족에 대해 집중되어있다. 각 주의 사례는 보호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포함한다. 유럽의 가족정책안에서 4개의 주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족관련된 표준을 위한 공적인 과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개선된 주별 사례 중 그 첫 번째는 가족을 위한 경제정책이다. 예를 들면, 가족별 수입에 따른 세금특별법 등이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는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엄마와 아빠의 경제활동, 아이들의 빈곤비율 등.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의 제공이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취학 전과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집밖의 보호시설에 중점을 두었다(BFSFJ, 2005b: 64-5).

V. 사회화 과정에 대한 제안점

1. 지속적인 가족정책
2. 교육체계와 친구관계

V. 사회화 과정에 대한 제안점

1. 지속적인 가족정책

1) 지속적인 가족정책의 목적

지속적이 가족정책의 목적은 성장세대가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며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각각의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1) 지역의 다양성 고려

오늘날 독일에서는 이미 다양한 가족의 생활형태가 나타났다. 전통적인 관점의 가족생활은 성장세대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성장세대인 자녀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의 생활 형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부독일과 서남부독일에서는 지배적인 가족형태로 남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여자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데 반하여 동독지역에서는 북유럽과 비슷한 유형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남부독일과 서남부독일에서는 중간적인 경향성이 젊은 세대에 나타나 주부양자가 남자 혼자가 되느냐가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다. 즉, 자녀가 적으면 지배적인 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북부독일에서는 또 다른 문제로 사회복지 수혜에 의존하는 편모가정이 늘어났다 이와 같은 지역에 따른 상이한 가족의 유형은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전통의 결과이고, 또한 서로 다른 경제적 발달의 결과이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때문에 지속적인 가족정책은 지역적 다양성과 고유성을 고려해야만 한다(BFSFJ, 2005b: 433).

(2) 생애과정과 시간에 대한 정치로서의 지속적인 가족정책

지속적인 가족정책은 산업사회 안에서 형성된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자

녀를 둔 엄마를 위한 복지시설의 증가를 통해서만 추구되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가족정책은 생애과정의정치로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생의 세 부분인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와 황혼기에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록 추구해야만 한다.

생애 과정안에서 삶의 과제의 분배는 인생의 러쉬아워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인생에 있어서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해야만 한다. 이런 노력을 위해서 연령별 차이를 둔 기존의 형태에서 연령별 생애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유동적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Riley/Riley 1992).

지속적인 가족정책은 젊은 세대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배우자 관계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후원해야만 한다. 또한 젊은 세대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자녀에 대해 결정하고 이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동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또한 인생의 아주 짧은 시기가운데 이루지 못한 삶의 과제는 다음의 생애과정에서 이를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확실한 시간구분에 의해 인생이 조직되었고, 매 시기마다 가족 어린이복지시설, 학교, 직업교육안에서 명백한 삶의 과제가 주어졌다. 유동적인 경제 안에서 특정한 사회기관 사이의 명백한 과제분배를 통한 고정적인 시간구조는 무너졌다.

지속적인 가족정책이 명백하고 고정적인 시간구조와 과제분배를 돌이킬 수는 없다. 이러한 고정성이 무너진 것은 능력위주의 사회 때문이다. 능력위주의 성과가 인생의 각 시기마다 더 심한 경쟁을 유발시켰다. 유동성이 생기는 하였지만, 반대로 과제완수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졌다. 오늘날 복수의 삶의 설계가 가능한 능력위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 사회 안에서는 유동적인 시간구조와 전략이 필요하다(BFSFJ, 2005b: 455-456).

(3) 가족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융합

‘슈퍼맘’은 현대 사회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산업사회는 직장과 가정과 직업교육과 자녀를 위한 복지시설의 가혹한 분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회의 이런 특수한 조직은 가족내의 대부분을 복지시설에 의탁하고 엄청난 투자를 통한 복지시설의 건립과 운영을 가져왔다.

이런 복지시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둔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Shonkoff/Philipps, 2000; Grossmann, 2003; 2005). 이런 현상은 단순히 독일만의 현상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Rainwater/Smeeding, 2003). 자녀를 둔 가족인 경우 오늘날 더 이상 양육부부로서의 형태를 취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산업사회는 가족이, 특히 어머니가 이런 새로운 자극을 혼자서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새로운 단어 ‘슈퍼맘’이다. 엄마 혼자서 직업과 가족과 배우자의 관계를 원만히 형성해 내도록 종용하고 이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다기능 인간상은 한 인간에게 너무 많은 자극과 요구가 가해져 가족의 전체가 흔들리는 사태로 이끈다. 남편이 아내의 과제를 나누어 수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부부가 함께 사회가 주는 구조적인 요구와 현대사회에서의 요구가 주는 무리함을 공동으로 합동하여 헤쳐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국가가 복지시설을 통하여 부부의 무거운 짐을 덜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다른 의미로 수혜자이자 동시에 기부자로서 또는 투자자로서 기능하게 된다(BMFSFJ, 2000a; 2001). 따라서 부모이자 부부는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지속적인 가족정책의 후원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의 활동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웃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제공 사이에서 아이에게 새로운 개방성이 제시된다. 브론펜브레너(1981)에 의하면 지속적인 가족정책은 단순히 아이의 생활환경이 아니다. 아이가 독립적인 자아의 식있는 국민으로서 발달할 수 있도록 가족과 기관과 사회사이의 연결성로 이루어진 생활환경을 만드는 시도라 할 수 있다(BFSFJ, 2005b: 456-458).

2. 교육체계와 친구관계

1) 연결된 교육복지시설

지난 15년 동안 동독에서 이동으로 발생한 인구의 감소는 동유럽으로부터

의 인구유입과 서독으로부터의 이주민을 통해서도 그 동안 급증한 출산율도 되돌이킬 수 없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의 인구밀도는 1km²당 300명이 거주하는 것에 비해 동독지역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스와 브란덴부르크스는 1km²당 25명이다. 이와 같은 숫자는 거주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특정지역에는 노동인구의 손실을 의미하며 거주민들이 그 만큼 안정적인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디넬/게어로프/레스케(2004)는 작센-안할트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핀란드와 독일의 두 지역을 비교하였다. 이런 연구의 제안을 보면, 연결된 교육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저인구 지역에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 관한 투자는 젊은 전문 인력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 있어서도 지역경제와 확실한 연계를 가져 직업적 기회를 확고히 부여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강하게 연관된 교육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그 지역에서 거주하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BFSFJ, 2005b: 327-328).

2) 가족에 대한 보완과 공공의 후원을 위한 지침서

(1) 지침: 아이의 교육행로와 생애과정이 중점에 서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한 기존의 지원은 교육과 보호와 학습체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PISA와 IGLU와 같은 국제적인 능력비교 결과에 대한 숙고의 산물이다. 방향성은 학교자체의 실행능력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개별적 잠재력향상에 있다. 즉, 성장세대를 사회적, 거래능력이 있으며 잠재력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감 있게 인도하고, 가족과 사회와 직업세계, 그리고 정치적인 공공성에 있어 영향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다양한 교육, 보호 그리고 학습에 제공이 성장세대에게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는 단순히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교육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

향을 미칠 것이냐의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법체계가 분리되어 있고, 다양한 지역성이 있으며,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가 다양하고 제공되는 교육이 다양해서 오히려 선택과 중요도에 대한 척도가 방해 받을 수 있다. 기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중점을 두어야만 한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최상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즉, 교육정책의 실현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개발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와 학계, 그리고 정치적인 단체들의 협동과 연결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BFSFJ, 2005b: 541-2).

(2) 교육과 보호와 학습의 세 분야는 출발점이다.

더 나은 진흥을 위해 교육과 학습과 보호는 밀착되어야 한다. 교육과 보호 그리고 학습이 이루어내는 삼각관계의 목표는 각각의 아동과 청소년기의 과제의 완수를 이루어내고 협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에 대한 고정적인 사고는 이러한 완수를 이루어내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예를 들면 ‘학교=교육’, ‘가족=학습’, ‘아동과 청소년 복지시설=보호’의 개념으로 이들의 기능을 고정화한다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교육제공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다. 성장세대가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성세대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이런 고정된 사고는 오히려 성장세대에게 줄 수 있는 더 많은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꼴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모든 체계의 활용과 체계간의 협동을 통해 부수적인 영향까지도 성장세대의 성장을 위해 기여시키도록 해야만 한다.

교육은 세상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위한 잠재력 향상의 포괄적인 행위이며, 학습은 도덕적인 판단능력이나 자기조율 또는 상황판단을 위한 사고력 배양과 그에 해당되는 잠재력의 진흥으로 볼 수 있고, 보호는 초기 아동기의 올바른 인성과 관계에 대한 이해와 관계형성을 위한 장으로서 여길 수 있다. 학습에 있어서나 보호에 있어서나 또는 교육에 있어서 그 각각의 기능과 중요성에 따라 각각 다른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면, 초기 아동기에는 보호기관이 강하게 작용하고,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는 교육기관이 작용한

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교육에는 단계적인 계층이 형성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또한 다르다.

오늘날까지 독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진흥을 위해 단계별 체계가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 이러한 단계별 체계에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다. ‘뇌 연구학’의 발달과 함께 ‘교육은 처음부터’라는 초기 아동교육과 취학아동을 위한 보호기관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초기 아동교육을 위한 고급의 전문 인력들이 생겨났고, 초기 아동교육을 원하는 부모를 위해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기관까지도 생겨났다. 또한 취학아동들을 위한 보호기관으로 ‘전일제 학교 계획’이 수립되었다.

(3) 장소와 상황과 내용의 다양성을 통한 교육과정의 확장

아동과 청소년의 진흥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확장된 교육의 이해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목적이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옳지만, 아이들이 어디서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 까라는 질문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조직화되어진 학습과 환경적인 학습이 있으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환경적인 학습은 일상에서 의도된 바 없이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학습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확실성도 없다. 이런 환경적인 학습은 자율적으로 자아에 의해서 준비 없이 일어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와는 반대로 계획을 통해서 의도되어진 조직화된 학습이 있다. 이는 전체 목차와 함께 각 단원으로 나뉘어지고 이에 맞추어 학습되어지고 학습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주제화되고 조직된 비자율적인 학습은 일상의 모든 범위에서 응용이 되지 않고 단지 지식으로만 남겨질 가능성이 큰 단점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직화된 학습이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전체 사회가 원하는 기본적 수준에서부터 특정사회가 원하는 고급인력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조직화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학습이 아닌 경우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의 조직화된 학습에 성공하지 못하여 등교거부나 학업능력부진 등이 발생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등의 수많은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관점의 조직적인 확장을 요구한다. 즉, 조직적인 학습과 함께 다른 교육장소와 학습세계에서의 환경적인 학습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이해도 확장이 된다.

첫 번째로, 잠재적인 학습의 가능성과 상이한 학습의 방법을 가능한 한 최대한 연결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과 학습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연관된다.

두 번째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개인의 일생에 의미가 있는 내용의 전부가 해당된다.

세 번째로, 교육이나 학습계획을 통한 잠재력 향상에 의한 결과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개인적인 결과와 영향이 연관된다.

네 번째로, 각각의 교육방법에 개인적인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심적 상황이 연관된다. 즉, 같은 상황이라도 학습자의 관심정도에 따라 학습 정도와 학습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큰 범주에서의 개방성과 연관되어 있다. 비공식적인 학습 또는 환경적인 학습인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으로 교육적 지침은 현실적으로 소용이 없게 된다(BFSFJ, 2005b: 544-6).

(4) 기회균등과 관계된 교육의 이해에 기초한 교육의 공고성과 책무성

정치와 경제에서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온 바와 같이 교육의 목적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폭 넓은 측면에서 미래를 위해 능력을 소지해야 한다.

두 번째, 계층에 따른 비평등적인 출발조건이 공공의 교육제공의 기회를 통해서 극복되고 개인적인 미래가 이런 불평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말

아야 한다.

세 번째, 성장세대는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참여 능력과 민주주의의 형성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시민사회의 차원 안에서 공공의 조직화된 교육제공은 민주주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출신과 계층에 따라 출발선에서의 기회 불평등은 공공 교육의 제공으로 극복되어야 하는데, PISA연구에 의하면 독일의 현실은 이상과는 다르게 학업성이나 교육성과는 출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 보호 그리고 학습제공, 예를 들면 학교와 청소년 복지 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다. 따라서 교육적 제공이 아무리 좋아도 수동적인 교육 자세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자기교육’, ‘자기학습’, ‘자기사회화’이다.

이것을 통해서 학습자 본인의 의지를 높여 전체 학습과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간과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교육적 자극을 주는 환경의 조성이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한층 더 높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공공의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학습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인 ‘부생산자’로 간주해야 한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 수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학습자에 관한 두 가지의 관점과 과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학습자가 연령별 학습에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안의 학습자가 ‘부생산자’로서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가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즉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방법은 지금까지의 학습경험과 학습세계가 연결되어 새로운 교육내용을 창출하기도 한다(BFSFJ, 2005b: 546-547).

(5) 풍요로운 교육, 보호 학습을 위한 노력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가족은 교육과 보호와 학습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이다. 성장세대는 가족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전반에 걸친 것이다. 가족은 ‘모든 것이 가능한’과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사이에서 흔들린다. 즉,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가정교육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고 성장세대에게는 일생 전반에 걸친 자산의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공공의 교육과 보호와 학습을 위한 조직화된 체계는 가족의 교육적 책임을 보조해주고 보완해주는 형식이 되어야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출신에 상관없이 그들의 잠재력과 능력의 발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독일의 PISA조사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적인 연결 속에서 각 연령별로 아동의 인생시기를 나누어 보면, 1살~3세에는 ‘크립펜 나이’라 하여 영아보호기관인 크립페에 소속 된다. 3~6세는 ‘킨더가르텐 연령’으로 취학을 준비하게 된다. 6세 이후는 취학 연령으로 여러 시기로 나뉜다. 이 시기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에도 관계하게 되는데 학교와 청소년복지간의 협동과 학교 외 또는 방과 후 교실 등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갖는다. 경험적으로 볼 때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은 ‘전일제 학교’가 더 나은 교육과 보호와 학습의 기능을 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의 교육제공자와 학교간의 협동을 통해서 더 나은 시너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서로 간에 의견일치를 통한 보완된 교육제공은 의심 없이 더 나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전일제 학교에서는 협동의 교육제공을 학습자에게 펼쳐 보이고 학습자는 성향에 따라 이를 골고루 시험해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과정을 완수해 나가며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높여가는 것이다. 전일제 학교의 목적을 위해서 학습자와 교육자는 함께 협동해야 하지만, 지역공동체와 지역에서의 정치와 경제, 종교계와 시민단체도 함께 전일제 학교의 개선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BFSFJ, 2005b: 547-9).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가족 및 청소년들의 생활상, 그리고 가족내 사회화 과정에 대한 현황과 논쟁점을 최근의 문헌자료, 경험적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문헌은 2006년 ‘셸 청소년연구소’의 청소년 조사(4년 주기)결과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발행한 2005년 「청소년보고서」와 「가족보고서」 등이다. 이들 보고서들은 독일 가족과 청소년들의 최근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헌들이다. 문헌자료와 이들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독일 청소년들의 가치관, 생활상, 청소년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 등을 기술하였다.

첫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독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은 자아개발이나 비판력과 같은 가치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친사회적인 가치들, 즉 타인에 대한 고려나 책임감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순행, 명예욕 그리고 안정지향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흥미롭게 이끌고 싶다는 쾌락주의적 가치가 뒤따랐다.

둘째, 가족구성, 학생신분, 실업, 이주경험 등이 특정한 가치지향을 결정짓는 요인들이었다. 특히 타국에서 이주해 온 청소년들은 적응이나 안정성 지향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물질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16~20세의 이주민 청소년들은 독일 자국민 청소년들보다 쾌락주의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였다. 지역적 요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가치지향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동독에서는 특히 자아개발이나,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선호되는 추세를 보였다.

셋째, 12~15세 사이의 독일 청소년들은 서독에선서는 75% , 동독에서는 59%가 연맹에 소속되어 있으며, 10%정도가 정치적 성향을 띤 모임에 참여

하는데, 예를 들면 환경보호단체, 평화단체, 제3세계모임, 인권권리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에서의 청소년들의 활동 및 사회참여가 활발하다.

넷째,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10~15세 청소년의 경우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하는 등의 문화적 활동은 겨우 10~20% 이하의 학생들이 하는 반면에 50%가 넘는 학생들이 정규적으로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층에 속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른 사회적 계층의 아이들보다 눈에 띄게 독서나 예술적, 미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최근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의 빈곤상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 모든 연령층의 아이들이 평균이상의 높은 빈곤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지표는 가족경제의 삶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런 지표를 나타내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편부모 가족인 경우가 반 이상이었고 양부모 가족인 경우는 삼분의 일도 되지 않았다. 편부모의 빈곤비율은 양부모인 경우 보다 높고, 경제활동도 부업이나 보조인 경우 전업인 경우보다 빈곤비율이 높다.

여섯째,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학업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게 되는가는 그들 부모의 학력과 많은 관련이 있다. 이민세대이거나 노동자계층인 경우 고학력으로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학교생활상의 어려움도 다른 계층의 학생들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3년 PISA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PISA 결과는 독일의 교육체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반일제 수업에서 전일제 수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독일의 청소년들의 실업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2002년의 쉐 청소년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은 테러리즘, 경제적 불황, 환경오염 그리고 유럽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나타냈으나, 2006년 청소년들은 오히려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독일 청소년 연구소 (DJI) 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구서독은 물론

이고 구동독에서도 결혼 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양모 양부가정, 그리고 미혼 가정이가 더 많아 지고 있으며, 결혼을 한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의 결별이나 이혼 등을 경험하고 있다.

아홉째, 2006년 셸 청소년 설문조사(Shell Jugendstudie, 2006)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일청소년은 가끔씩 부모와의견 충돌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와의 사이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료적이고 좋은 부모자녀관계가 독일 청소년에게는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PISA 결과 발표이후 독일 사회는 급격히 변화고 있다. PISA결과 발표이후 교육시스템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중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자연히 가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전일제로 학교가 운영됨으로써 가족내에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국가권력이 가족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점점 가정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학교가 가정의 기능을 대신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하다. 후자의 경우 특히 빈곤한 계층에 대한 배려이지만, 동시에 PISA결과에 대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전일제의 운영은 학교와 국가와 가족 간의 줄다리기를 양상을 띠고 있는 셈이다. 분명한 것은 전일제로의 전환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의 것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다른 교육장소와의 협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주로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전일제 교육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전일제 교육은 결과적으로 각각의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교육장소와 학습세계의 협동은 구조적으로 개인적으로 실행되어야만 한다. 다섯째,

전일제 교육제공을 위한 전문인력팀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일제 학교의 운영은 기존 학교의 독립성 보장과 사회내 네트워크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일사회의 전일제 학교운영이 학교와 가족 간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갈 것인가는 최근 방과후 학교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사회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Alt, Ch. (Hrsg.; 2005) : Kinderleben. Aufwachsen zwischen Familie, Freunden und Institutionen, Bd.1; Aufwachsen in Familien; Bd. 2: Aufwachsen zwischen Freunden und Institutionen. Reihe DJI-Kinderpanel. Wiesbaden
- Barthelmes, J. (1999a): Raver, Rapper, Punks, Skinheads und viele anders. Beobachtungen aus jugendkulturellen Szenen. In: Erziehung und sozialer Wandel. Zeitschrift für Pädagogik. 39. Beiheft. Weinheim, Basel. S. 39-50
- Barthelmess, J./Sander, E. (2001) : Erst die Freunde, dann die Medien. Medien als Begleiter in Pubertät und Adoleszenz. Medienerfahrungen von Jugendlichen, Bd. 1. München
- Bittman, Michael/Rice, James Mahmud(2000). The rush hour :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1), 165-89.
- Bonfadelli, H. (1996): Lesen im Alltag Jugendlicher. Umfang und Motivationen, Modalitäten. In: Hohmann, J. S./Rubinich, J. (Hrsg.):Wovon der Schüler träumt. Leseförderung im Spannungsfeld von Literaturvermittlung und Medienpädagogik. Frankfurt a. M., S. 51-66
- Bundeskriminalamt (2005).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2004.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2000a)]. Vereinbarkeit von Erwerbstätigkeit und Pflege: betriebliche Maßnahmen zur Unterstützung pflegender Angehöriger. Berlin.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2002b)]. Elfter Kinder-und Jugendbericht der Bundesregierung. Bericht über die Lebenssituation junger Menschen und die Leistungen der kinder-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Berlin.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2005a)] Siebter Familienbericht.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2005b)] Zwölfter kinder-und Jugendbericht.
- DJI-Jugendsurvey 2003,3 Welle, eigene Berechnungen.
- Dudek, P. (2002) : Geschichte der Jugend. In Krüger, H.-H./Grunert, C. (Hrsg.) : Handbuch Kindheits-und Jugendforschung. Opladen, S. 333-349
- Edelstein, W. (2004): Wider die Leuchttürme. Ein Plädoyer für kulturelle Bildung mit Flächenwirkung. In: Welck, K. v./Schweizer, M. (Hrsg.): Kinder zum Olimp! Wege zur Kultur für Kinder und Jugendliche. Köln, S. 27-32
- Fagan, Collete (2003). Working-time preferences and work-life balance in the EU : some policy leration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European 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Fölling-Albers, M./Hopf, A. (1995) : Auf dem Weg vom Kleinkind zum Schulkind. Opladen
- Gille, M., Sardei-Biermann, S., Gaiser, W., & de Rijke, J. (2006). Jugendliche und junge Erwachsene in Deutschland. Lebensverhältnisse, Werte und gesellschaftliche Beteiligung 12- bis 29-Jähriger.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Helsper, W. (1989): Jugendliche Gegenkultur und schulisch-bürokratische Rationalität. In: Breyvogel, W.(Hrsg.): Pädagogische Jugendforschung. Opladen, S. 161-186
- Honig, M.-S(2002) : Geschichte der Kindheit. In Krüger, H.-H./Grunert, C. (Hrsg.) : Handbuch Kindheits-und Jugendforschung. Opladen, S. 309-332
- Krappmann, L./Oswald, H./Niedereisen, B. (1999) : Soziale Ungleichheit unter Kindern in Schulklassen. Antrag an die DFG. Potsdam
- Preiß, Ch. (2004): Leben und Lernen mit Musik. In: Wahler, P./Tully, C. J./Preiß, Ch.: Jugendliche in neuen Lernwelten. Selbstorganisierte Bildung jenseits institutioneller Qualifizierung. Wiesbaden, S. 131-152
- Riley, Matilda White/ Riley, John W.Jr. (1992). Individuelles und gesellschaftliches Potential des Alterns. In: Baltes, Paul B./Mittelstraß, Jürgen (Hrsg.). Zukunft des Alterns und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Berlin, 437-459.
- Schmidt, W. (2003): Kindersport Im Wandel der Zeit. In: Schmidt, W./Hartmann-Tews, I./Brettschneider, W.-D. (Hrsg.): Erster Deutscher Kinder- und Jugendsportbericht. Schorndorf, S. 109-126
- Shell Jugendstudie (2006). Jugend 2006. Frankfurt: Fischer.
- Statistisches Bundesamt (2004b). Alltag in Deutschland. Analysen zur Zeitverwendung. Forum der Bundesstatistik, Bd. 43. Wiesbaden
- Statistisches Bundesamt : Die Familie in Spiegel der amtlichen Statistik, Aktualisierte Date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3)
- Theunert, H./Eggert, S. (2003) : Virtuelle Lebenswelten-Annäherung an neue Dimensionen des Medienhandelns. In: Medien und Erziehung. Zeitschrift für Medienpädagogik, 47, 5, S. 3-13
- Valtin, R./Fatke, R. (1997) : Freundschaft und Liebe. Persönliche Beziehungen im Ost/West- und im Geschlechtervergleich. Donauwörth. Weinheim, München: Juventa. 8. uflage.
- Zeiger, Helga (1983). Die vielen Räume der Kinder. Zum Wandel räumlicher Lebensbedingungen seit 1945. In : Preuss-Lausitz, Ulf (Hrsg.). Kriegskinder, Konsumkinder, Krisenkinder. Zur Sozialisationsgeschichte seit dem Zweiten Weltkrieg. Weinheim, 176-194.
- Zinnecker, J./Silbereisen, R. K.: Kindheit in Deutschland. Aktueller Survey über Kinder und ihre Eltern. Weinheim, München

부 록

1. 조사개요
2. 단순집계표
3. 질문지

1. 조사개요

독일조사는 베를린 지역의 김나지움(일개교)과 종합학교(일개교)를 편의표집에 의하여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독일의 조사 대상자 495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71명으로 전체의 54.5%이고, 여학생은 224명으로 전체의 45.1%로 남학생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조사는 베를린을 중심으로 표집 되어 대도시 거주자가 483명으로 97.8%를 차지하였다. 그 외 중·소도시는 6명(1.2%), 읍·면 지역은 5명(1.0%)를 차지하여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매우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부록 -1> 독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	271	54.5
	여	224	45.1
출생별	1970-1988년생	47	9.6
	1989-1991년생	334	68.2
	1991-1995년생	109	22.3
지역별	대도시	483	97.8
	중소도시	6	1.2
	읍·면 지역	5	1.0
부모의 학력별 (아버지 학력 기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98	20.9
	중학교 졸업	181	38.6
	고등학교 졸업	12	2.6
	대학교 졸업	90	19.2
	대학원 이상	14	3.0

2. 단순집계표

<문 6> 당신의 부모님은 다음의 가사노동에 각각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어머니가 전부 한다	어머니가 주로 한다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한다	아버지가 주로 한다	아버지가 전부 한다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	무응답
1) 식사준비	26.8	45.5	13.9	6.4	1.4	4.0	2.0
2) 설거지	19.3	28.6	25.2	5.6	1.2	16.7	3.4
3) 청소	22.3	44.3	16.1	2.6	0.8	11.1	2.8
4) 세탁	50.7	30.0	8.0	1.6	0.8	6.4	2.4

<문 7> 당신의 부모님께서는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서로의 입장을 듣고 냉정히 이야기한다	5.0	16.3	44.1	24.7	9.9
서로 감정적으로 대한다	16.7	37.0	25.8	2.4	18.1
서로 말하지 않는다	52.9	20.9	10.3	3.4	12.5
어머니가 아버지 의견에 따른다	29.2	27.2	25.8	1.0	16.9
아버지가 어머니 의견에 따른다	26.2	27.6	27.8	2.2	16.3
어느 한 쪽이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25.4	28.4	27.8	4.2	14.3
어느 한 쪽이 폭력을 행사한다	82.9	2.0		1.2	13.9

<문 8-1> 당신은 아래 사항을 아버지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무응답
1)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 참여	31.4	16.1	33.4	12.7	6.4
2) 여행	8.5	10.1	26.0	48.7	6.8
3) 음악회/영화/박물관 관람 등	16.9	28.2	37.4	11.5	6.0
4) TV시청	10.5	12.3	31.4	38.8	7.0

<문 8-2> 당신은 아래 사항을 어머니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무응답
1)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 참여	35.2	27.8	23.5	6.8	6.6
2) 여행	4.0	9.3	27.6	54.7	4.4
3) 음악회/영화/박물관 관람 등	11.7	27.4	42.5	13.9	4.6
4) TV시청	6.6	14.9	34.2	39.8	4.4

<문 9-1> 당신의 아버지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관심 없다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응답
1) 공부	7.0	21.5	39.8	24.5	7.0
2) 친구관계	10.3	26.8	41.0	14.3	7.6
3) 이성관계	18.3	33.6	26.0	12.9	9.3
4) 여가·취미생활	8.5	24.3	38.0	21.5	7.6
5) 진로·진학	7.4	15.3	35.2	33.4	8.7

<문 12-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해주시시오.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8	19.9	35.0	34.6	5.6
2)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2.0	3.0	16.1	73.6	5.2
3)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6	15.1	39.2	35.4	5.6
4)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13.5	26.0	31.6	23.3	5.6
5)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2.5	27.0	32.4	22.3	5.8
6)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11.1	20.5	24.3	39.0	5.0
7)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8.5	19.9	27.6	39.4	4.6
8)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12.5	28.0	28.4	25.4	5.8
9)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5.0	12.5	28.8	47.7	6.0
10)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6.4	14.5	34.6	38.0	6.4
11)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43.1	36.0	11.5	4.0	5.4
12)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90.3	2.8	0.6	0.4	5.8
13)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77.1	11.5	4.4	1.4	5.6
14)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를 한다	71.4	13.3	7.0	2.2	6.0
15)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78.1	12.1	3.0	1.2	5.6
16)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50.9	27.4	11.5	4.4	5.8
17)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63.0	17.3	10.1	3.8	5.8
18)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5.0	9.1	32.2	47.7	6.0

	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9) 나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	37.0	39.2	15.1	2.8	5.8	
20)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4.2	7.8	28.2	53.1	6.6	
21)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했다	44.7	30.6	12.1	4.6	8.0	
22)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53.5	22.9	12.3	4.2	7.0	
23)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12.9	21.3	33.0	24.7	8.0	
24)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한다	4.2	15.9	34.0	38.2	7.6	
25)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27.0	28.6	26.0	11.7	6.8	
26)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49.3	24.7	11.3	7.2	7.4	
27)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12.5	19.7	33.2	27.8	6.8	
28) 아버지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다	7.4	22.1	35.0	27.6	7.8	
29)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3.2	7.8	18.7	63.0	7.2	

<문 12-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해주십시오.

(양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어머니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0	10.3	35.8	49.5	2.4
2)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1.0	3.2	14.9	79.1	1.8
3)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2.6	9.9	37.4	48.1	2.0
4)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6.6	16.3	32.8	41.6	2.6
5)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5.4	17.3	34.8	40.2	2.2
6)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5.2	12.1	22.7	57.7	2.2
7)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3.2	7.6	21.1	66.6	1.4
8)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7.2	20.7	33.2	36.0	2.8
9)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2.4	11.1	30.0	54.3	2.2
10)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3.0	10.1	37.4	46.5	3.0
11)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42.9	33.6	13.9	6.6	3.0
12)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92.8	2.8	0.6	0.6	3.2
13)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79.9	11.1	3.8	3.2	2.0
14)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를 한다	70.2	15.3	7.8	4.0	2.6
15)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79.9	11.7	3.2	2.8	2.4
16)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54.3	26.0	11.9	5.0	2.8
17)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65.4	19.3	8.7	3.8	2.8

	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8)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3.4	7.2	34.2	52.1	3.0
19) 나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	34.6	40.8	17.7	3.8	3.0
20)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1.8	4.2	26.6	64.4	3.0
21)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했다	30.2	32.0	20.5	13.3	4.0
22)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38.8	29.0	20.9	7.4	3.8
23)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7.0	17.7	36.6	34.4	4.2
24)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한다	2.2	7.8	34.0	52.3	3.6
25)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15.3	24.9	28.4	28.4	3.0
26)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34.4	27.6	19.3	14.9	3.8
27)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6.2	14.1	33.6	43.3	2.8
28) 아버지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다	5.8	19.5	37.8	32.6	4.2
29)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1.8	5.0	18.7	70.8	3.6

<문 13-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아버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44.7	30.8	12.5	6.6	5.4
2) 나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35.8	31.0	17.3	9.9	6.0
3)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44.9	32.4	13.5	3.0	6.2
4) 나의 이성교체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55.3	26.0	7.0	3.0	8.7
5) 나의 학원수강 및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39.6	29.8	15.9	8.9	5.8
6)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20.5	31.0	25.4	16.9	6.2
7) 나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22.9	44.7	19.7	6.2	6.4
8) 나는 성격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43.3	25.6	17.3	6.8	7.0
9) 나는 친구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65.8	22.7	4.0	1.8	5.6
10) 나는 이성교체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72.8	13.9	2.6	1.8	8.9
11) 나는 성격, 습관, 태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32.6	38.4	16.5	6.2	6.2
12) 나는 행동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50.9	27.6	11.3	3.0	7.2
13) 아버지와 부딪힐 때 묵묵히 봐주신다	14.3	24.1	30.8	22.7	8.0
14)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일반적으로 야단을 맞는다	65.0	16.3	8.2	2.8	7.6
15)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긴다	16.1	30.6	37.6	4.8	10.9
16)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말로 서로 잘 풀어간다	7.8	16.3	30.4	37.0	8.5
17)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피한다	34.0	30.4	17.3	10.7	7.6

<문 13-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어머니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25.4	34.4	25.6	12.1	2.6	
2) 나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30.4	30.4	23.3	12.5	3.4	
3)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33.0	35.6	21.9	5.8	3.6	
4)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45.9	29.4	14.1	4.6	6.0	
5) 나의 학원수강 및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30.2	28.2	23.7	15.1	2.8	
6)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0.1	25.2	31.2	30.6	3.0	
7) 나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16.9	41.2	28.4	10.1	3.4	
8) 나는 성격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34.4	30.2	22.5	8.9	4.0	
9) 나는 친구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61.4	25.2	7.6	2.6	3.2	
10) 나는 이성교제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69.2	18.5	4.4	1.8	6.0	
11) 나는 성격, 습관, 태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26.0	37.8	23.5	9.3	3.4	
12) 나는 행동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47.1	30.6	14.5	3.8	4.0	
13)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목욕히 봐주신다	10.5	23.7	36.0	25.2	4.6	
14)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일반적으로 야단을 맞는다	64.0	17.9	9.1	4.2	4.8	
15)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긴다	10.9	33.4	42.3	6.4	7.0	
16)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말로 서로 잘 풀어간다	6.8	19.5	31.4	37.8	4.4	
17)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피한다	32.2	30.6	21.3	11.3	4.6	

<문 14-1> 다음 문항은 당신에 대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해주십시오.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아버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5.6	22.7	48.5	17.5	5.6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6.4	22.1	43.5	21.1	6.8
3) 내가 사회적을 성공하기를 바란다	3.6	5.4	32.0	52.3	6.6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5.0	4.2	21.7	62.6	6.4
5)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3.0	5.2	39.2	45.9	6.6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2.2	2.0	21.5	68.6	5.6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1.8	1.6	11.9	78.9	5.8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2.2	2.4	12.5	76.9	6.0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17.7	19.3	28.4	25.6	9.1

<문 14-2> 다음 문항은 당신에 대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해주십시오.
(양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어머니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2.4	22.3	46.9	24.7	3.4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4.6	21.7	46.1	23.1	4.0
3) 내가 사회적을 성공하기를 바란다	2.0	5.4	31.2	57.7	3.4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2.8	4.6	22.1	67.2	3.0
5)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1.2	5.4	39.4	50.5	3.4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0.4	2.0	19.1	76.1	2.4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2.0	9.9	85.7	2.4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0.8	1.4	11.7	83.5	2.6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17.7	21.1	26.6	27.8	6.8

<문 15> 문14의 1~9 항목 중 아버지/어머니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인지 2가지를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을 원한다	무응답
아버지 1순위	10.5	7.4	3.2	3.0	3.0	3.6	25.4	19.5	0.4	23.9
아버지 1+2순위	13.9	13.1	8.2	9.1	7.2	8.7	41.6	45.5	2.2	50.5
어머니 1순위	9.3	4.0	2.6	3.4	2.6	4.4	30.2	21.7	1.0	20.7
어머니 1+2순위	12.3	8.5	6.4	9.1	6.8	10.3	48.1	50.7	3.8	44.1

<문 16>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이상	무응답
1) 당신은 어디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2) 부모님은 당신이 어디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문 1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무응답
1)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33.8	60.2	6.0
2)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32.4	62.4	5.2
3) 나는 아버지가 싫다	9.1	85.9	5.0
4) 나는 어머니가 싫다	4.4	90.7	4.8

<문 18> 당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위대로 써주십시오. 없는 경우에는 1순위_____에 11번을 써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선생님	친구	교제 하고 있는 이성 친구	사회 적인 인물, 위인, 정치가 등	없다	기타	무응답
1순위	33.4	37.0	5.0	0.6	1.0	0.2	1.0	7.4	5.4	0.6	1.2	4.6	2.4
1+2순위	55.5	69.8	12.9	0.6	2.4	1.4	1.6	23.1	14.9	1.2	2.4	7.2	6.8

<문 19> 다음은 당신과 부모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하지 않는다	가끔 하는 편이다	자주 한다	무응답
1) 아버지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46.9	16.1	20.7	10.5	5.6
2) 어머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41.9	21.7	19.9	12.3	4.2
3)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50.3	21.7	16.5	7.2	4.0

<문 20> 당신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권유로 (또는 영향으로)	친구 및 주위의 권유로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종교단체 활동을 통해서	봉사 접수를 이기 위해	기타	무응답
	35.6	3.6	4.2	2.6	5.4	2.2	7.6	38.6

<문 21> 아래 문항을 자세히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결혼 전까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도 좋다	29.0	34.4	15.1	17.5	4.0
2) 내가 공부할 다 마칠 때까지 나의 생활비 (학비 포함)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책임져야 한다	13.7	33.0	30.8	18.3	4.2

<문 22>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등 최종학업을 마친 후	취업한 이후	결혼한 이후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해도 좋다	기타	무응답
1)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시기	5.0	17.1	26.6	42.7	1.6	1.2	1.4	4.4
2) 부모님 집으로부터 나와 혼자 살아야 할 시기	2.6	39.4	14.9	18.5	3.8	2.2	4.6	13.9

<문 23> 다음의 보기 중 당신의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 2가지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특별한 고민이 없는 경우에는 9번에 체크하고, 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자세히 적어주세요.)

	공부와 성적	친구관계	진로문제 (진학/취업)	가족관계 (가족문제)	외모	성격	이성교제	집안의 경제사정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기타	무응답
1순위	23.7	5.8	11.9	4.8	1.8	3.0	3.6	5.0	30.6	3.2	6.4
1+2순위	32.6	11.7	22.3	11.5	6.2	7.4	9.3	7.8	41.9	5.6	43.7

<문 24> 당신은 누구와 고민을 상담하십니까?

(가장 자주 고민을 상담하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번호를 써주세요. 누구외도 상담하지 않는 경우 1순위에 11번을 기입해주세요. 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는 () 안에 누구인지 자세히 적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선생님	상담 전문 기관	학교 상담 생님	누구 하고도 상담하지 않는다	기 타	무응답
1순위	17.1	33.4	7.2	26.2	0.2	0.8	1.2	0.2	0.4		4.0	4.8	4.4
1+2순위	34.4	60.2	15.7	47.7	0.4	2.6	2.6	0.8	1.0	0.4	7.6	7.6	18.7

<문 25> 당신은 다음의 활동을 하루(평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폰메일 보내는 문자	폰메일 받는 문자	비디오· 컴퓨터 게임 또는 인터넷 사용	TV시청	학습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학원 및 과외공부
	4.91	8.37	185.42	157.67	72.51	22.03

<문 26> 당신은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주로 언제쯤 집으로 돌아오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오후 4시 이전	오후 5시경	오후 6시경	오후 7시경	오후 8시경	오후 9시경	오후 10시경	오후 11시경	오후 12시 이후	일정치 않다	무응답
	82.5	2.4	0.4	0.4	1.0	0.2	0.4	0.6	0.6	9.7	1.8

<문 27> 당신이 집에 돌아온 후, 자기 전까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가장 많습니까?

	혼자	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와서 그냥 자는 일이 많다	무응답
	31.4	21.1	2.8	17.1		0.6	15.3	9.1	2.6

(한 가지만 선택하여 √ 표 해주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 28> 당신은 아래의 일 또는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무응답
1) 집안 일(청소, 요리, 세탁 등)	5.4	31.8	40.8	19.7	2.2
2) 취미/문화(미술관 관람·음악회·영화관람)	3.6	26.0	40.0	28.2	2.2
3) 스포츠 활동	4.4	18.7	24.5	49.9	2.4
4) 여행이나 캠프	10.1	39.8	34.0	13.7	2.4

<문 29> 당신이 장차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하고 싶은 일	재미 있는 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	귀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일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무응답
1순위	27.4	36.8	2.6	0.8	1.2	17.9	1.8	4.6	6.8
1+2순위	34.4	61.0	6.4	2.8	5.2	53.7	7.0	14.1	15.3

<문 3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에게 적합한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	42.9	37.6	10.5	3.6	5.4
2)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0.8	4.4	26.0	63.2	5.6
3) 부모님은 내가 당신의 직업을 이어 받기를 원한다	68.6	15.7	5.8	4.2	5.6
4) 나는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 받고 싶다	62.2	18.1	8.2	5.2	6.2

<문 31>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무응답
	33.6	62.0	4.4

<문 31-1> 당신이 했거나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전단지 돌리기 (스티커 부착)	패스트 푸드점	24시 편의점	상점에서 물건 팔기	신문 배달	주유소	사무 보조	건설 현장 일	이벤트 행사장	음식점 (피자, 치킨, 분식점 등) 에서 서빙	음식점 (피자, 치킨, 분식점 등) 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타
33.1	3.6	3.6	6.0	18.7	1.8	6.7	4.9	4.9	9.1	3.0	53.0	

<문 31-2>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고 순위대로 써주십시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친구들이 하니까	부모님의 권유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일반적인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장래의 직업과 관련한 경험을 쌓기 위해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기타	무응답
1순위	77.8	0.6	1.2	0.6	7.8	1.2	3.0	6.6	1.2
1+2순위	95.2	3.6	2.4	2.4	35.3	2.4	25.7	13.2	19.8

<문 32> 여러분 나이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경험이다	한 두번 정도는 해도 좋다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71.0	18.7	0.2	0.8	5.0	4.0

<문 33>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	54.1	28.0	8.9	5.4	3.6	
2) 사회적 성공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50.1	26.6	13.3	5.8	4.2	
3)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41.9	29.2	17.5	7.0	4.4	
4) 여자는 앞선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	67.4	18.3	6.6	3.8	3.8	
5) 여자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한 결혼이 더 중요하다	21.3	35.4	28.8	9.3	5.2	
6)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27.8	31.2	29.0	7.2	4.8	
7)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	4.8	9.5	48.7	33.2	3.8	
8) 여자들도 경제적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3.0	11.5	55.3	25.8	4.4	
9) 사회적 성공은 여자에게도 중요하다	2.4	7.4	50.7	35.0	4.4	
10) 남자가 불 주도적일 필요는 없다	5.8	12.3	38.8	37.8	5.2	

<문 34> 아래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미국에서는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다	23.7	37.4	25.6	8.2	5.0
2) 미국사회는 능력이 중요한 사회이다	1.6	8.0	57.9	27.4	5.0
3) 미국사회는 학력(학벌)이 중요한 사회이다	2.2	13.5	45.3	33.6	5.4
4) 미국사회는 인맥(연줄)이 중요한 사회이다	1.6	11.5	53.5	27.6	5.8
5) 미국사회는 혈연이 중요한 사회이다	6.0	35.6	38.6	13.7	6.0
6) 미국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15.5	40.4	30.8	6.8	6.4
7) 나라가 발전해야 개인도 발전한다	5.4	18.9	50.9	17.3	7.4
8)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32.8	37.2	15.9	7.0	7.0

<문 35> 아래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7.2	59.2	26.4	6.2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2	13.9	56.9	22.1	5.8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4	6.0	59.4	27.0	6.2
4)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0.2	9.7	55.9	27.8	6.4
5)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1.6	10.1	58.6	23.9	5.6
6)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1.4	9.5	56.9	26.2	6.0
7)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1.9	36.4	12.1	3.8	5.8
8)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4.5	33.8	11.7	4.0	6.0
9)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44.3	35.2	11.5	3.0	6.0
10)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68.4	18.3	4.6	3.0	5.6
11)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71.8	15.5	3.8	2.8	6.0

3. 질문지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142, Woomyung-dong, Seocho-ku, Seoul, Korea
Tel: *82-2-2188-8824 Fax: *82-2-2188-8839

Berlin, 22. Juni 2006

Liebe deutsche Jugendliche,

’Jugend ist unsere Zukunft’ – das ist das Motto der meisten Länder der Welt. Als ein sich rasch entwickelndes Land bemüht sich Süd-Korea, eine sinnvolle und effektive Jugendpolitik zu gestalten, um die Jugendlichen bestens auf die Zukunft vorzubereiten. In diesem Jahr versucht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eine Momentaufnahme der Jugendpolitik der USA, Japans, Schwedens und Deutschlands zu erstellen und so die Jugendlichen in diesen Ländern besser zu verstehen.

Im Auftrag der süd-koreanischen Regierung führen wir zur Zeit ein Forschungsprojekt über die Jugendlichen in Deutschland durch. Hierbei steht die Rolle der Familie während des Erwachsenwerdens im Vordergrund. Für das Projekt haben wir einen 10-seitigen Fragebogen vorbereitet und möchten Sie auf diese Weise befragen. Wir würden uns über Ihre Unterstützung freuen, da wir auf ein zufriedenstellendes Feedback von Ihnen angewiesen sind. Wir versichern Ihnen, dass diese Umfragen anonym bleiben und allein dieser wissenschaftlichen Untersuchung dienen sowie keinesfalls für andere Zwecke benutzt werden und werden dürfen.

Wir danken Ihnen herzlich für Ihr Verständnis und Ihre Unterstützung!

Mit freundlichen Grüßen,
Prof. Dr. Mark B.M. Suh
Dr. Hyun-Cheol Kim
Ms. Eun-Jung Kim

Kontakt-Adresse in Berlin: Schlieperstr. 12, 13507 Berlin.

Tel: (030) 4340-0460; Fax: 4340-0461; E-mail: mark@suh-mail.de

Umfrage über das Familienleben und Familienbewusstsein von deutschen Jugendlichen

SQ1. Ihr Geschlecht?

- ① männlich ② weiblich

SQ2. Wann wurden Sie geboren? 19 _____

SQ3. Welche Schule besuchen Sie zur Zeit?

- ① Hauptschule ④ Gymnasium
 ② Realschule ③ Gesamtschule
 ⑤ Andere:.....

SQ4. In welcher Klasse sind Sie?

- ① 7 ⑤ 11
 ② 8 ⑥ 12
 ③ 9 ⑦ 13 oder andere:.....
 ④ 10

SQ5. Wo wohnen Sie?

- ① Großstadt ② Kleinstadt ③ auf dem Land

SQ6. Wie gut sind Ihre Leistungen?

- ① bestens ④ unterdurchschnittlich
 ② überdurchschnittlich ③ durchschnittlich ⑤ schlecht

Einige Bitten an Sie beim Ausfüllen:

1. Bitte beantworten Sie nacheinander alle Fragen.
2. Je nach Antwort werden Sie manchmal zu verschiedenen weiterführenden Fragen geführt, wie zum Beispiel „Gehen Sie zur Frage 2.1“.
3. Falls Sie keine Eltern haben, antworten Sie bitte so, als ob Ihre Stiefeltern bzw. Erziehungsberechtigten Ihre Eltern wären.
4. Bitte beachten Sie, dass bei manchen Fragen mehr als eine Antwort erwartet wird.
5. Bei einigen Fragen werden in Klammern () oder Kästchen genauere Informationen erbeten.

Vielen Dank!

Einige Fragen zu Ihren Eltern

Q1. Mit wem wohnen Sie zusammen? Kreuzen Sie alles Zutreffende an und tragen Sie die Anzahl in die Kästchen ein!

- | | |
|---------------------------------|--|
| __① Vater | __⑦ Großvater mütterlicherseits |
| __② Mutter | __⑧ Großmutter mütterlicherseits |
| __③ Stiefvater | __⑨ <input type="checkbox"/> Bruder/Halbbruder |
| __④ Stiefmutter | __⑩ <input type="checkbox"/> Schwester/Halbschwester |
| __⑤ Großvater väterlicherseits | __⑪ <input type="checkbox"/> Verwandte |
| __⑥ Großmutter väterlicherseits | __⑫ Andere () <input type="checkbox"/> |

Q2. Welche Schulbildung haben Ihre Eltern?

	Hauptschul-Abschluss	Realschul-Abschluss	Gymnasium mit Abitur	Berufsschule	Fachhochschul-Studium	Universitäts-Studium	Promotion	Weiß nicht
Vat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Mutt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Q3. Arbeitet Ihr Vater zur Zeit?

- __① Ja (weiter mit Q3-1) __② Nein (weiter mit Q4)

Q3-1. Wo arbeitet Ihr Vater?

Bitte etwas Konkretes eintragen; nicht nur Beamter oder Angestellter, sondern wo und in welcher Funktion, wie z.B. Direktor einer Bank, Autohändler, Leiter eines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s. Wenn selbstständig, dann bitte Branche angeben wie Restaurant, Laden, Handwerksbetrieb oder Baufirma.

- | | |
|---------------------------------|-------------------------------------|
| __① Professor () | __⑩ Priester/Pfarrer () |
| __② Lehrer () | __⑪ Jurist () |
| __③ Angestellter () | __⑫ Journalist () |

- | | |
|-----------------------|-------------------------------|
| __④ Beamter () | __⑬ Künstler () |
| __⑤ Geschäftsmann () | __⑭ Sportler () |
| __⑥ Mediziner () | __⑮ Schauspieler () |
| __⑦ Forscher () | __⑯ Bauarbeiter/Ingenieur () |
| __⑧ Polizist () | __⑰ Selbstständiger () |
| __⑨ Soldat () | __⑱ Andere () |

Q3-2. Wie ist das Arbeitsverhältnis Ihres Vaters?

- __① Teilzeitbeschäftigung __② Vollzeitbeschäftigung

Q4. Arbeitet Ihre Mutter zur Zeit?

- __① Ja (weiter mit Q4-1) __② Nein (weiter mit Q5)

Q4-1. Wo arbeitet Ihre Mutter?

Bitte etwas Konkretes eintragen; nicht nur Beamtin oder Angestellte, sondern wo und in welcher Funktion, wie z.B. Direktorin einer Bank, Leiterin eines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s. Wenn selbstständig, dann bitte Branche angeben wie Restaurant, Laden, Handwerksbetrieb oder Baufirma.

- | | |
|-----------------------|-----------------------------------|
| __① Professorin () | __⑩ Priester/Pfarrerin () |
| __② Lehrerin () | __⑪ Juristin () |
| __③ Angestellte () | __⑫ Journalistin () |
| __④ Beamtin () | __⑬ Künstlerin () |
| __⑤ Geschäftsfrau () | __⑭ Sportlerin () |
| __⑥ Medizinerin () | __⑮ Schauspielerin () |
| __⑦ Forscherin () | __⑯ Bauarbeiterin/Ingenieurin () |
| __⑧ Polizistin () | __⑰ Selbstständige () |
| __⑨ Soldatin () | __⑱ Andere () |

Q4-2. Wie ist das Arbeitsverhältnis Ihrer Mutter?

- __① Teilzeitbeschäftigung __② Vollzeitbeschäftigung

Q5. Wie viel machen die jeweiligen Einkommen Ihrer Eltern in der Familienkasse aus?

- __① Mutter verdient allein __④ Vater verdient mehr als Mutter
 __② Mutter verdient mehr als Vater __⑤ Vater verdient allein
 __③ Beide Eltern verdienen gleich, also je 50% __⑥ Weiß nicht

Q6. Wie viel tragen Ihre Eltern zur Hausarbeit bei?

	Mutter macht alles	Mutter macht am meisten	Mutter und Vater gleich	Vater macht am meisten	Vater macht alles	jemand anderes macht alles
(1) Essen kochen	①	②	③	④	⑤	⑥
(2) Geschirr abwaschen	①	②	③	④	⑤	⑥
(3) sauber machen	①	②	③	④	⑤	⑥
(4) Wäsche waschen	①	②	③	④	⑤	⑥

Q7. Was machen Ihre Eltern, wenn sie verschiedener Meinung sind?

	nie	fast nie	oft	immer
(1) Sie hören einander zu und reden vernünftig miteinander.	①	②	③	④
(2) Sie begegnen einander nur emotional.	①	②	③	④
(3) Sie reden nicht miteinander.	①	②	③	④
(4) Mutter befolgt Vaters Meinung.	①	②	③	④
(5) Vater befolgt Mutters Meinung.	①	②	③	④
(6) Eine Seite will nicht auf den anderen hören.	①	②	③	④
(7) Sie wenden Gewalt an.	①	②	③	④

Q8. Wie häufig unternehmen Sie folgende Aktivitäten gemeinsam mit Ihrem Vater und Ihrer Mutter?

	Vater				Mutter			
	nie	fast nie	manchmal	oft	nie	fast nie	manchmal	oft
(1) Spor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Reis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Besuche von Museum, Konzert, Kino, usw.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TV seh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9. Wie viel Interesse hat Ihr Vater und Ihre Mutter an folgenden Themen, die Sie betreffen?

	Vater				Mutter			
	kaum	wenig	viel	sehr viel	kaum	wenig	viel	sehr viel
(1) Lern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Freund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Beziehungen zum anderen Geschlech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Freizeit/Hobb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Karrier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0. Worin ermahnen Ihre Eltern Sie am häufigsten? Kreuzen Sie bitte nur einmal an!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Zu lernen | <input type="checkbox"/> ⑤ Nicht zu lügen |
| <input type="checkbox"/> ② mit dem Computer oder Spielen aufzuhören | <input type="checkbox"/> ⑥ Sparsam zu sein |
| <input type="checkbox"/> ③ zu sein wie andere Jugendliche | <input type="checkbox"/> ⑦ Fleißig zu sein |
| <input type="checkbox"/> ④ Anderen nicht zur Last zu fallen | <input type="checkbox"/> ⑧ Anderes:..... |

	Vater				Mutter			
	niemals	selten	manchmal	oft	niemals	selten	manchmal	oft
(12) Er/sie verprügelt mich of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Er/sie bestraft mich physisch, wenn ich Fehler mach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Er/sie schimpft mich ohne Grund au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Er/sie beleidigt mich.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Er/sie duldet meine Fehler nich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Er/sie zwingt seine/ihre Meinung auf.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8) Ich bin glücklich, wenn ich mit ihm/ihr zusammen b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 Ich belüge ihn/sie of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 Ich bin ihm/ihr dankb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1) Ich rede mit ihm/ihr über meine Pubertätsproblem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2) Er/sie spricht mit mir über Sex.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 Er/sie redet mit mir über Famili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4) Er/sie redet mit mir über meine Leistung in der Schul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5) Ich rede mit ihm/ihr über Probleme mit Schulfreund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6) Ich rede mit ihm/ihr über Probleme mit dem anderen Geschlech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Vater				Mutter			
	niemals	selten	manchmal	oft	niemals	selten	manchmal	oft
(27) Ich rede mit ihm/ihr über Probleme mit Lehrer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8) Ich habe ihm/ihr schon mal gesagt, wenn er/sie Fehler mach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9) Er/sie würden alles für mich tu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3. In den folgenden Aussagen geht es wieder um das Verhältnis zwischen Ihnen und Ihrem Vater und Ihrer Mutter. Kreuzen Sie jeweils die betreffenden Nummern an.

	Vater				Mutter			
	niemals	selten	manchmal	oft	niemals	selten	manchmal	oft
(1) Mischt sich in meine Angelegenheiten bezüglich meines Aussehens und Haare e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Mischt sich in meine Angelegenheiten bezüglich meines Taschengeldes e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Mischt sich in meine Angelegenheiten bezüglich meiner Freunde e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Mischt sich in meine Angelegenheiten bezüglich meiner/es Freundin/Freundes e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Mischt sich bei meinen Hausaufgaben bzw. Nachhilfe e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Vater				Mutter			
	niemals	selten	manchmal	oft	niemals	selten	manchmal	oft
(6) Mischt sich in meine Angelegenheiten bezüglich meiner Freizeit, wann ich nach Hause komme bzw. raus gehe, e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Ich habe oft Konflikte mit ihm/ih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Ich habe Konflikte mit ihm/ihr wegen meiner Leistung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Ich habe Konflikte mit ihm/ihr wegen meiner Freund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Ich habe Konflikte mit ihm/ihr wegen Freund/Freund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Ich habe Konflikte mit ihm/ihr wegen meines Charakters, Haltung, Gewohnheit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Ich habe Konflikte mit ihm/ihr wegen meiner Aktivität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Wenn ich mit ihm/ihr streite, sind er/sie verständnisvol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Wenn ich mit ihm/ihr streite, beschimpfen mich Vater/Mutt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Wenn ich mit ihm/ihr streite, gewinne ich imm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Wenn ich mit ihm/ihr streite, reden wir vernünftig miteinand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Nach einem Streit reden wir nicht miteinander oder vermeiden Begegnung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4. Wie treffen folgende Aussagen hinsichtlich Ihres Verhältnisses zu Ihrem Vater und Ihrer Mutter zu?

	Vater				Mutter			
	niemals	selten	zutreffend	sehr	niemals	selten	zutreffend	sehr
(1) Erwartet viel an Leistung von mi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Erwartet viel von meiner Karrier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Wünscht mir gesellschaftlichen Erfol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Wünscht mir einen Studienplatz.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Erwartet, dass ich weiß, was ich tu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Wünscht, dass aus mir ein guter Mensch wir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Wünscht, dass ich gesund b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Wünscht, dass ich glücklich bi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Hofft, dass ich einen Partner aus guter Familie heirat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5. Welche Priorität haben die oben genannten Wünsche für ihre Eltern?

Vater
 Priorität.....
 Priorität.....

Mutter
 1. Priorität.....
 2. Priorität.....

Q16. Kreuzen Sie das höchste Ziel an.

	Haupt-/Realschule	Gymnasium	Fachhochschule	Universität (Magister)	Universität (Promotion)
(1) Wo möchten Sie lernen?	①	②	③	④	⑤
(2) Was erwarten Ihre Eltern?	①	②	③	④	⑤

Q17. Bitte die zutreffende Aussage ankreuzen.

	Ja	Nein
(1) Ich möchte wie mein Vater leben	①	②
(2) Ich möchte wie meine Mutter leben	①	②
(3) Ich mag meinen Vater nicht.	①	②
(4) Ich mag meine Mutter nicht.	①	②

Die folgenden Fragen betreffen Ihr Leben

Q18. Wer hat den meisten Einfluss auf Ihr Leben?

Wählen Sie die zwei wichtigsten Personen aus den unten genannten 10 Möglichkeiten.

1. Wichtigste.....

2. Wichtigste.....

- | | |
|--------------------|---|
| ① Vater | ⑦ Lehrer |
| ② Mutter | ⑧ Freunde |
| ③ Geschwister | ⑨ enge/r Freund/Freundin |
| ④ Großvater | ⑩ bekannte Persönlichkeiten (Idol, Vorbild), wie Musiker, Schauspieler, Politiker |
| ⑤ Großmutter | ⑪ niemand |
| ⑥ andere Verwandte | ⑫ Andere:..... |

Q19. Fragen zu ehrenamtlichen Diensten:

	nie	fast nie	manchmal	oft
(1) Vater ist ehrenamtlich tätig.	①	②	③	④
(2) Mutter ist ehrenamtlich tätig.	①	②	③	④
(3) Ich bin ehrenamtlich tätig.	①	②	③	④

Q20. Wenn Sie ehrenamtlich tätig sind, was sind Ihre Gründe?

- __① Weil ich das so will.
- __② Wegen Bitten und Einfluss von Eltern.
- __③ Wegen Bitten von Freunden oder anderen.
- __④ Durch Klubs und Foren.
- __⑤ Durch Kirchenarbeit
- __⑥ Um Punkte/Anerkennung zu erhalten.
- __⑦ Andere Gründe:.....

Q21. Gewichten Sie folgende Behauptungen.

	unzutreffend	kaum	beinahe	zutreffend
(1) Bis ich heirate, will/könnte ich finanziell von meinen Eltern abhängig sein.	①	②	③	④
(2) Bis ich mit dem Studium fertig bin, müssen meine Eltern meinen Lebensunterhalt bezahlen.	①	②	③	④

Q22. Wann glauben Sie, von Ihren Eltern unabhängig zu werden?

Finanziell:

- ① Nach dem Haupt-/Realschulabschluss.
- ② Nach dem Abitur.
- ③ Nach Abschluss des Studiums.
- ④ Nachdem ich Arbeit gefunden habe.
- ⑤ Nachdem ich geheiratet habe.
- ⑥ Meinen Eltern versorgen mich immer.
- ⑦ Anderes:.....

Durch Aus-/Wegziehen:

- ① Nach dem Haupt-/Realschulabschluss.
- ② Nach dem Abitur.
- ③ Nach Abschluss des Studiums.
- ④ Nachdem ich Arbeit habe.
- ⑤ Nachdem ich geheiratet habe.
- ⑥ Ich kann immer bei meinen Eltern leben.
- ⑦ Anderes:.....

Q23. Was sind Ihre Hauptprobleme?

Wählen Sie die beiden wichtigsten aus den 8 Möglichkeiten. Wenn Sie keine Probleme haben, kreuzen Sie Nummer 9 an. Wenn sie Nummer 10 ankreuzen, tragen Sie bitte den Grund ein.

- 1. Wichtigste.....
- 2. Wichtigste.....

- | | |
|---------------------------|-----------------------------|
| ① Lernen und Leistung | ⑥ Der eigene Charakter |
| ② Beziehungen zu Freunden | ⑦ Beziehung mit Freund/in |
| ③ Sorgen um die Zukunft | ⑧ Finanzlage der Familie |
| ④ Familie | ⑨ Keine besonderen Probleme |
| ⑤ Das eigene Aussehen | ⑩ Andere:..... |

Q24. Mit wem sprechen Sie über Ihre Probleme?

Tragen Sie die beiden wichtigsten Personen ein. Wenn Sie niemanden konsultieren, kreuzen Sie Nummer 11 an. Wenn Sie Nummer 12 ankreuzen, tragen Sie bitte die Person ein.

- 1. Wichtigste.....
- 2. Wichtigste.....

- | | |
|-----------------|----------------------|
| __① Vater | __⑦ andere Verwandte |
| __② Mutter | __⑧ Lehrer |
| __③ Geschwister | __⑨ Fachberater |
| __④ Freunde | __⑩ Schulpsychologe |
| __⑤ Großvater | __⑪ Niemand |
| __⑥ Großmutter | __⑫ Sonstige:..... |

Q25. Wieviel Stunden verbringen Sie pro Tag mit folgenden Aktivitäten?

(1) SMS	() Anzahl schreiben	() Anzahl empfangen
(2) Video-/Computerspiele, Internet	() Stunden	() Minuten
(3) TV sehen	() Stunden	() Minuten
(4) allein Hausaufgaben machen bzw. lernen	() Stunden	() Minuten
(5) Nachhilfeunterricht	() Stunden	() Minuten

Q26. Wann kommen Sie meistens nach der Schule erstmals nach Hause?

Kreuzen Sie bitte nur einmal an!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Vor 16 Uhr | <input type="checkbox"/> ⑥ Gegen 21 Uhr |
| <input type="checkbox"/> ② Gegen 17 Uhr | <input type="checkbox"/> ⑦ Gegen 22 Uhr |
| <input type="checkbox"/> ③ Gegen 18 Uhr | <input type="checkbox"/> ⑧ Gegen 23 Uhr |
| <input type="checkbox"/> ④ Gegen 19 Uhr | <input type="checkbox"/> ⑨ Nach Mitternacht |
| <input type="checkbox"/> ⑤ Gegen 20 Uhr | <input type="checkbox"/> ⑩ Immer unregelmäßig |

Q27. Mit wem verbringen Sie die meiste Zeit zu Hause? Kreuzen Sie bitte nur einmal an!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Alleine | <input type="checkbox"/> ⑤ Großvater |
| <input type="checkbox"/> ② Geschwister | <input type="checkbox"/> ⑥ Großmutter |
| <input type="checkbox"/> ③ Vater (Stiefvater) | <input type="checkbox"/> ⑦ Mit der ganzen Familie |
| <input type="checkbox"/> ④ Mutter (Stiefmutter) | <input type="checkbox"/> ⑧ Ich entspanne/schlafe meistens |

Q28. Wie häufig machen Sie folgende Aufgaben?

	nie	selten	manchmal	oft
(1) Hausarbeiten (Kochen, Saubermachen, Wäsche usw.)	①	②	③	④
(2) Hobby/Kultur (Galerie, Konzert, Kino, usw.)	①	②	③	④
(3) Sportaktivitäten	①	②	③	④
(4) Reisen oder Zelten	①	②	③	④

Q29. Was ist Ihnen wichtig für Ihren zukünftigen Beruf?

Wählen Sie zwei Prioritäten aus der Liste und tragen Sie die Nummer ein.

1. Priorität..... 2. Priorität.....

- ① Dass er mich interessiert.
- ② Dass er mir Spaß macht.
- ③ Dass er zu meinen Charakter passt
- ④ Dass er mir die meiste Freizeit bietet.
- ⑤ Dass ich wertvolle Erfahrungen sammeln kann.
- ⑥ Dass ich viel Geld verdienen kann.
- ⑦ Dass ich eine höhere Stellung in der Gesellschaft erreichen kann.
- ⑧ Dass Sicherheit des Arbeitsplatzes (Beamte usw.) besteht.

Q30. Bewerten Sie folgende Aussagen.

	unzutreffend	kaum	beinahe	zutreffend
(1) Eltern oder Lehrer entscheiden über meine Berufsrichtung.	①	②	③	④
(2) Ich entscheide allein über meinen Beruf und trage die Verantwortung.	①	②	③	④
(3) Meine Eltern wünschen, dass ich ihren Beruf weiterführe.	①	②	③	④
(4) Ich wünsche, den Beruf meiner Eltern weiterzuführen.	①	②	③	④

31. Haben Sie im letzten Jahr gejobt ?

- __① Ja (weiter mit Q31-1) __② Nein (weiter mit Q32)

Q31-1. Welche Arbeit haben Sie gemacht? Bitte alles Zutreffende ankreuzen!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Werbung verteilen oder Plakate kleben | <input type="checkbox"/> ⑦ Büroassistent |
| <input type="checkbox"/> ② Fast Food Restaurant | <input type="checkbox"/> ⑧ Baustelle |
| <input type="checkbox"/> ③ Kiosk | <input type="checkbox"/> ⑨ Eventassistent |
| <input type="checkbox"/> ④ Verkäufer | <input type="checkbox"/> ⑩ Restaurant (Bedienung) |
| <input type="checkbox"/> ⑤ Zeitungen ausliefern | <input type="checkbox"/> ⑪ Restaurant (Liefer-Service) |
| <input type="checkbox"/> ⑥ Tankstelle | <input type="checkbox"/> ⑫ Sonstige..... |

Q31-2. Warum haben Sie gearbeitet?

Sie können mehreres ankreuzen. Was waren die beiden wichtigsten Gründe?

1. Grund.....2. Grund.....

- ① Um Taschengeld zu verdienen.
- ② Weil meine Freunde es auch tun.
- ③ Weil meine Eltern es wünschen.
- ④ Weil die Finanzlage meiner Familie schlecht ist.
- ⑤ Um Erfahrungen zu sammeln.
- ⑥ Weil es mit meinem zukünftigen Beruf zu tun hat.
- ⑦ Um meine Unabhängigkeit zu stärken.
- ⑧ Anderes:.....

Q32. Was halten Sie von jugendlicher Arbeitserfahrung?

- ① Erfahrungen zu machen, ist gut.
- ② Ein paar Mal ist in Ordnung.
- ③ Besser nicht.
- ④ Niemals.
- ⑤ Ich weiß nicht.

Q33. Treffen folgende Behauptungen in Ihren Augen zu?

	nein	kaum	zutreffend	sehr
(1) Männer sollen arbeiten und Frauen sollen die Familie hüten.	①	②	③	④
(2) Gesellschaftlicher Erfolg ist wichtiger für Männer als für Frauen.	①	②	③	④
(3) Männer sind für die Finanzen der Familie verantwortlich.	①	②	③	④
(4) Frauen sollen artig und zurückhaltend sein.	①	②	③	④
(5) Für Frauen ist eine glückliche Ehe wichtiger als beruflicher Erfolg.	①	②	③	④
(6) Die Frauen sind verantwortlich für die Kindererziehung.	①	②	③	④
(7) Männer sollen auch Hausarbeit machen.	①	②	③	④
(8) Frauen sollen auch die Finanzen der Familie mitverantworten.	①	②	③	④
(9) Gesellschaftlicher Erfolg ist auch wichtig für Frauen.	①	②	③	④
(10) Männer müssen nicht immer dominieren.	①	②	③	④

Q34. Treffen folgende Aussagen in Ihren Augen zu?

	nein	kaum	zutreffend	sehr
(1) In Deutschland werden alle Menschen unabhängig von Vermögen und Stellung gleich behandelt.	①	②	③	④
(2)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ist Leistung wichtig.	①	②	③	④
(3)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ist ein Studium wichtig.	①	②	③	④
(4)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sind persönliche Kontakte wichtig.	①	②	③	④
(5)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ist Verwandtschaft wichtig.	①	②	③	④
(6) Die deutsche Gesellschaft ist fair.	①	②	③	④
(7) Nur wenn das Land sich entwickelt, geht es dem Einzelnen besser.	①	②	③	④
(8) Ich bin bereit, mich im Interesse meines Landes aufzuopfern	①	②	③	④

Q35. Bitte bewerten Sie folgende Aussagen.

	nein	kaum	zutreffend	sehr
(1) Ich glaube, dass ich einen guten Charakter besitze.	①	②	③	④
(2) Ich vertraue meinen Leistungen.	①	②	③	④
(3) Ich glaube, dass ich ein guter Mensch bin.	①	②	③	④
(4) Ich würde meinen Entscheidungen vertrauen.	①	②	③	④
(5) Ich glaube, dass ich selber meine Probleme lösen kann.	①	②	③	④
(6) Ich lenke mein Leben selbst.	①	②	③	④
(7) Ich denke manchmal, dass ich ein nutzloser Mensch bin.	①	②	③	④
(8) Ich denke manchmal, dass ich ein böser Mensch bin.	①	②	③	④
(9) Manchmal fühle ich mich, als ob ich ein Versager bin.	①	②	③	④
(10) Ich glaube selbst, dass ich ein Problemkind bin.	①	②	③	④
(11) Leute in meinem Umfeld glauben, dass ich ein Problemkind bin.	①	②	③	④

Herzlichen Dank für Ihre Hilfe!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김기헌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헌·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헌·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오승근·권두승·전명기·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문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문지표 개발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상택·전성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천정웅·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정준미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De-Ping Lu·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윤숙·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해연·조정문·김아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조흥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육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권해수·정찬석·김귀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 (자체번호 06-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홍승아·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끼·마츠다 시게끼·무쿠오 아사코·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은·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 · 안드레아스헤네커 · 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 · 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 · 윤옥경 · 조아미 (자체번호 06-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 ·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 · 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 · 방은령 · 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 · 이경상
-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 · 김지혜
-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 · 황진구 · 한도희 · 김종훈
-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신동준
-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 · 김영희 · 서동희
-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 · 평가 / 김성벽
-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윤숙

■ 용역과제

-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 · 조혜영
-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윤숙 · 이해연 · 이창호
-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

-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임지연
-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김영지
-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 · 이민희
-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 · 오해섭 · 이정현 · 신순갑
-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 · 서정아
-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 · 김경준 · 최창욱 · 황진구 · 성윤숙 · 오승근 · 양계민
-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 · 김기현
-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 · 임지연
-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 · 장근영
-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 · 김기현
-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 · 김경준 · 박병식 · 정익중
- 06-R44 청소년행복 · 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 · 이경상 · 백해정
-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 · 김신영 · 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6.17)
-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 (6.21)
-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 (6.23)
-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7.7~8)
-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8.14)
-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8.17)
-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 (8.18)
-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9.6~9.8)
-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8.22)
-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 (9.9)
-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 (10.10)
-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 (10.19)
- 06-S15 「청소년과 미디어」 (11.10)
-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 (11.15)
-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24)
- 06-S18 「청소년 활동관련 정책과 뉴 패러다임」 (12.6)
- 06-S19 「경영목표 · 혁신 직원 워크숍 및 청소년정책개발 · 연구를 위한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14~12.16)

■ 연구수행 자료집

-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6-R12-4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인 쇄 2006년 12월 12일

발 행 2006년 12월 1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대표 박진태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54-7(93330)